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07. 4 Vol. 184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오정환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동무생각과 오빠생각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창랑한 물에 갓끈을 씻어내는 거문고 - 탁영금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오페라 '토스카'의 선율이 흐르는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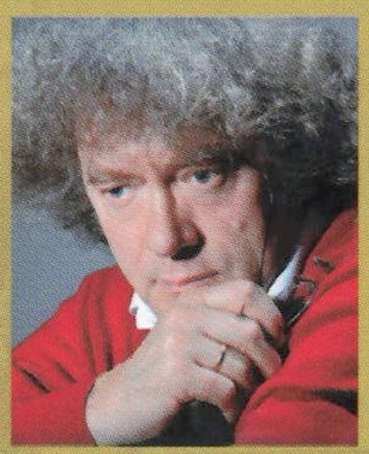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29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게르만의 신화

바그너 음악의 밤





지휘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피아노 · 권석란

2007. 4. 10(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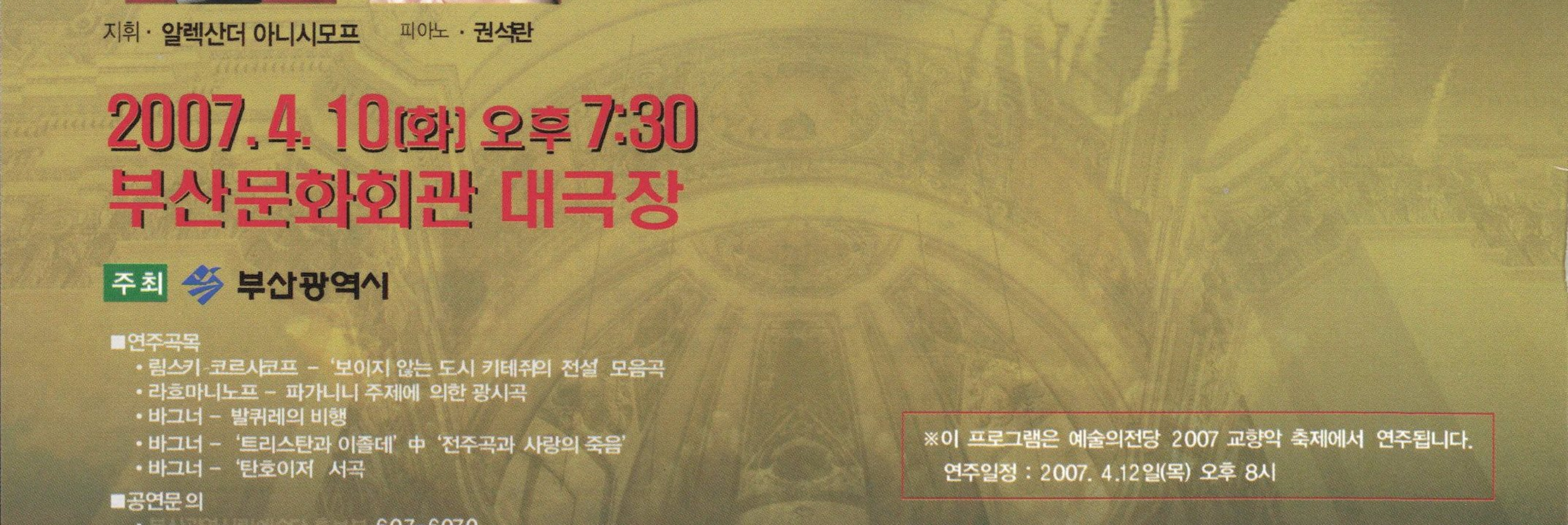
■연주곡목
- 림스키-코르사코프 – '보이지 않는 도시 키테쥬의 전설' 모음곡
-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 바그너 – 발퀴레의 비행
- 바그너 – '트리스탄과 이졸데' 中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 바그너 – '탄호이저' 서곡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ulture.busan.kr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

※이 프로그램은 예술의전당 2007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됩니다.
연주일정 : 2007. 4.12일(목) 오후 8시



셔틀버스 운행(무료) ■출발지 :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출발시간 : 월~금 19:00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서 면/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개 금/ 신개금LG CLS (신개금LG 단지 내 898-9109)
남포동/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하 단/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Ladies Phil Ensemble
창단연주회



Ladies Phil Ensemble
레이디스 필 앙상블
창단연주회

2007.4.28(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Tenor • **전병호**

Recorder • **양운정**

■연주곡목
- **ALBINONI**-합주 협주곡 B♭장조
- **SAMMARTINI**-리코더 협주곡 F장조
- 'West Side Story' 中 'America'
- 인어공주
- 민요 '밀양 아리랑'
- **TOSTI**-4월
- **TELEMANN**-돈키호테 모음곡 G장조 외 수곡

■공연문의 / 607-6103

■입장권 / 균일 10,000원

■협찬 / 아이즈 중앙건설 GS건설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서 면 /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개 금** / 신개금LG CLS (신개금LG 단지 내 898-9109)
남포동 /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 /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하 단** /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대연동 /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귀국독창회이후20년

2007 부산예술상 수상기념

테너장원상 스페셜리싸이틀



피아노 김진희

해설 오동주

4/3

Tenor WON SANG CHANG Special Recital

공동주최 가톨릭센터 PBC 부산평화방송

브니엘 예술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모여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


엄희정


박성아


김기연

브니엘 동문음악회

모차르트·쇼팽·브람스 모슈코프스키·피아졸라와 함께 하는 4월

Piano solo 송준영
Piano Duo 1st. 김기연 2nd. 박성아
Violin Solo 조나영
Piano Duo 1st. 김영숙 2nd. 송준영
Piano solo 황언지
Piano Trio Vn. 임채진 Vc. 윤지원 Pf. 엄희정

해설 김윤선


황언지


임채진


송준영


윤지원


김영숙


조나영

4/10

PBC

2007 - 4

피비씨 화요음악회

TUESDAY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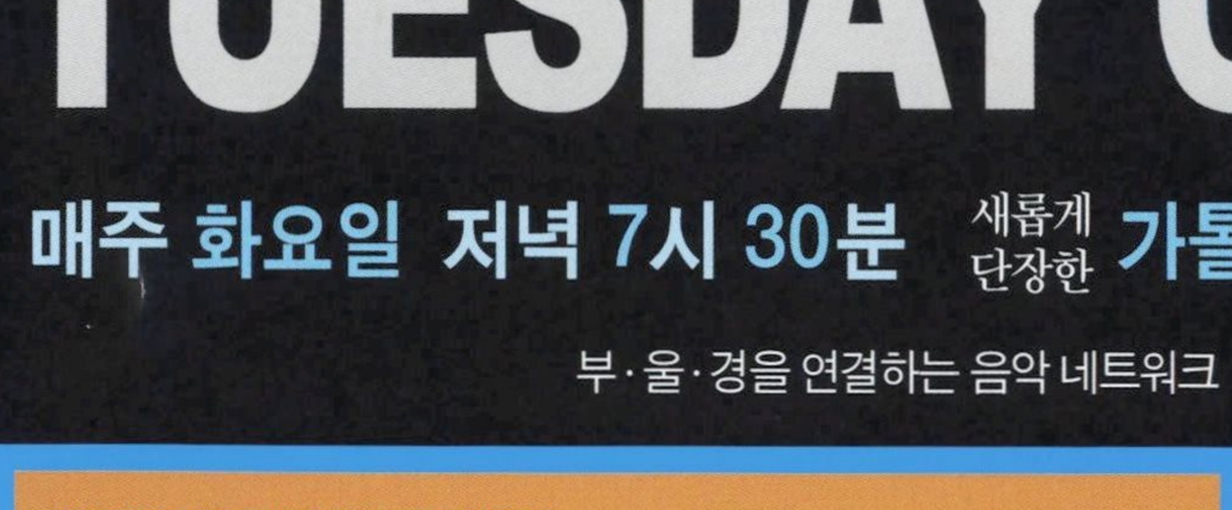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새롭게 단장한 가톨릭센터소극장 051-462-1870 www.bccenter.or.kr

부·울·경을 연결하는 음악 네트워크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음악회 음악감독 윤 성 원(경성대 외래교수)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특별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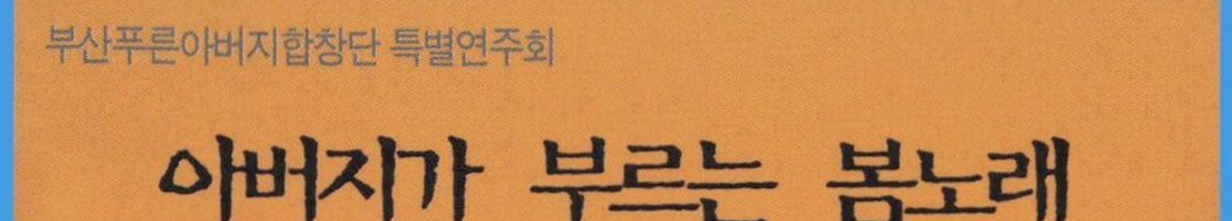
아버지가 부르는 봄노래

지휘 | 이성훈 피아노 | 전은경 아코디언 | 김종철 해설 | 우경준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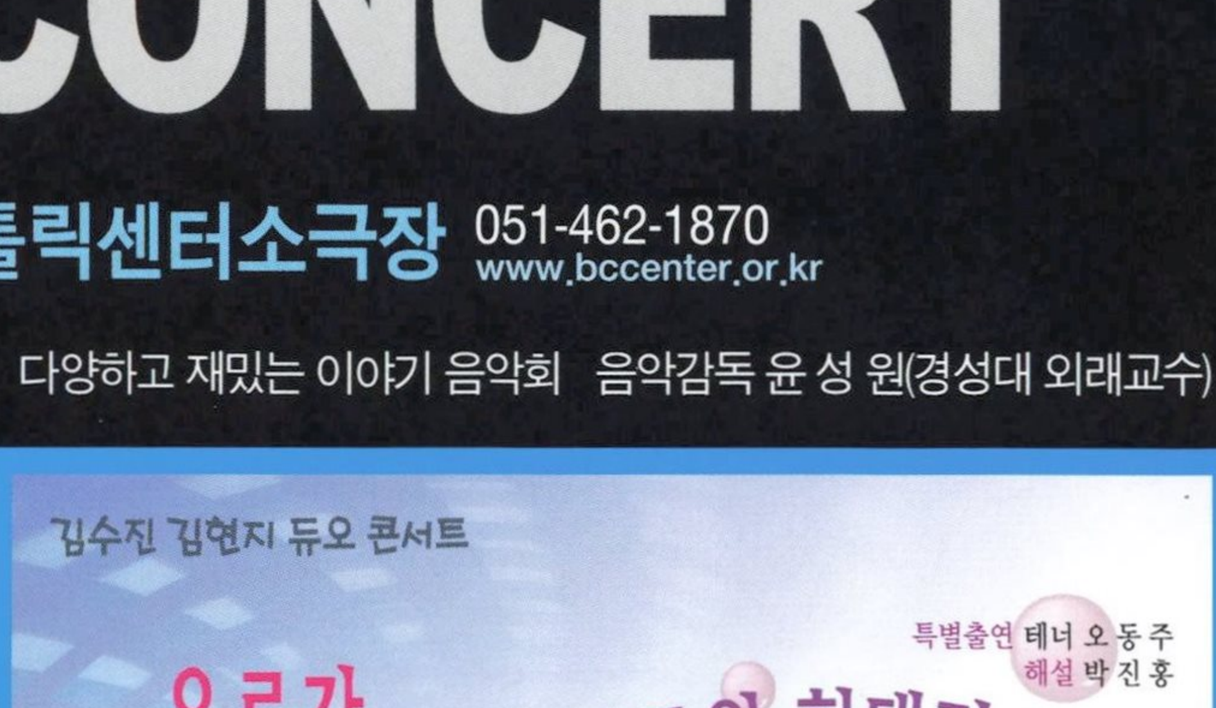
지휘 이성훈 피아노 전은경 [illegible]노 최옥수 소프라노 정인숙 바리톤 호홍진 피아노 박유미 아코디언 김종철



김수진 김현지 듀오 콘서트

특별출연 테너 오동주
해설 박진홍

오르간, 신비로움&다양한 색조의 현대적 해석



작곡가 김수진

오르가니스트 김현지

4/24

이 음악회는 라디오 FM(부산·경남 FM101.1, 울산 94.3㎒)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실황녹음 방송됩니다. 음악회 녹음은 클래식음악 녹음전문기업 Bird Classic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www.birdclassic.co.kr



반역인가, 재창조인가?

세계명작뒤집기

2007 부산국제연극제 祝祭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http://www.bipaf.com

2007. 5. 5(토) ~ 15(화)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경성대학교 / 너른소극장 / 액터스소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 관 : BIPAF 부산국제연극제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경남 대표채널 KNN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경성대학교 KYUNGSUNG UNIVERSITY 부산예술대학 BUSAN ARTS COLLEGE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365 www.ticket365.co.kr 1588-2528

서면 : 동보서적 영광도서 / 남포동 : 남포문고 / 경성대 : 면학도서 / 동아대 : 향학서림 / 북구 : 대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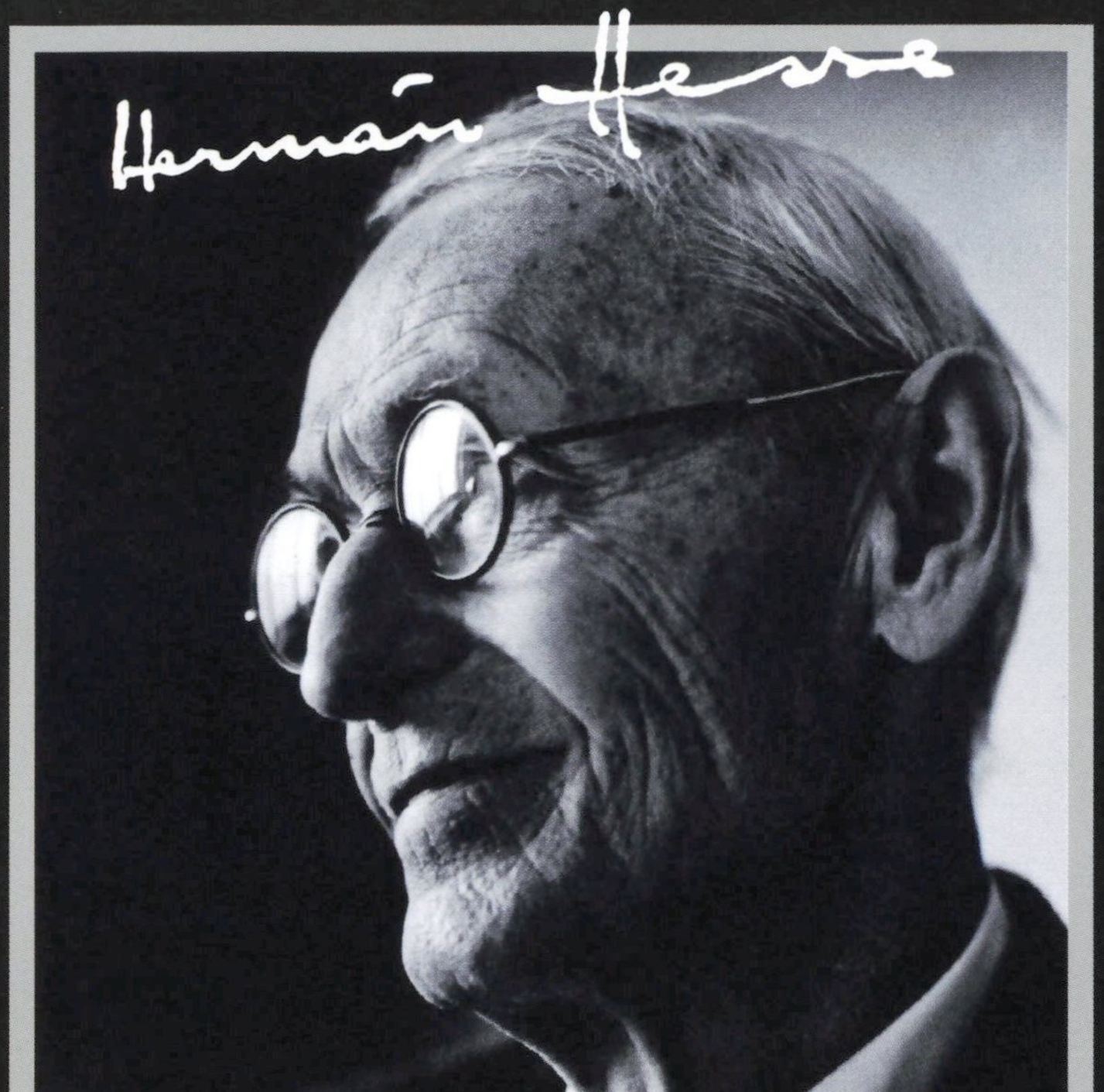
문의: 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 051) 627-2744

부산사랑티켓

헤르만 헤세 탄생 130주년 특별전

Hermann Hesse Exhibition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삭스-"



헤르만헤세 탄생130주년 특별전 기념 **전국 유·초·중·고 사생대회** 5.12(토) 오전 10시~오후 3시 부산시립박물관 야외광장

· 일시 : 2007.3.29(목)~2007.6.3(일)/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 **부산시립박물관**(남구 대연4동)

'화가의 눈을 가진 시인'

헤르만 헤세展

· 주최 : 부산MBC · 부산일보 · 학사모 · 부사모
· 주관 : (주)아모르FX · 부산오페라&뮤지컬 · (사)부산미술교육협의회
· 후원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예총지회 · 부산독일문화원 · 부산미술학원총연합회 · EBS 교육사업단
· 특별협찬 : 부산은행 · Mercedes-Benz · 현대백화점 · 웅진씽크빅
· 협찬 : 세웅종합병원 · 본 메디케어 여성병원 · 오뜨넷 · 오성로타리클럽 · 조명례콜렉션 · 부산경남경마공원

전시문의 : 1588-4634 · 관람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추후 연장가능) · 입장료 : 일반 9,000원(단체 7,000원) / 학생 7,000원(단체 5,000원)

Contents

2007 · 04



30



37



46

08 **부산문화회관 4월 공연 일정**

12 **마음을 여는 글** | 마음을 비우는 공간 · 김성헌

14 **반갑습니다** |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오정환 회장

16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동무생각'과 '오빠생각' · 김상훈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오페라 '토스카'의 선율이 흐르는 로마 · 최이순

22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창랑한 물에 갓끈을 씻어내는 거문고
–탁영금(濯纓琴) · 강성일

24 **우리춤 산책** | 살풀이 춤 · 홍기태

26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지붕과 울타리
–김정호 〈지붕위에서〉 · 김형술

28 **연극속으로** | 연극과 공간 · 유상흘

30 **그곳에 가면** | 장생포 고래박물관

32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지방법원 영화동호회

34 **지금 준비중** | 레이디스 필 앙상블 창단

36 **이 사람** | 창단 20주년 맞은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장
테너 이은민

37 **공연화제** | 2007 부산국제연극제

40 **세계의 뮤지컬** | 오페라의 유령

42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46 **4월 프로그램 가이드**

64 **쉽게 듣는 클래식** | 소품의 세계6 · 곽근수

65 **새로 나온 음반**

66 **새로 나온 책**

67 **부산문화회관 소식**

6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3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263-4 하이웰 B/D B1층

■ 표지설명 : 세계가 인정하는 중견 첼리스트 정명화가 첼로 인생 51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순회연주회를 갖는다.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4 월 공연일정

전시실

제 4회 부산서예전람회-대 · 중전시실

4월 27일(금)~4월 30일(월)

문 의 한국서가협회 부산경남지회
(759-8858, 016-849-621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안내 : 11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sun	
2	mon	4인 3색 콘서트 20:00 6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부산문화(635-9081)
3	tue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5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으로 전하는 자연의 소리'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4	wed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25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찬(010-7315-7352)
5	thu	소프라노 배수진 독창회 19:30 10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배수진(501-3999, 019-501-3999)
6	fri	
7	sat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 1 16:00, 19:00 5만원 · 4만원/AN시티(1644-4484)
8	sun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 1 15:00, 18:00 5만원 · 4만원/AN시티(1644-4484)
9	mon	
10	tue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9회 정기연주회 게르만의 신화 '바그너 음악의 밤'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11	wed	
12	thu	
13	fri	
14	sat	온누리 오페라단 롯시니 오페라 '모세' 앵콜공연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온누리오페라단(517-6091, 011-839-1084)
15	sun	온누리 오페라단 롯시니 오페라 '모세' 앵콜공연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온누리오페라단(517-6091, 011-839-1084)
16	mon	온누리 오페라단 롯시니 오페라 '모세' 앵콜공연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온누리오페라단(517-6091, 011-839-1084)
17	tue	온누리 오페라단 롯시니 오페라 '모세' 앵콜공연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온누리오페라단(517-6091, 011-839-1084)
18	wed	
19	thu	정명화 첼로 리사이틀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공연기획 예성(582-2026)
20	fri	을숙도 교향악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이푸른 문화예술회(203-2627)
21	sat	(사)춤다솜무용단 창작무용 '하루' 16:00 5만원 · 2만원 · 1만원/(사)춤다솜무용단 사무국(02-468-6635, 011-9634-6401)
22	sun	(사)춤다솜무용단 창작무용 '하루' 16:00 5만원 · 2만원 · 1만원/(사)춤다솜무용단 사무국(02-468-6635, 011-9634-6401)
23	mon	부산성악아카데미 창립 20주년 특별연주회 '명작 오페라 갈라 대축제' 19:30 2만원 · 1만원/안성철(010-2400-5271)
24	tue	
25	wed	
26	thu	
27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28	sat	부산하모니합창단 제 4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장연수(610-1304, 016-593-1651)
29	sun	제 74회 부산, 영남 무용예술제 09:00 중앙무용문화연구원 정성철(246-2294)
30	mon	
5/1	tue	2007 숲속 발레 창작 무용극 '별' 13:00, 15:00,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김옥련(626-9486, 016-835-0831)

중극장 MEDIUM THEATER

1 sun 제 25회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극단 골목길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16:30 3만원 · 2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 mon

3 tue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에저또 '미자르' 19: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에저또(852-9161)

4 wed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에저또 '미자르' 16:30, 19: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에저또(852-9161)

5 thu

6 fri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신부, 나비 꿈꾸다' 19: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제작소 동녘(751-0858)

7 sat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신부, 나비 꿈꾸다' 16:30, 19: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제작소 동녘(751-0858)

8 sun

9 mon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액터스 '환화여, 환화여' 19:30
2만원 · 1만5천원/극단 액터스(611-3703)

10 tue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액터스 '환화여, 환화여' 16:30, 19:30 2만원 · 1만5천원/극단 액터스(611-3703)

11 wed

12 thu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 참가작 극단 맥 '광대유사(廣大遺事)' 19:30 2만원 · 1만5천원/극단 맥(625-2117)

13 fri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 참가작 극단 맥 '광대유사(廣大遺事)' 16:30, 19:30 2만원 · 1만5천원/극단 맥(625-2117)

14 sat

15 sun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바리데기' 15:00, 18:0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제작소 동녘(751-0858)

16 mon

17 tue 피아니스트 윤민화 독주회 19:30
초대/윤민화(731-7350, 010-6712-7352)

18 wed 효산 가야금 연주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김혜진(011-841-5180)

19 thu 조현선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0 fri 제 6회 한국피아노학회 부산, 경남 지부 연주회 19:30
초대/이태희(010-5299-7446)

21 sat 극단 서울 도깨비 가족극 '후크 선장과 피터팬' 14:00, 16:00
1만 2천원/극단 서울 도깨비(031-973-4608, 011-9718-4608)

22 sun 극단 서울 도깨비 가족극 '후크 선장과 피터팬' 14:00, 16:00
1만 2천원/극단 서울 도깨비(031-973-4608, 011-9718-4608)

23 mon 소프라노 김현숙 독창회 19:30
초대/김현숙(240-2820, 011-9532-2283)

24 tue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세대공감 Old & New '아카펠라'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25 wed

26 thu

27 fri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5회 정기연주회 '거장과의 만남 頌春之樂'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28 sat 레이디스 필 앙상블 창단 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레이디스 필 앙상블(607-6103)

29 sun

30 mon 소프라노 김양자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프리모아트매지먼트(622-5529, 016-861-6105)

5/1 tue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독일가곡연구회(240-2817)

소극장 SMALL THEATER

1 sun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자유바다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 14:00, 16:00 1만5천원 · 1만2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 mon

3 tue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누리에 '십년 후에' 19: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누리에(621-3573)

4 wed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누리에 '십년 후에' 19: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누리에(621-3573)

5 thu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누리에 '십년 후에' 19: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누리에(621-3573)

6 fri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누리에 '십년 후에' 19: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누리에(621-3573)

7 sat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누리에 '십년 후에' 19: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누리에(621-3573)

8 sun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누리에 '십년 후에' 16:30
2만원 ·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누리에(621-3573)

9 mon

10 tue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마임극단 세진 '빨간피터' 19:30
2만원 · 1만5천원/마임극단 세진(632-3995)

11 wed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마임극단 세진 '빨간피터' 19:30
2만원 · 1만5천원/마임극단 세진(632-3995)

12 thu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마임극단 세진 '빨간피터' 19:30
2만원 · 1만5천원/마임극단 세진(632-3995)

13 fri

14 sat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에저또 '친구' 18: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에저또(852-9161)

15 sun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 참가작 극단 에저또 '친구' 18:00
1만5천원 · 1만원/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에저또(852-9161)

16 mon

17 tue

18 wed

19 thu

20 fri

21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2 sun

23 mon 이동재 제 1회 전통춤판 19:00
초대/이동재(517-0470)

24 tue

25 wed

26 thu

27 fri

28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9 sun

30 mon

5/1 tue

: 부산시내 기타공연 ④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00)

1 sun

2 mon
월요영화 '신나는 동물농장' 14:00, 19:30 -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2007 부산연극제-극단 사계 '장미를 삼키다' 19:30 - 소극장 극단 사계(630-5200)

3 tue
애창곡의 향연 19:30 - 대극장 1만원 · 5천원/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2007 부산연극제-극단 사계 '장미를 삼키다' 16:30, 19:30 - 소극장

4 wed

5 thu
에릭 오비에 트럼펫 콘서트 20:00 - 대극장 로렐뮤직(02-6409-6882)
2007 부산연극제-극단 자유바다 '어머니' 19:30 - 소극장

6 fri
2007 부산연극제-극단 자유바다 '어머니' 16:30, 19:30 - 소극장
2만원 · 1만5천원/극단 자유바다(622-3572)

7 sat
뮤지컬 '지저스 지저스' 18:30 - 대극장
1만5천원 · 1만원/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017-870-8825)

8 sun
뮤지컬 '지저스 지저스' 18:30 - 대극장 바문사(017-870-8825)
2007 부산연극제-극단 하늘개인날 '13월' 19:30 - 소극장 하늘개인날(646-0326)

9 mon
월요영화 '좋지 아니한가' 14:00, 19:30 -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2007 부산연극제-극단 하늘개인날 '13월' 16:30, 19:30 - 소극장

10 tue

11 wed
2007 부산연극제-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삼매경' 19:30 - 소극장
2만원 · 1만5천원/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017-596-6345)

12 thu
2007 부산연극제-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삼매경' 16:30, 19:30 - 소극장
2만원 · 1만5천원/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017-596-6345)

13 fri

14 sat
뽀로로와 별나라 요정 11:00, 14:00, 16:00 - 대극장 SPA(760-1166)
2007 부산연극제-극연구집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19:30 - 소극장 시나위(554-5244)

15 sun
뽀로로와 별나라 요정 11:00, 14:00, 16:00 - 대극장 SPA(760-1166)
2007 부산연극제-극연구집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16:30, 19:30 - 소극장

16 mon
월요영화 '아버지의 깃발'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17 tue

18 wed

19 thu
정무연 무용단 제 6회 대공연 19:30 - 소극장
무료/정무연(891-8376)

20 fri

21 sat
뮤지컬 '동물원' 15:00, 19:00 - 대극장 나눔기획(1566-1085)
잠자는 숲속의 공주 11:00, 14:00, 16:00 - 소극장 플러스기획(080-071-1212)

22 sun
뮤지컬 '동물원' 15:00, 19:00 - 대극장 나눔기획(1566-1085)
잠자는 숲속의 공주 14:00, 16:00 - 소극장 플러스기획(080-071-1212)

23 mon
월요영화 '1번가의 기적'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24 tue
한낮의 休콘서트 11:00 -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연극 '아름다운 거리' 19:30 - 소극장 극단 전위무대(582-2026)

25 wed
연극 '아름다운 거리' 19:30 - 소극장
2만원 · 1만원 5천원/극단 전위무대(582-2026)

26 thu
매직쇼 피노키오 9:00, 11:00, 19:00 - 대극장 동방뮤지컬컴퍼니(02-712-3865)
연극 '아름다운 거리' 19:30 - 소극장 극단 전위무대(016-896-3309)

27 fri
매직쇼 피노키오 9:00, 11:00, 19:00 - 대극장 동방뮤지컬컴퍼니(02-712-3865)
연극 '아름다운 거리' 16:30, 19:30 - 소극장

28 sat
가족뮤지컬 '브레멘 두드리음악대' 13:00, 15:00, 17:00 -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심인뮤지컬컴퍼니(02-304-2690)

29 sun
가족뮤지컬 '브레멘 두드리음악대' 13:00, 15:00 - 소극장
균일 1만 5천원/심인뮤지컬컴퍼니(02-304-2690)

30 mon
월요영화 '그여자 작사 그남자 작곡'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5/1 tue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1 sun

2 mon
제 12회 한연회 연주회 19:30 - 대공연장
1만원 · 5천원/최미정(017-401-8846)

3 tue

4 wed
금정수요음악회 'H.O.O 앙상블 연주회'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5 thu

6 fri

7 sat
한국, 대만 불교문화교류의 밤 19:00 - 대공연장 안국선원(583-0999)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제일기획(557-4277)

8 sun
한국, 대만 불교문화교류의 밤 19:00 - 대공연장 안국선원(583-0999)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제일기획(557-4277)

9 mon

10 tue
소프라노 권경미 독창회 19:30 -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11 wed
금정수요음악회 '조용석 클라리넷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12 thu
이화영선 피아노 독주회 19:30 - 대공연장 이화영선(010-7257-4042)
박미정 바이올린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박미정(010-9329-8455)

13 fri
장형준 피아노 리사이틀 19:30 - 대공연장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대동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 공연장 김동우(017-551-5698)

14 sat

15 sun

16 mon
부산신포니에타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 대공연장
초대/김영희(011-9519-0448)

17 tue
피아니스트 허혜정 리사이틀 19:30 - 대공연장 허혜정(010-8893-7829)
부산음악사랑회 정기연주회 19:3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김성보(011-559-4919)

18 wed

19 thu
클라드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예솔기획(0505-700-9798)

20 fri
부산예고 동문음악회 19:30 - 대공연장 초대/예솔기획(0505-700-9798)
교사국악회 그루터기 정기연주회 19:30 - 소공연장 초대/김정주(017-569-5771)

21 sat

22 sun

23 mon
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19:30 - 대공연장
균일 1만원/김해옥(011-859-9822)

24 tue
비루트오조앙상블 & 뮤즈앙상블 합동연주회 19:30 - 대공연장 예솔기획(0505-700-9798)
제 7회 베이스 손욱 독창회 19:30 - 소공연장 초대/손욱(011-9520-4649)

25 wed
금정수요음악회 '봄바람에 실려오는 실내악의 향기'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26 thu
신애정 피아노 독주회 19:30 - 대공연장 초대/신애정(011-495-0647)
아르스콰르텟 정기연주회 19:30 - 소공연장 정희자(011-589-3111)

27 fri
아마빌레색소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 대공연장 박동범(010-7314-4148)
Little vocalists 19:30 - 소공연장 초대/이지혜(010-7755-6987)

28 sat

29 sun

30 mon
실내악으로의 초대 19:30 -소공연장
초대/김나영(010-9828-1196)

5/1 tue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4/2(월) 20:00	4인 3색 콘서트-박강성, 정태춘&박은옥, 김지현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10%	부산문화 (633-8990)
	4/7(토) 16:00, 19:00 4/8(일) 15:00, 18:00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1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AN시티 (1644-4484)
	5/12(토) 16:00, 19:30 5/13(일) 15:00, 18:30	뮤지컬 '2007 루나틱'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학생 20%)	AN시티 (1644-4484)
	5/18(금) 11:00	부산시민을 위한 웰빙콘서트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균일 15,000원	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시민회관 대극장	4/5(목) 20:00	에릭 오비에 트럼펫 콘서트	VIP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20%	로렐뮤직 (02-6409-6982)
	4/21(토) - 4/22(일) 15:00, 19:00	뮤지컬 '동물원'	VIP 55,000원 · R석 50,000원 S석 45,000원	10%	나눔기획 (1566-1085)
시민회관 소극장	4/24(화) - 4/26(목) 19:30 4/27(금) 16:30, 19:30	극단 전위무대 제 83회 정기공연 '아름다운 거리'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20%	극단 전위무대 (582-2026)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3/31토목) - 4/8(일) 평일 20:00, 주말 15:00, 19:00	연극 '아트'	VIP 35,000원 · R석 30,000원 S석 25,000원	10%	나눔기획 (1566-1085)
가마골소극장	4/6(금) - 5/6(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타리 332-7339)



마음을 열어주는 공간(空間)

김성헌 · 대안문화공간 비움 대표

'공간과 사람은 어떤 작용을 서로에게 하는가?' 라는 생각들이, 요즈음 내가 공간에 놓인 풍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Ⅰ.

'비움'을 인테리어 하신 김혜랑씨의 소개로 얼마 전 건축가이신 이추복 선생을 만나기 위해 중앙동 '신조형건축연구소'를 찾아갔다. 연구소는 남천동에서 지금의 위치로 십여 년 전에 이전하였다는데, 실내에는 영화 〈매트릭스 Matrix〉의 미장센을 지배하는 청록의 과감한 색채와 심플한 그리드(Grid)의 변형들이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다. 선생은 십여 년 전에 벌써 그러한 색감과 구조물들을 자신의 연구소에 실천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참으로 시대를 앞서는 탁월한 감각을 지닌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의 연구 공간 책상위에는 건물 평면도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요즘 주위에서는 찾기 힘든 둥근 석유난로가 실내의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화실에서 처음 그림 공부를 시작했던 내게는 너무도 낯익은 풍경이었고 익숙한 냄새였다. 당시에는 머리를 아프게 했던 석유냄새였지만 모처럼 맡는 내게는, 순간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고향 같은 정겨움으로 다가왔다. 도심과 앞서가는 건축가의 연구소라는 선입관이 시각과 촉각을 거쳐 여지없이 해체되는 순간이었다.

처음 뵙게 되는 선생의 인상도 공간처럼 너무나도 강렬하고 따스했다. 우리 주위에는 파격(破格)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런데 이추복 선생은 너무도 그 말이 잘 어울렸다. 선형적이고 유클리드적인 일상의 시공을 초월하여, 뒤틀어지는 만남을 유발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서는 느껴졌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려왔다… 그것은 사랑이기도 하다."

첫마디부터 울컥 뜨거운 것이 내 가슴에서 솟구쳤다.

"처음 만남이지만 오래전부터 만난 것 같다."

"밥 사줄게 반쯤 얼빠진 모습으로 찾아와도 된다."

"너무 많은 것을 담지만 말고 힘을 빼라."

그렇게 파격(破格)의 이추복 선생께서는,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연신 손빗으로 올리시면서 말학인 나에게 따뜻한 가르침을 주셨다.



대안문화공간 비움

Ⅱ.

요즘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부법이 새삼 화제다. 18년간의 강진 유배생활 동안 수백 권의 저술을 남기신 다산 선생의 공부법을 가만히 보면, 지금의 컴퓨터 폴더들처럼 계열별, 항목별 분류를 가지런히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18세기 조선 실학 기저의 지식 혁명을 가져온 계기가 된 것이었다. 서투른 채움보다는 때론 그 동안의 채움을 정리하고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때론 버리기도 하면서 비워가야, 정리가 되고 제대로 된 쓰임이 될 것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문화공간 '비움'에는 1주일에 4개의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영상학연구모임'과 '부산미학연구모임', '가톨릭대 인문학연구모임', 그리고 '대안포럼'이 그것이다. 모임의 멤버들은 '비움' 이라는 공간을 좋아(?)한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들어보면 공부모임 하는 책상 한 켠에 천장까지 서 있는 멀구슬나무의 위력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큰 가르침은 나무 밑에서 이루어진다는 평소의 지론을 실현한 것이었는데, 나무라는 매개가 '비움'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해체시키고 자유롭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자연은 본래부터 파격이고 비움이다' 라고 어느 이가 말하지 않았던가? 부처의 깨달음과 가르침도, 그리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나무라는 자연의 파격과 비움이 매개가 되지 않았던가?

Ⅲ.

이추복 선생과의 그 만남 이후 나는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평생공부(平生工夫)'라는 미명하에 서투른 채움에만 급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인데, 거칠게 채우고 담기에만 열심을 기울일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하고 비우는 연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또한 선생의, 시대를 초월하는 감각 밑바탕에는 당신의 공간처럼 따스함이 깔려있었다. 그랬었다. 시대를 앞서가는 공간디자인도 사람냄새가 나야 더한 생명을 갖게 된다. 마치 혈관에 따뜻한 피가 흘러야 사람취급 받듯 공간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2000여 년 전의 노자(老子)도 '없다(無)는 것은 곧 허(虛)이고, 그 것은 결국에는 쓰임(用)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동안의 내 모습은 제대로 된 비움이었던가 라는 반성을 해 본다. 채움만 급급한 모습이 아니라 비움이 있는 공간이고, 비움이 있는 성품이면 사람도 공간도 더할 바 없는 안성맞춤일 것이다.

부족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비움을 갖고, 마음을 열어 줄 누군가를 맞아야겠다.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신임회장

오정환 시인



"다른 도시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지난 6년 간의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부산민예총) 정기총회에서 강영환 회장에 이어 2대 회장으로 선출된 오정환 시인(60). 새롭게 출범한 2기 민예총의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2007년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8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오정환 회장은 30년 넘게 교단을 지키며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소설가로 활동하는 부인 김일지씨의 내조가 그의 활동에 많은 힘이 된다.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부산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을 맡아 봉사해온 오정환 회장은 민예총 회장 당선 후 문학 외 다른 장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사양을 하다 고민 끝에 어렵게 회장직을 수락했다. 앞으로 문학 외 다른 장르를 공부하며 부산민예총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오정환 회장이 앞으로 임기 동안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회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민예총이 자칫 예술적인 고뇌나 성찰 없이 이념만 내세우는 단체로 인식되기 쉽다는 생각에서 민예총 회원들이 예술인으로 본분에 충실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민예총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민예총의 정체성 확립과 예술적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재정적 기반이 약해 오정환 회장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민예총은 지자체 지원금이 예총에 비하면 형편없이 모자란다. 하지만 230여 명의 후원 회원들이 매달 1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어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CMS 후원 회원을 늘려 재정적 안정을 다지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금정산 생명 문화축전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인 '달빛걷기'는 도심의 야경을 즐기고 싶어하는 가족 참여자들이 많다.

부산민예총은 올해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어린이 희망 학교, 민족문화교류를 위한 솟대 세우기 사업 등 굵직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은 문화 예술이 결합된 시민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 도심의 야경을 즐기며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달빛 걷기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의 제일 인기프로그램으로 신청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에서는 시민후원회를 결성하는 '무텅이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무텅이'는 척박한 땅을 개간해 옥토로 만들어 농사 짓는 순 우리말 '무텅이'에서 유래된 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한 민예총이 시민들과 함께 금정산 생명문화 축전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시작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어린이 희망학교운동은 동북아시아 4개국 동포 어린이들이 부산에서 한민족의 교육과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결속력을 높이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조선족이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민족 문화교류를 위한 솟대 만들기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에 우리의 얼을 심기 위해 솟대를 세운데 이어 올해는 일본과 중국에 솟대를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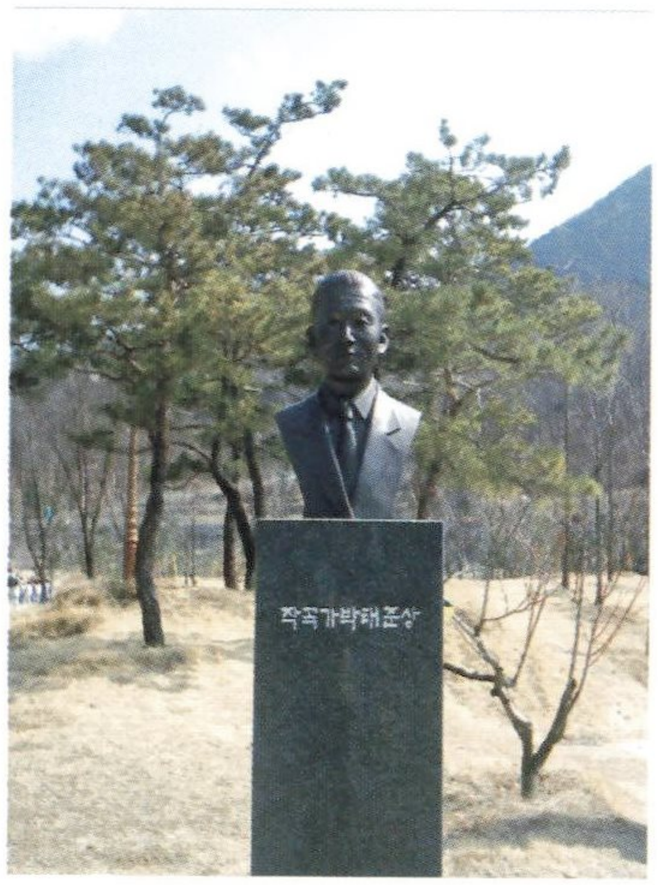
지난 3월 부산의 중진 시인들과 함께 공동 시집을 내기도 한 오정환 회장은 민예총 업무 틈틈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고희 기념 시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퇴직 후에는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색소폰을 배워볼 생각이다.

"부산민예총은 창립 취지문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서의 민족문화예술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민예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가는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560여명 민예총 회원, 시민들과 함께 가는 길이 즐겁고 유쾌한 길이 되리라 그는 확신한다.

'동무생각' 과 '오빠생각'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꽃샘추위가 몇 차례 오는 봄을 주춤거리게 했건만 "이제 완연 봄이로고"라고 할 만큼 매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복숭아, 배꽃 등이 다투어 피면서 반도의 산하(山河)를 아름답게 수(繡)놓고 있다.

봄이 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봄을 소재로한 봄노래를 중얼거리게 된다. 이광수 작사, 박태준 작곡의 '동무생각' 일명 '사우(思友)'가 빠질 리가 없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청라언덕위에 백합 필적에/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백합 같은 내동무야/네가 내게서 피어 날적엔/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더운백사장에 밀려들오는/저녁조수위에 흰새 뛸적에/나는 멀리 산천 바라보면서/너를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저녁조수와 같은 내 마음에/흰새 같은 내동무야/네가 내게서 뛰놀 때에는/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어느 때 부르나 언제 들어나 항상 밝은 동심을 일깨워 주는 노래가 '동무생각'이 아닌가 싶다.

이 노래는 작곡가 박태준선생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곡으로서 1922년에 작곡했다. 이 곡의 작곡 동기는 선생이 마산 창신(昌信)학교 교사로 계실 때 같은 학교에 계시던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선생과 자주 만나 경치좋은 해변가를 거닐면서 망국의 한을 달래기도 하고, 젊음의 격정을 잠재우기도 하면서 산책길에서 즉흥적으로 악상이 떠올라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곡은 가사가 미리 지어져서 곡이 붙은 것이 아니고 곡에 맞추어 가사를 붙이게 된 것이다. 가사중 청라언덕은 대구 계성학교 뒷산과 교정일대이고 백합(百合)은 경북여고의 교화를 생각하면서 작곡, 작사했다는 항간 구전(口傳)의 일설도 있다.

남해안의 향토색이 물신 풍기는 청신한 이 곡은 처음 마산에서 불리기 시작하여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다. 이 곡은 앞부분은 동요조의 가락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나 후반부의 변 박자에 이르러서는 감정을 한껏 격상시켜 의미 전달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 곡의 인연으로 작곡자인 박태준선생은 이은상선생의 고종사촌 여동생인 김봉렬(金鳳烈)씨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사랑은 노래를 싣고'란 애정가화(佳話)가 이루어진 셈이다.

박태준선생은 대구 남성동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계성학교를 거쳐 평양에 있는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창신학교 교사로 부임, 영어와 음악을 가르쳤다. 그 뒤 모교인 계성학교 음악교사로 초빙되어 8년간이나 근무했는데 계성학교 재직시절 동요곡 '오빠생각' '오뚜기' '맴맴' '꽃밭' '보슬비' 등 많은 곡을 지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는 대위법이나 화성학에 자신이 없었으므로 숭실학교의 말수베리교수께 1년간 사사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가 도미하게 된 것은 숭실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미국인 목사가 테네시주에 있는 터스칼럼대학의 스칼러십을 얻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후 선생은 뉴 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웨스트 민스터 음대에 진학(1935년), 합창음악을 전공하고 졸업후 대학원에 진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동요곡과 가곡의 창작에 전념한다. 1938년 신사참배 문제로 학교와 일제 총독부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어 숭실전문, 숭실중학, 그리고 숭의학교까지 모두 폐쇄되자 그는 다시 대구로 내려와 계성학교에서 영어와 음악을 가르쳤다.

그의 동요곡 중 가장 많이 애창되고 있는 것은 역시 '오빠생각'이 아닐까 한다.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뻐국 뻐국 뻐국새 숲에서 울제/우리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기럭 기럭 기러기 북에서 오고/귀뚤 귀뚤 귀뚤라미 슬피 울건만/서울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서울가신 오빠를 그리워하는 어린 소녀의 간절한 그리움이 넘치고 있다. 오빠는 어쩌면 시베리아나 만주 벌판으로 가서 광복군이 아니면 삽보대의 대원으로 일제와 싸운 독립지사가 아니었을까 싶다. 노랫말은 '고향의 봄'을 작사한 이원수선생님의 아내 최순애씨가 12살 때 지은 것이다. 이 노랫말을 지을 당시는(1925년) 우리겨레가 일제로부터 가장 심하게 억압과 수탈을 받던 때이다. 그 때의 시대상황으로 보아 깨어있는 젊은이들은 고향을 지키며 한가롭게 살 때가 아니어서 시베리아나 만주땅 간도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의 작품중에서 서정성이 가장 아름답게 표출된 것으로는 아마 윤복진 작사의 '물새 발자욱'을 꼽아야 할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시절 학예회 때 독창자로 뽑힌 적이 있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물새 발자욱'이였다.

"해저문 바닷가에 물새 발자욱/바닷물이 사아르르 어루만져요/고 발자욱 예쁘다 어루만져요//하이얀 모래밭에 물새발자욱/지나가는 실바람이 어루만져요 그발자욱 예쁘다 어루만져요." 이처럼 맑고 밝은 서정시와 그에 맞는 애잔한 곡은 그리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물새 발자욱'과 함께 독창곡으로 많이 불리던 '아! 가을인가'는 애상적 분위기가 전편에 감돌아 한때 연주용으로 크게 사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 동무'란 동요가 당시에 많이 애창되었는데 이 노래는 울산의 한 주막에서 박태준, 이은상, 윤복진, 세 사람이 즉석에서 작곡, 작사 한 노래라고 한다. 이중 윤복진은 김수향(金水鄕)이라는 필명을 갖고 있었는데 월북작가이기 때문에 그가 가사를 쓴 노래 '물새 발자국' '세 동무' 등은 한때 금지곡이 되었었다.

"오동나무 비바람에 스치는 이 밤/그리웁던 세 동무가 모였습니다/이 비가 그치고 날이 밝으면/ 세동무도 흩어져 떠나 갑니다//오늘 밤엔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마디마디 비에 젖어 눈물 납니다/ 문풍지 비바람에 스치는 이 밤/그리웁던 세 동무가 모였습니다."

가사나 곡조가 망국의 슬픔을 뜸뿍 담고 있다.

선생은 해방직후 오라토리오 합창단을 창설하여 지휘자로서 꾸준히 활동했으며, 27년간 헨델의 '메시아' 바하의 'B단조 미사' 등 수많은 합창곡을 국내에 소개했다. 1946년 경성여의전의 교수로 계시다가 연세대학으로 옮겨 1974년까지 근무했다. 연세대에 재직하는 동안 1955년엔 종교음악과를 창설, 음악과장으로, 1964년 음대로 승격되면서 초대학장이 되기도 했다. 그가 1929년에 간행한 '중중 때때중' 과 1931년에 간행한 '양양범법궁' 이란 두 동요집은 우리나라 동요집의 고전으로 매우 귀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곡과 합창지휘로 한 평생을 음악과 더불어 살아온 박태준선생은 가곡의 예술성을 노리기에 앞서 순수한 한국정서의 발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고 하겠다. 지금 막 가곡 '동무생각'이 들려 올 듯하다.

오페라 토스카의 선율이 흐르는 로마

최이순 · 이탈리아 통신원

얼었던 땅이 녹으며 열린 틈새로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호흡을 시작하고, 뿌리는 힘차게 물을 빨아들여 죽어있던 나무 가지에 생명을 공급하면 지난해 죽어있던 가지가 다시 살아나 초록색 생명을 세상에 나타낸다. 생명을 잉태한 자연은 3월이면 어김없이 다시 살아나고, 겨우내 좁은 교실에서 웅크리고 지내던 학생들은 박물관과 미술관, 유적지를 찾아와 로마는 잃었던 활기를 되찾는다.

생명과 활기를 찾아주는 3월이 전쟁의 신 마르스(Mars)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호기심을 발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겨우내 잠자던 생명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처럼 3월이면 쉬었던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1796년 군신의 계절에 24살의 젊은 나이로 장군이 된 한 청년이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이 되어 겨우내 잠자던 병사들을 깨워 원정길에 오르게 된다.



기원전 27년에 건축된 판테온 신전은 로마의 황제들이 원정을 떠나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는 연병장이 있었던 곳으로 전쟁의 신 마르스 광장이라 불려졌다.

로마에 살고 있는 필자는 참으로 행운인 것 같다. 3000년의 고대역사와 중세, 그리고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영원한 도시 로마에 살고 있으니 말이다. 며칠 전 관광객들의 지갑을 훔치는 소매치기가 많기로 유명한 64번 시내버스를 타고 나보나(Navona)광장 근처 서점에 들렀다가 커피 향에 이끌려 판테온(Pantheon)신전까지 오게 되었다. 이곳에 따짜 도로(Tazza d'oro)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멀리서부터 커피 향기가 주변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그곳에서 에스프레소 커피 향을 입안에 머금고 기원전 27년에 건축

된 판테온 신전을 바라보며 시간을 거슬러 가는 환상에 빠져든다.

기원전 이곳은 로마의 황제들이 원정을 떠나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는 연병장이 있었던 곳으로 전쟁의 신 마르스 광장이라 불렀던 곳이었다. 전쟁의 계절에 마르스 광장에 내가 있다는 것이 우연이라기보다는 3월의 햇살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3월 로마의 햇살은 이미 여름의 강열함을 가지고 있어, 한참을 생각에 잠긴 채 판테온을 바라보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다. 버스를 타기위해 커피 향을 뒤로하고 걷다가 오페라 토스카 1막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산 안드레아 델라 발레(Chiesa S'Andrea della Valle)성당이 시야에 들어왔다.

3월과 전쟁의 신 마르스,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테(Napoleone Bonaparte)의 이탈리아 원정과 공화정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떠올리며 성당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 예배가 진행 중이었기에 조용히 앉아 교회의 화려한 아름다움과 찬양의 울림을 감상하고 있었다. 200년 전 카바라도시와 토스카 역시 필자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곳에 있었으리라 생각하니 기분이 묘해진다.



오페라 '토스카' 1막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산 안드레아 델라 발레 성당.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을 이끌고 1797년 로마를 함락하고 다음해에는 공화국으로 선포함으로서 교황 피우스 6세(Pio VI)는 망명을 떠나야 했다. 나폴리 왕 페르디난도 4세(Ferdinando IV)의 왕비 마리아 카롤리나(Maria Carolina)는 무능한 왕을 제치고 실권을 잡은 뒤에 프랑스인들이 막내 동생인 왕비 마리 앙뜨와네트(Marie Antoinette)를 단두대에 처형한 보복으로 친프랑스파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1798년 프랑스군이 나폴리를 점령해 이를 파르테노페 공화국으로 선포하자 마리아 카롤리나와 페르디난도는 피신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대부분을 점령한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점령해 인도로 가는 길을 막음으로써 영국의 재원을 고갈시킬 목적으로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나일강 전투에서 넬슨의 함대에 의해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 나폴레옹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갇혀버리고 만다. 1799년 봄 이탈리아에서도 프랑스군이 패배해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포기해야 했는데, 1799년 6월 나폴리에 공화국이 무너진 뒤 나폴리로 돌아온 마리아 카롤리나는 평화조약을 어기면서 공화국 지지자들을 대량학살을 하게 된다.

프랑스의 패배가 이어지자 본국 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고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기회로 알아차린 나폴레옹은 공화국을 구하면서 권력도 잡으려는 생각에서 부하 몇 명만 데리고 1799년 8월 이집트를 떠나 10월 파리에 도착했고 그해 11월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들을 사퇴시키고 정권을 독점했다. 스위스 연방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아차린 나폴레옹은 1799년~1800년의 겨울과 봄에 군대를 개편하고 이탈리아 제노바를 포위하고 있던 오스트리아군을 기습했다. 1800년 6월 14일에 벌어진 마렝고(Marengo)전투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프랑스는 포강 유역을 장악했고 12월에는 또 다른 프랑스 부대가 독일의 오스트리아군과 싸워 이기게 된다.

이같이 격변하는 18세기말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리앙 사르두(Vittorien Sardou)는 희곡 '라 토스카(La Tosca)'를 쓰게 되고, 빅토리앙 사르두의 희곡을 푸치니(G. Puccini)는 루이지 일리카(Luigi Illica)와 쥬세페 쟈코사(Giuseppe Giacosa)의 압축된 대본으로 오페라를 만들게 되는데, 원작에 비하여 오페라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얽히는 내용이 많이 사라졌지만 원작자인 빅토리앙 사르두가 감탄할 만큼 사랑의 비극은 훨씬 더 극적으로 처리되었고 극의 짜임새와 음악이 절묘하게 맞물렸다.



오페라 '토스카' 3막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천사의 성.

토스카에는 역사적 배경과 결부된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다. 1막에서 보나파르테의 시대가 끝났다고 기뻐하며 성당지기가 등장하는데, 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보나파르테의 패전 소식이 그에게 희소식이 되는 이유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교황권이 종식되었고 피우스 6세 교황은 망명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패전은 곧 로마에 교황권의 부활과 더불어 종교적 안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나폴레옹이 승리하게 되고 2막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카바라

도시는 기뻐서 승리(Vittora! Vittoria!)를 외치게 된다. 오페라 토스카의 시간적 배경은 마렝고(Marengo)전투소식이 전해진 1800년 6월 17일 낮부터 카바라도시가 총살당하고 토스카가 투신자살하는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밤 사이에 로마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예배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혹시나 카바라도시가 그린 막달라 마리아의 성화가 어느 한 곳에 그려져 있지는 않을까 살펴보았지만 오페라에 등장하는 그들의 아리아와 이중창이 귓속에 맴돌기만 할 뿐이었다. 성당 밖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나왔지만 성당 안에서 너무 시간을 보냈는지 벌써 어두워져 버렸다. 슬슬 허기가 차오지만 내친김에 2막에 등장하는 파르네제(Farnese)궁과 3막의 천사의 성(Castel S.Angelo)까지 걷기로 작정했다.

3월의 밤공기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에 대조되어 제법 쌀쌀하게 느껴진다. 밤공기를 마시며 10분정도 걸으니 테베레(Tevere)강 건너편으로 천사의 성이 눈에 들어왔다. 천사의 성 꼭대기 미카엘 천사의 청동상 위로 초저녁에 홀로 빛을 반사시키는 금성이 보인다. 여명이 떠오르며 다른 별들이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홀로 빛을 발하는 금성을 바라보며 죽음을 앞둔 카바라도시는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오페라 '토스카' 악보

E lucevan le stelle…

ed olezzava la terra…

stridea l'uscio dell'orto…

e un passo sfiorava la rena…

Entrava ella, fragrante,

mi cadea fra le braccia…

Oh! dolci baci, o languide carezze,

mentr'io fremente

le belle forme disciogliea dai veli!

Svanì per sempre il sogno mio d'amore…

L'ora è fuggita…

E muoio disperato!

E non ho amato mai tanto la vita!…

이탈리아의 생생한 문화현장 소식을 전해 줄 이탈리아 통신원 최이순은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로마 국립미술원에서 무대디자인을 공부했다. M Giuseppe Giuliano에게 오페라 연출을 사사한 최이순은 로마에서 오페라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다.

창랑한 물에 갓끈을 씻어내는 거문고-탁영금(濯纓琴)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학교 강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문고로 '탁영금'이 있다(1490). 탁영금은 조선전기 때의 학자 김일손(1464-1498)선생이 사용하던 거문고로 1988년 보물 제 957호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대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악기이다. 옛 선비들의 애완품으로, 악기로써는 유일하게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악기인데, 거문고의 중앙 부분에 '탁영금(濯纓琴)'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 '탁영금'이라 부른다.


거문고의 위에 탁영금이란 글이 선명하다


탁영금 뒷면

탁영은 연산군 때 무오사화로 목숨을 잃은 사림파의 한 학자인 김일손 선생의 호로 씻을 탁 갓끈 영, 즉 갓끈을 씻는다는 의미이다. 왜 갓끈을 씻는다는 것일까?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문장의 모범으로 널리 익혀온 책으로 《고문진보》가 있다. 이 후집에 〈어부사〉가 전한다. 중국 초나라의 굴원이란 사람이 간신배들의 참소로 억울하게 추방을 당하여 초췌한 모습으로 강가에 나타났는데, 마침 강가에 있던 어부가 굴원의 사정을 듣고 돗대를 올리며 이런 말을 남긴다.

창랑지수 청혜 가이 탁오영
滄浪之水 淸兮어든 可以 濯吾纓이요(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지수 탁혜 가이 탁오족
滄浪之水 濁兮어든 可以 濯吾足이요(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을 것이로다)


씻을 탁 갓끈 영, 즉 갓끈을 씻는다는 의미의 탁영금

세상이 맑을 때에는 갓끈을 씻고 공인이 되어 사회에 기여할 것이요, 세상이 혼탁할 때에는 자기의 발을 씻고 세속을 떠나라는 의미이다. 성종 때의 문화 부흥기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자 했던 탁영 김일손 선생.



탁영 김일손선생이 머물던 함양의 청계사원

그러나 그는 연산군 4년 유자광과 이극돈의 모함으로 무오사화에 능지처참의 형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탁영 선생의 삶을 알아보고자 동문수학하는 호형과 함께 그가 한동안 머물렀던 함양의 청계서원을 찾았다. 함양 톨게이트에서 진주방면의 국도로 수동에 이르러 거창 쪽으로 3Km 정도 향하니 정여창 선생(1450-1504)의 남계서원이 있고 그 왼쪽에 청계서원이 있었다.

"이 땅에 역사의 준엄함과 사관(史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 탁영 김일손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옛 청계정사에 이 서원을 건립하였다"고 중수비문에 적혀 있었다. 문을 지나 대청을 바라보니 애락당(愛樂堂)이란 현판이 눈에 띄었다. 그 현판 앞에 서니 역사의 뒤안길에서 자연을 벗 삼아 탁영금으로 세속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스쳤다.

탁영 김일손, 그는 원래 경북 청도 사람이다. 그러나 당시의 대학자 정여창 선생을 사모하기에 정여창의 집이 보이는 지금 이 자리에 청계정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당시 훈구파의 득세로 관직을 떠나 이곳 청계정사에서 탁영금을 벗 삼아 사상과 학문을 연마하며, 많은 유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옛말에 "좌(左)안동 우(右)함양"이란 말이 있다. 지금의 서울, 한양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 안동이 있다면, 오른쪽에 함양이 있다는 말이다. 수많은 천거에도 공직에 나서길 꺼렸던 정여창, 그와 함께 탁영은 함양을 경북 안동 못지않은 뼈대 있는 고장, 우 함양의 기틀을 잡았기에 생긴 말이다.

훗날 퇴계선생은 단양군수로 재직하면서 바위에 친필로 '탁오대'란 글을 남겼다. '자기를 씻는다' 라는 의미의 탁오(濯汚), 이는 탁오영의 준말로 탁영 김일손으로 시작되니 그의 혼이 이렇게 이어지는가 보다.

살풀이 춤

홍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거의 없다. 멋진 곳에서 잠시 삶의 의미로 숨 고르고 싶을 때 우리는 생각만 떠 올릴 뿐, 복잡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것도 최고의 쉼터가 되리라.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은 우리 춤의 정서를 대표하는 살풀이춤을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이 살풀이는 춤 분야에서 주목받고 가장 일반 관객들이 잘 알고 있는 춤이다.

우리나라의 춤은 종교의식에서 발달된 춤들이 많다. 살풀이춤도 호남무속음악인 시나위에서 파생되어 1930년대 이후부터 무대무용으로 행하여졌으며 오늘날 한국 춤의 고전작품의 하나로 정착되어 예술적 차원에서 승화된 우리춤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무의식에서 행해진 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거나 개인적이고 창작적인 무용의 길로 터놓은 것은 결국 무당을 주축으로 하는 광대나 재인들이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몰락으로 관계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궁중 여기들이 기녀 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歌),

무(舞), 악(樂)으로 그들의 생업을 삼게 되었다.

한편 무사의 금지령에 의해 무당이 사찰과 관기로 분화되면서 무무가 기반으로 이입된 것이 발달되어졌다. 이 시기에 기방에서는 굿거리 춤, 수건 춤, 입춤 등으로 불리어지면서 상류계층의 귀족 취향적인 세련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는 춤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 무대무용의 살풀이춤으로 까지 승화된 것이다.

살풀이춤의 명칭이 기록에 가장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36년 제 1회 한성준 무용발표회 때라고 한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살풀이의 본산인 호남지역을 위시하여 경향 각지에서 수건춤, 즉흥무 등의 명칭으로 추어졌으며, 단지 무대무용으로 행해졌던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살풀이춤은 한국 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를 고루 갖춘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한 춤으로 정립되었다. 춤의 성격은 차분하면서도 끈끈하고 섬세하면서 애절한 무태로써 정, 중, 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관객으로 하여금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음악은 남도 무악적인 시나위 곡으로, 이 시나위는 후대에 가, 무, 악으로 세분되었고 가(歌)는 판소리, 무(舞)는 살풀이 춤, 악(樂)은 산조로 각각 발전된 상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살풀이춤은 춤꾼이 순간적 감정에 따라 춤사위를 구사할 수 있는 개인적 감정이 철저하게 허용되는 다양성이 이 춤의 특징이라 하겠다.

살풀이춤은 한영숙류와 경기도 지방에서 전승된 김숙자류 춤과 전라도 지방에서 전승된 이매방류의 춤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로 지정되었는데 한영숙류의 춤은 우아미와 절제미를 가미시켜 춤사위마다 매우 여성스러우며 아름다운 춤으로 전해지고 있고, 김숙자류의 춤은 긴 수건을 가지고 추며 섬세하고 고운 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매방류의 춤은 구수하면서 화려한 멋을 가지고 있어서 대조적인 멋을 보인다.

지붕과 울타리

– 김정호 〈지붕 위에서〉 –

김형술 · 시인

인간은 집동물이다. 집에서 태어나 집에서 생을 마감한다. 인간이 만들고 걷는 세상의 모든 길들 또한 집에서 태어나 세상천지로 뻗어 나간다. 때로 어떤 길은 숲 속의 절벽 위에서 혹은 바닷가 낭떠러지 앞에서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 길의 뿌리 또한 인간의 집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죽은 길, 사라진 길은 아니다. 인간의 집을 떠났던 모든 길들은 기나긴 시간과 여정을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집은 인간의 모태이고 삶의 근간이다. 벽과 지붕과 문으로 이루어진 집. 지상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만큼 완강하게 견고한 집.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집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일상을 영위할 보금자리를 갖기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친다. 그렇게 삶을 바친 곳에서 따뜻한 불빛과 밝은 웃음소리와 향기로운 밥내음이 번져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게 집을 사랑하고 집착한 결과 집은 커다란 권력을 가지게 되어 버린다. 한 채의 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집은 이제 인간의 주인이 되어 인간의 삶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다. 고단한 노동을 위로받는 휴식과 평화의 공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울타리로서의 집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간의 삶을 옭죄는 하나의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린 집. 이제 집이란 끊임없이 집에 깃들기를 원하는 집동물인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지 오래다.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높으며 더 호화로운 주인을 섬기기 위해 혼신의 노동을 바친다. 밤이면 휘황하게 불밝힌 눈을 부릅 뜬 커다란 무덤같은 집 속에서 조그맣게 웅크려 잠들기 위해서.

화가 김정호의 그림 속엔 자주 집들이 등장한다. 겨우 벽과 지붕을 가졌을 뿐인 소박한 집들이 화면 한구석에 기호처럼 자리잡고 있거나 인물 뒤편의 먼 배경이 되거나 겨우 집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집들은 구체적인 삶이 영위되는 일상의 집들이 아니라 화가의 관념 속에 자리한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집들이다. 이 집들은 같은 연배의 화가인 오순환의 그림 속 집들과는 확연한 구분을 갖는다. 오순환의 그림 속에서 역시 간략하게 묘사된 집들은 인물들과 거의 등배인데다 또한 일상의 자잘한 희로애락의 근원이 집과 가족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그려진다. 그럴 때 오순환의 집들은 가족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집이다. 하지만 김정호의 집들은 철저하게 풍경과 인물의 배경으로만 존재한다. 한 마리의 양을 지붕 위에 앉히기 위한 무대이거나(양떼구름) 인물의 등 뒤



김정호 作 〈지붕 위에서. 90.9 x 72.7cm. 캔바스 위 아크릴릭〉

원경에 배치된 하나의 사소한 상징(양평을 떠나며)에 불과하다. 화가 김정호에게 집은 예술가의 자유로운 의지를 억누르는 많은 체제들 중 하나이거나 자신의 영혼을 가두는 무덤인 것처럼 보인다. 이 그림 〈지붕 위에서〉는 세상의 모든 진부한 것들, 일상적이고 관습적이며 지리멸렬하기 그지없는 세계와 체제들을 가볍게 뛰어넘고자 하는 한 예술가의 욕망에 관한 풍경으로 읽힌다. 집 속의 조그맣게 뚫린 창문 너머 완고한 체제 속에 갇혀있는 세상만을 바라보기엔 예술가의 영혼, 예술가의 시각과 관점은 가늠할 수 없을만큼 크고 넓고 자유롭다. 그들은 기꺼이 문을 열고 집을 나와 지붕 위에 서고자 한다. 그런 그들의 욕망은 생래적인 것이어서 누구도 제지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집들의 지붕은 인간이 걷고 춤추고 노래하기엔 지나치게 위험하다. 어느 순간 미끄러져 지붕 아래로 추락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별 두려움 없이 지붕 위를 걷고자 한다.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아무 거리낌없이 제 의지로 허공에 자신만의 길을 내는 구름과 동격이 되며 지붕 위에 그림자를 드리운 키 큰 나무들과 같은 영혼의 높이를 가지게 된다. 무릇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이란 지붕 위를 걷는 자들이다. 상승과 추락에 관한 욕망과 두려움은 태생적으로 그들의 것이자 또한 그들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상반된 모순을 끌고 끊임없이 집을 발 아래 두거나 떠나고 싶어하는 자들이기도 할 것이다.

연극과 공간

유상흘 · 연극배우



2007 부산국제연극제 작품으로 선정된 극단 앙상블 '익스트림 로미오와 줄리엣'은 연극의 공간을 잘 활용,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날이 희뿌옇다. 한겨울 대지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 따뜻한 햇살에 수증기 일듯 뿌옇더니 봄비도 나린다. 어린 날, 아침햇살에 잠이 깨어 방문을 밀치면 눈앞에 펼쳐지던 김해평야의 뿌우연 아지랑이가 떠오른다.

달리기를 잘했던 유년시절 질주하던 저 앞에 문득 서려 있던 노오란 현기증도 있었다. 아이들, 소풍날 출발하던 장소에 모인, 들뜬 아우성 속에 너무도 또렷이 내 이름을 불러주던 하이얀 소녀 정. 서. 운. 갇혀 있다는 마음에 자유를 탐닉하듯 공을 좇아 운동장을 내달리면 육체가 절로 미소를 짓던 청소년 시절. 뚜렷하지 않은 내일과 현실적 한계에 휘청거리던 80년대 청춘의 흐린 술집 조명등. 그러다 나무 마루판 위에 따뜻이 조명이 떨어지는 무대를 만났다. 처음 첫 무대의 순간을 기억한다. 첫 대사를 위해 무대에 나가 대기하고 있는데 바야흐로 막이 열리는 것이었다. 한 겹 저 선 너머로 한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연극을 시작하고 한 두어 번 한두 해 연극을 떠나 산 적이 있다. 그럴 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축구를 했다. 확실한 목표, 선명한 상대, 절정을 향한 동물적인 열정, 이심전심의 공조, 끝난 뒤 좀더 유연할 수 있는 현실 적응력, 뭐 그런 연극 행위와 유사한 해소를 축구는 나에게 가져다주었다. 사실 수준 높은 축구경기는 수준 높은 공연이 그러하듯 거칠지 않은 유쾌한 유희가 있다. 다져진 내외(內外) 근력과 직관으로 관념의 자아공간과 현상의 외부공간을 함께 인지(認知)하여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운동성. 의지와 근력과 운이 휘몰아치는 한판 유희의 공간이 펼쳐지는 것이다. 직관이라는 것이 자기 인식과 운동성, 타자(他者)와 공간 상

황 인식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에 있어서 무대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만일에 자기인식에 치우치거나 현상만을 좇다가는 쉬 지치게되고 줄 곳을 쳐다봐야 패스를 하는, 혹은 그 때를 놓쳐 종내엔 무리한 동작을 취하게 되거나 무책임하고 공허한 공중볼이 난무하게 되는 동네축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연극의 대중화를 위해 '찾아가는 연극'이란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극장에서 관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원이나 양로원, 병원, 재활원 등을 찾아가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차디찬 늦가을 비오던 공원에서 우산을 든 산보객들을 앞에 두고 칼을 맞아 철퍼덕 바닥에 쓰러져 부볐던 대지의 감촉을 내 뺨은 기억한다. 어디를 가던 그 의상 그 소품, 그 대사로 그 기운의 상대역과 어우러지다 보면 극장과 별반 다름없이 흥이 났다. 때론 현실적 환경들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감흥들은 극의 몰입에 활력을 주기도 했다.

여러해 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김금화 만신의 굿 공연이 있었다. 주변 악사와 소리꾼 중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구음(口音) 한자리를 척 부르기 시작했다. 그 한마디에 공간은 떠다놓은 물 컵에 잉크 한 방울 번지듯 한 세계가 펼쳐져 가고 있었다. 그렇겠지 뭐, 공간이 공간 그 자체만으로야 뭔 공간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이 있다면 어디든 거기가 또 정붙이고 살아갈 수 있듯이 무대공간 또한 그와 같지 않겠는가. 공연이 끝나면 무대는 원래의 크기로 돌아와 있다. 부처님은 아홉 공간이 있다 했던가 ! 가끔,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고인을 문득 문득 불러본다. " …어디에 있어요? "

공항엘 가다보면 이륙하는 점보 제트기를 바라보며 인류의 업적에 경탄을 금치 못한 채 발길을 멈추게된다. 명멸(明滅)하는 존재의 허망한 반복 속에 굴하지 않고 이어온 인류의 욕망과 노력은 수많은 문명(文明)을 낳았다. 게다가 자기 세대에 끝나지 않고 대물려 진보하는 업적이라니… . 위대한 존재의 향연이 아닐 수 없다.

방음효과나 경제적 여건 등등의 이유로 연극인들은 지하 소극장이나 지하 연습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거기서 삶이란 걸 얘기한다. 음악가가 음악을 듣는것이 미술가가 그림이나 조각을 보는 것이 휴식이 아니듯이 우리는 삶을 공연하고 연습한 뒤 휴식할 수 없는 삶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낯선 이 별에 와 존재가 안고있는 한계의 극점을 어루고 달래어 부등켜안고 내일 다시 이 자리에 모이고 있음은 그 또한 참으로 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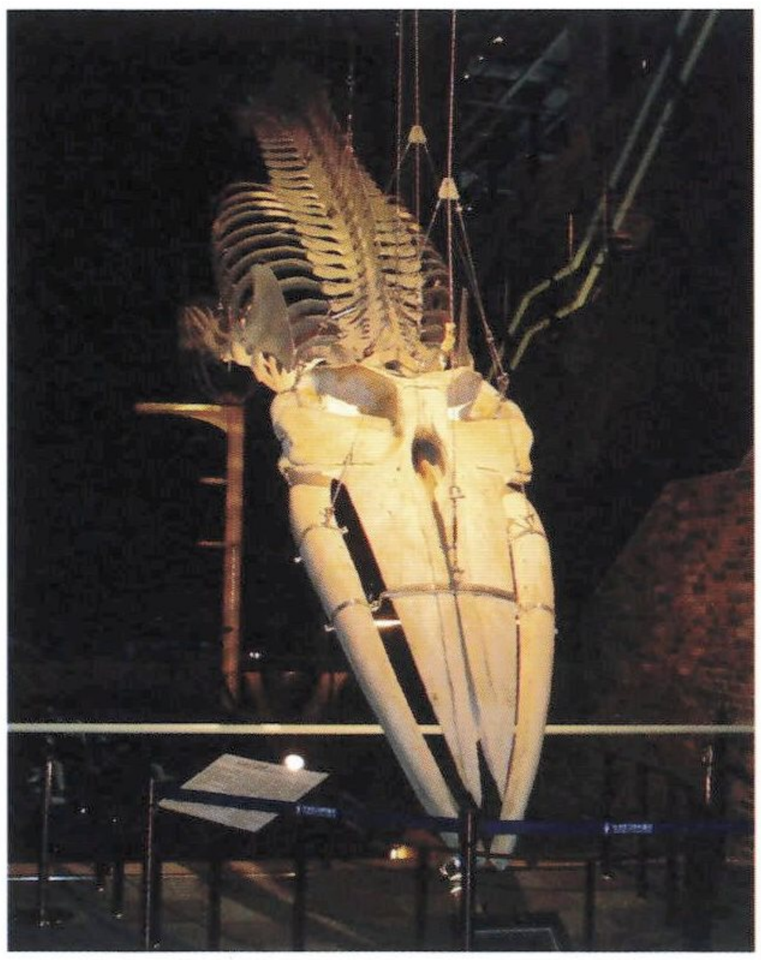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고래 전문박물관

장생포 고래박물관

하얀 물줄기를 뿜어대며 넓은 바다를 여유롭게 유영하는 고래. 예전부터 꿈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고래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한 때 멸종위기에 처하면서부터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신화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자연다큐멘터리나 영화, 노래가사에서나 볼 수 있는 고래, 그 고래를 실제로 만나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나라 유일의 고래 전문박물관인 장생포 고래박물관으로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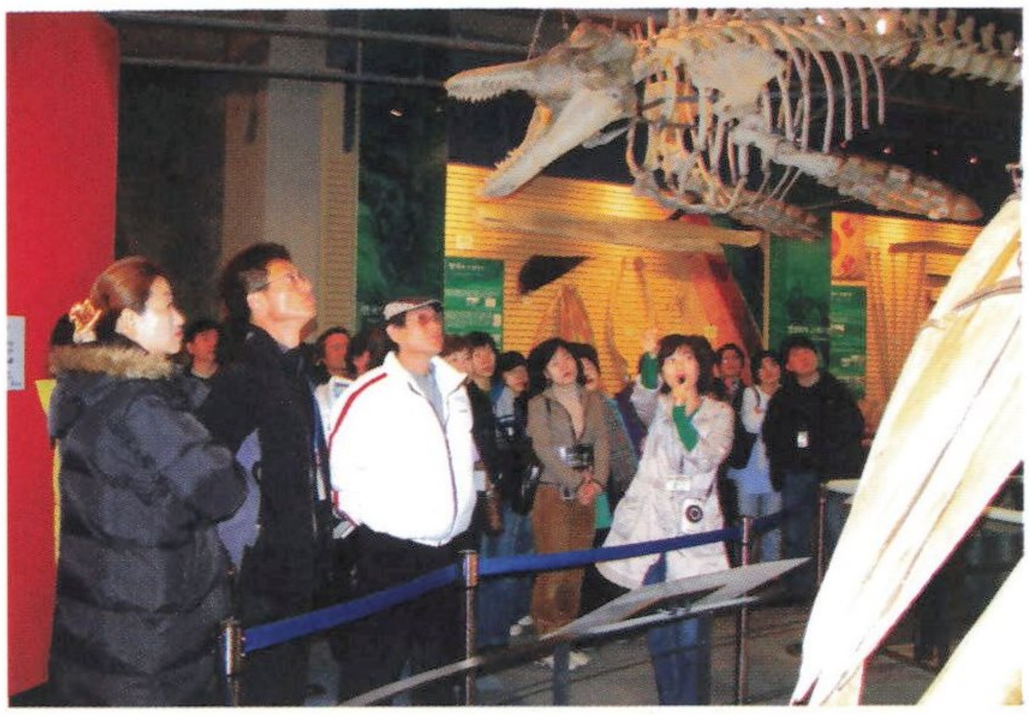
옛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울산 장생포에 자리잡은 장생포 고래박물관(관장 김순철)은 1986년 포경이 금지된 이후 사라져가고 있는 포경유물을 수집하고 보존, 전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5월 개관한 고래 전문박물관이다. 부지 2,000여평,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진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실과 체험관으로 구성된 3곳의 전시관과 시민들이 승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포경선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박물관 옆 야외에 있는 포경선은 1985년까지 장생포를 거점으로 직접 고래를 잡던,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포경선 제 6진양호를 원래 규모(높이 6m, 길이 31m, 무게 89톤)대로 복원시킨 후 포경장비까지 장착해 늠름하게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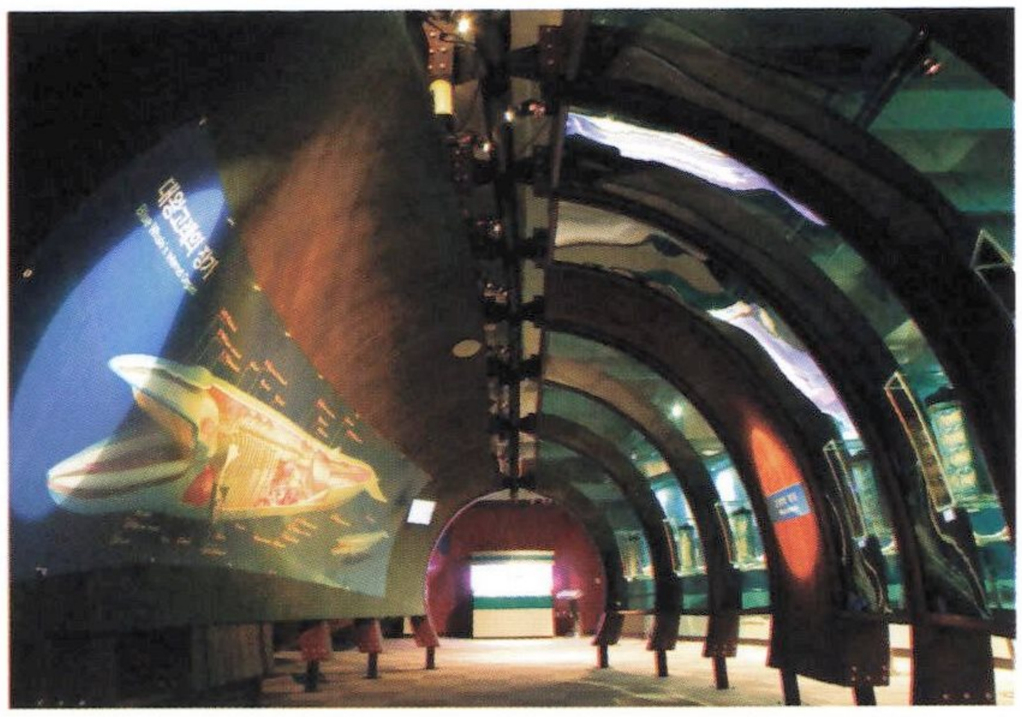
제 1전시관에 설치된 길이 12.4m, 머리크기만 3m에 달하는 대형고래인 브라이드 고래의 골격.

박물관 2층에 자리잡은 제 1전시관에 들어서면 천정에 매달린, 길이 12.4m, 머리크기만 3m에 달하는 대형고래인 브라이드고래의 골격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맞은 편 벽면에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국보 제 285호 반구대 암각화가 실물같이 재현되어 있다.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에서 발견된 이 암각화에는 사람, 동물, 도구 등 다양한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특히 고래 종류 50여점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포경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경역사관에는 고래의 턱뼈, 귀뼈, 수염 등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는 유물들과 포경에 사용됐던 작살, 잣대, 해부톱, 숫돌 등 다양한 포경도구, 인도네시아 원시 포경선모형, 남극해에 진출했던 일본포경선단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이 곳에는 한국귀신고래를 전 세계에 알렸던 미국의



1986년 포경이 금지된 이후 사라져가고 있는 포경유물을 보존, 전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5월 개관한 국내 유일의 고래 전문박물관인 장생포 고래박물관.



박물관 1층 제 3전시관에 들어서면 만나는 고래뱃속을 형상화한 터널은 실제로 고래뱃속에 들어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동물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앤드류의 논문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1912년 울산을 방문했던 앤드류는 1년여정도 귀신고래를 연구한 다음 1914년 한국계와 캘리포니아계 귀신고래 두 종류가 있음을 발표했다. 전시장 한켠에는 3년 반동안 영하 60℃에서 냉동보관 처리된 대형 브라이드고래 실제 수염이 전시되어 있다.

3층에 위치한 제 2전시관 '귀신고래관'은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에서 가장 흔한 고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귀신고래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전시되어 있다. 귀신고래관은 귀신고래 실물모형과 소 울음소리와 비슷한 귀신고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체험관. 그리고 한국계와 캘리포니아계 귀신고래의 유영모습과 생태적 특징, 회유경로 등 귀신고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귀신고래 전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제 2전시관에는 잡힌 고래를 해체했던 해체장을 복원시킨 고래해체장 복원관과 고래기름을 만드는 착유장을 재현한 고래기름 착유장 두 곳이 들어서 있다. 고래해체장 복원관은 포경 성행초기였던 1961년 준공되어 장생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해체장 건물의 일부를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시켜놓은 것이다.

1, 2전시관을 관람한 후 1층 제 3전시관으로 들어서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관이 자리잡고 있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는 것은 고래 뱃속을 형상화한 터널.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터널에는 고래의 먹이와 고래 몸의 전체 내장 등이 그려진 패널이 전시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피노키오의 고래뱃속 모험장면이 영상모니터를 통해 상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고래의 진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래두골 모형코너와 고래와 사람의 몸무게 및 폐활량을 비교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지구상 가장 거대한 포유동물인 고래의 생태적 특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관 2년을 맞아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개관 첫해인 2005년에는 23만 9천여명이, 지난해는 24만 3천여명의 관람객이 이 곳을 다녀갔다. 울산 뿐 아니라 부산, 서울, 대구 등 전국에서 찾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2009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오는 11월 '고래잡이 옛 모습 전시관' 건립에 착공한다. 고래잡이 옛 모습 복원 모형과 대형수족관, 고래연구·치료실, 영상체험실 등이 들어설 '고래잡이 옛 모습 전시관'까지 건립되면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보다 더 다양한 전시, 체험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장생포 고래박물관(052-226-2809, www.whalemuseum.go.kr)

영화 속 또 다른 세상에 빠지다

부산지방법원 영화동호회



퇴근을 알리는 방송이 법원내에 울려퍼지자 분주히 퇴근준비를 서두른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 영화동호회 정기모임이 있는 날.

7시 영화 상영시간에 맞춰 저녁식사까지 끝내려면 시간이 빠듯하기만 하다. 부지런히 서둘러 법원 근처 모임장소인 식당으로 향한다.

오늘 모임에는 전체 회원의 절반에 가까운 20여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다. 두달만의 모임이라 서로의 안부를 묻는 틈틈히 오늘 관람할 영화의 정보교환도 빼놓지 않는다. 오늘 관람할 영화는 하지원, 임창정 주연의 '1번가의 기적'.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상영관인 사직동 프리머스 영화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근무처인 법원과는 10분거리에 있어 정기모임 장소로 항상 이용된다.

총무가 미리 예매한 티켓을 전달받아 극장으로 입장한다. 상영 5분전, 곧 영화가 시작된다.

지난 1997년 결성된 법원영화동호회(회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현재 판사와 사무직원 등 모두 5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두달에 한번 열리는 정기모임에서는 최신 화제작이나 회원들의 추천작을 선정, 관람한 후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최근에는 사형제 폐지론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해바라기' 등 법제도와 관련된 영화들을 관람하면서 회원들간에 진지한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정기모임만큼은 50% 이상의 회원 참석율을 자랑한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10월에는 법원영화동호회의 활동이 더욱 분주해진다. 영화 관람은 물론 영화제에 참석한 배우들을 초청, 법원영화동호회만의 '배우와의 만남'을 갖기도 한다. 영화동호회로서는 의미가 있는 자리인 만큼 영화배우 안성기와 박중훈이 참석했던 2005년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법원영화동호회는 정기모임 외에도 매년 두차례 문화탐방을 떠난다. 그동안 거제도, 경주, 고리원자력발전소 등에 다녀왔던 법원영화동호회는 오는 4월에는 욕지도를 탐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영화동호회인만큼 '영상테마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영화촬영장을 찾을 계획이다. 영화를 단순히 보고 즐기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화제작과정을 둘러보며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생각이다.

영화가 좋아 모였지만 부산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에도 관심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법원영화동호회는 그동안 틈틈히 찾았던 전시, 공연장에도 찾는 발길의 횟수를 늘일 생각이다.



법원영화동호회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10월에는 영화제에 참석한 배우들을 초청, '배우와의 만남'을 가진다.


매년 두 차례 문화탐방을 떠나는 법원영화동호회는 올해부터 '영상테마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영화촬영장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 2003년에는 법원영화동호회 주체로 매달 법원 강당에서 법원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상영회를 갖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원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면서 좋은 호응을 얻었던 영화상영회는 2005년까지 운영되다 협찬사의 사정으로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였던 만큼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상영회를 부활시킨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1998년부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총무 강나경씨.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주부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영화관람을 한다는게 어려웠다"는 그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음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직장 내 동호회인만큼 인사이동에 따라 회원들의 변동이 심해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김춘겸 부회장. "올해가 결성 1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10년이라는 햇수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과 함께하는 법원'의 새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법원영화동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선율로 음악의 아름다움 전하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 창단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연주자들이지만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연습하다 보니 더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4월 28일 창단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의 연습실. 부산시립교향악단 내 여성 연주자 10명이 더욱 가까이에서 청중들을 만나고 싶어 실내악 앙상블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창단 연주회를 앞두고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과 여성적인 서정성이 잘 어우러진 품격 있는 연주를 선사할 각오로 연습이 한창이다. 같은 직장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라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레이디스 필 앙상블의 강점이다.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지난해 11월 최영화, 박소영, 전수정 등 앙상블에 뜻을 가진 단원 몇몇이 편하게 의견을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창단 되었다.

바이올린 김은정, 최방주, 한아름, 양혜원, 비올라 최영화, 박소영, 첼로 전수정, 전지윤, 더블베이스 임미형, 피아노 이은정 등 20대 단원부터 40대 단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지만 그 열의는 한결같다. 연주자로 진지한 삶의 성찰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음악세계를 표현해 내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



창단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따로 대표나 회장없이 단원 10명이 모두 함께 움직인다.

가장 젊은 20대 단원 한아름, 양혜원씨의 경우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

운다.

"선배들이랑 같이 음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연주하다 보면 음악도 음악이지만 세월에서 느낄 수 있는 연륜과 포용력을 배우게 됩니다."

2005년에 입단한 한아름, 양혜원은 그래서 한 순간 한 순간을 놓칠 수 없다.

이들의 연습을 지켜보면 선배와 후배사이의 벽을 발견할 수 없다. 활발하고 스스럼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시립교향악단의 연주 일정 때문에 바쁘지만 '매주 1회는 모여서 연습한다' 는 원칙을 정하고 연습하고 있는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언제 어디서나 연주가 가능한 준비된 연주자들이다. 현재 정통 클래식곡에서부터 팝 음악에 이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요즘 관객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향유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지난 1월 부산 구포도서관 초청음악회와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에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결성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부산교통공사 초청으로 지하철 장산역에서 '시가 있는 지하철 행사'에 나가 연주, 많은 박수를 받았다.

"창단을 생각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을 연주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레이디스 필 앙상블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초청연주회를 가졌는데 장산역에 모인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는 부산 구포 도서관 초청음악회, 20일에는 부산문화회관 토요상설무대에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토요상설무대에서는 전 단원들이 무빙을 곁들인 스탠딩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앞으로 편안하면서 친숙한 레퍼토리를 선곡해 그들의 음악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 7월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음악회도 가질 계획이다.

창단 20주년 맞은 부산성악아카데미 신임 회장

테너 이은민



"부산성악아카데미를 대표하는 회장이라기 보다는 우리회의 대표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뛸 생각입니다."

지난 1월 부산성악아카데미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테너 이은민(44)씨. 1994년부터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해온 이은민씨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올해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부산성악아카데미는 유럽과 미국, 러시아에서 유학한 부산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전문연주단체이다. 매년 2~4회의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기획연주로 지난 20년 동안 100회가 넘는 음악회를 가져왔고, 창단 첫해부터 전주, 광주, 대구의 성악아카데미와 영, 호남교류 음악회를 가져 화제를 모았다.

올해는 4월 23일 창립 20주년 특별연주회 '명작 오페라 갈라 대축제'를 시작으로 6월 전주, 광주, 대구성악아카데미와 연합으로 마련하는 세미나, 10월 전주성악아카데미와 함께 전주 소리축제 합동연주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러시아에서 공부한 성악가를 중심으로 러시아 음악에 대해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20주년 기념 무대를 준비하는 20명 회원들의 열정이 무엇보다 고맙다는 이은민씨는 앞으로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들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음악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청중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리 귀에 익은 명작 오페라지만 성악가의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4월 연주회는 그동안 부산성악아카데미에서 시도하지 않은 특별 무대가 될 것입니다."

폭넓은 연주활동과 후진양성에 대한 열정으로 2006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한 테너 이은민씨는 4월 연주회에 이어 6월 그만의 색깔을 담은 독창회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2007 부산국제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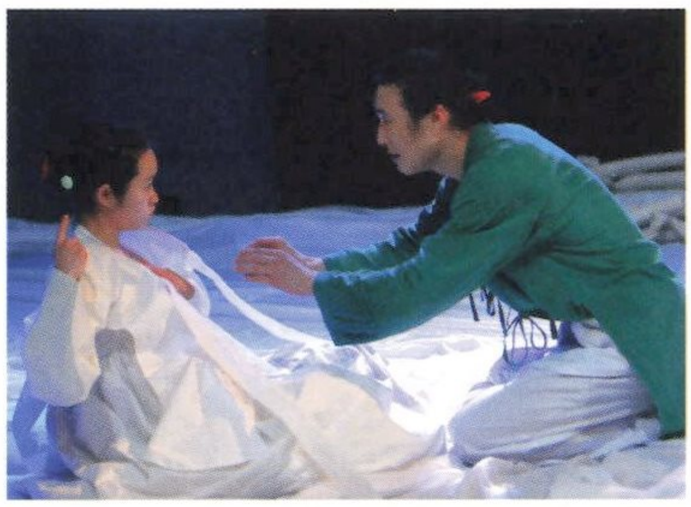
세계명작 뒤집기

5월 5일~5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경성대학교, 너른 소극장, 액터스 소극장

봄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연극제 4번째 축제가 5월 5일부터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 부산시민회관, 경성대학교 등 부산시내 9개 극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지난해 '비언어극(Non-Verbal)'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데 이어 올해는 '세계명작(世界名作) 뒤집기'를 컨셉으로 정하고 한국을 비롯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8개국 18개 작품을 초청, 그동안 부산에서 경험하지 못한 연극적 재미를 선사한다. 올해 부산국제연극제는 다양한 관객층을 고려해 테마별로 총 3개의 섹션(세계명작 스테이지, BIPAF 스테이지, 가족 스테이지)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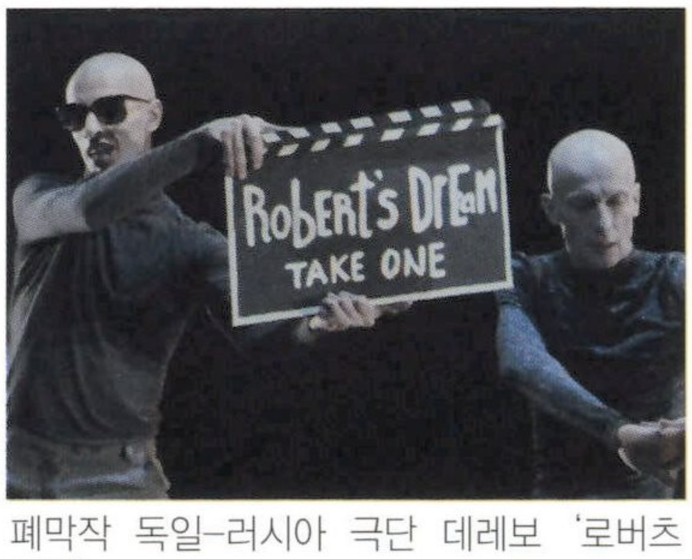
특히 '세계명작(世界名作) 뒤집기'라는 컨셉에 맞게 세계명작 희곡을 패러디하고 리메이크 한 작품들을 통해 원작이 가지고 있는 작품 고유의 힘과 특정 연출가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된 다양한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올해는 참가작 모두 거리 쇼케이스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시민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고 참여하는 10분연극제와 연출가 메소드 워크샵, BIPAF사랑방 등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참여 행사가 함께 열린다.



개막작 극단 목한 '로미오와 줄리엣'

■ 개막작 : 극단 목화 '로미오와 줄리엣' 5. 5(토)~6(일) 토요일 오후 6:30 / 일요일 오후 4:00,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각색, 연출/오태석)

2006년 세계적인 극장 '런던 바비칸 센터' 15일간 공연 전회 매진을 기록한 오태석의 화려한 한국식 셰익스피어. 500년 전 셰익스피어의 감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언어의 음악성, 시적 우아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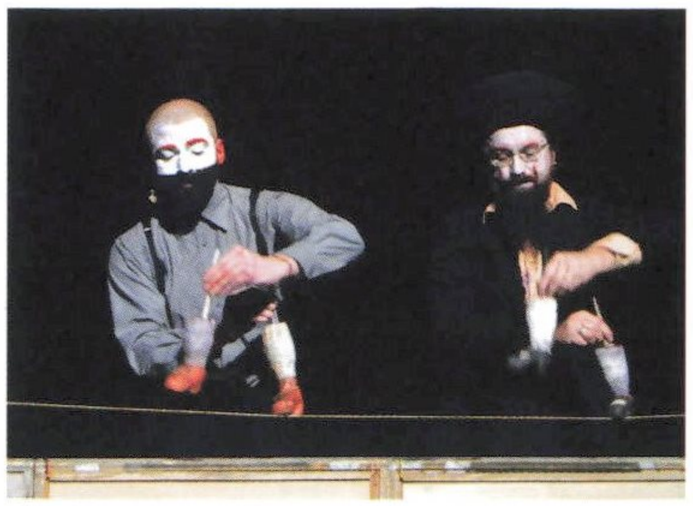
폐막작 독일-러시아 극단 데레보 '로버츠 드림'

■폐막작 : 독일-러시아 극단 데레보(Theatre DEREVO) '로버츠 드림(Robert's Dream)' 5. 14(월)~15(화)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출/아다진스키 안톤 · 작곡/윌리엄 대니얼)

가장 러시아적이고 무정부적(?!)인 극단 데레보의 국내 초연작 '로버츠 드림'은 2006년 11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처음 선보인 공연으로 음악의 거장 '로버트 와이어트'를 모티브로 하여 신체적 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미국 타이니 닌자 극단(Tiny Ninja Theater) '닌자 햄릿(Tiny Ninja Theater presents Hamlet)' 5. 6(일)~7(월)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연출 및 배우/도브 와인스타인)

셰익스피어의 고전명작 광기와 복수의 이야기가 1인치 크기의 닌자 인형과 다양한 모형의 인형들로 꾸며진다.


러시아 아케 엔지니어링 극단 'Mr. 카르멘'


한국 파임 커뮤니케이션즈 '인당수 사랑가'

■러시아 아케 엔지니어링 극단(AKHE Engineering Theatre) 'Mr. 카르멘(Mr. Carmen)' 5. 6(일)~7(월)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Mr. 카르멘'에서는 남성 호세과 여성 카르멘의 영원히 풀리지 않는 갈등과 관계의 비극적 해결(데뉴망)을 대조적으로 연기한다.

■한국 파임 커뮤니케이션즈 '인당수 사랑가' 5. 5(토)~6(일) 토요일 오후 3:00,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연출/최성신 · 음악감독/신경미 · 안무/이유미)

춘향전과 심청전의 절묘한 만남으로 고전을 재해석한 색다른 재미가 있는 창작 뮤지컬로 우리시대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본질인 인내와 순수함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한국 부산시립극단 '수전노' 5. 9(수)~11(금) 평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연출/손기룡)

17세기 프랑스 대표적 극작가 몰리에르 만년의 걸작 '수전노'는 몰리에르 특유의 사회풍자와 함께 재치있는 대사와 몸짓으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한국 극단 앙상블 '익스트림 로미오와 줄리엣' 5. 12(토)~13(일)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대본, 연출/김진만)

위험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험심을 그대로 담아낸 익스트림 스포츠의 일종인 어그레시브 인라인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운의 사랑이야기를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프랑스 서커스 바로크(CIRQUE BAROQUE) '인생은 아름다워! (A cour & En corps)' 5. 12(토)~14(월)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작가/앤 쥬비노 · 감독/죠엘 콜라)

시적이고 코믹해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인생은 아름다워!' 는 2005 프랑스 아비뇽프린지페스티발 참가작으로, 세 명의 뛰어난 배우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곡예와 춤으로 관객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선사한다.

■푸에르토리코 유턴 댄스컴퍼니(U turn Dance Company) '사이의 거리(SAI)' 5. 10(목)~11(금)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출연/김정웅, 마리온 라미레즈)

2006 떠오르는 안무가 국립극장 기획공연에서 주목을 받았던 작품. 유턴댄스 컴퍼니의 연극적 댄스 퍼포먼스 '사이의 거리'는 공간 속에서 가까운 것과 먼 것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한다.

■한국 시월 네트워크 '비보이 퍼포먼스 스핀 오딧세이' 5. 6(일)~9(수) 일요일 오후 2:00, 5:00 14:00 월~수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극작, 연출/김진만 · 작곡, 음악/김민수 · 안무/천창훈)

판타지 요소를 지닌 오딧세이의 서사형식과 트로이 전쟁 속의 캐릭터를 현대 일상 속에 삽입시켜 삶과 행복, 사랑과 모험, 도전과 열정 등을 비보이의 창의적인 춤으로 구현하고 있다.

■한국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바리데기' 5. 6(일)~10(목) 평일 오후 8:00, 일요일 오후 3:00, 6: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연출/심문섭)

2006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젊은 앙상블연극상 수상, 2006년 거창국제연극제 경선부문 참가작으로 화제를 모은 부산연극 '바리데기'.

■ 한국 삼일로창고극장 창작뮤지컬 '결혼' 5. 6(일)~9(수) 평일 오후 8:00 일요일 오후 3:00, 6:00 너른 소극장(연출/정대경)

한국 연극계의 거장 이강백의 희곡 '결혼'을 뮤지컬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탄탄한 원작과 섬세하고 박진감있는 선율이 결합되었다.


한국 삼일로창고극장 창작뮤지컬 '결혼'

■ 한국 극단 Theatre 정 모둠 'Love 죽여? 살려! (원제 : LUV)' 5. 8(화)~13(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액턱스 소극장(연출/이강혁)

머레이 시스갈에게 토니상을 안겨준 'LUV'를 각색한 작품으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속에서 행복한 사랑을 꿈꾸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한국 코포럴씨어터 몸꼴 '리어카, 뒤집어지다(Handcart, Overturned)' 5. 9(수)~10(목) 평일 오후 8:00 경성대 예노 소극장(연출/ 윤종연 · 음악감독/ 서희성)

1970년대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서민의 땀과 눈물을 대변하던 '리어카'를 통해 그들의 삶을 향수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며 가난한 무대 위에 배우들의 거짓 없는 에너지를 채운다.

■ 한국 극단 미지(M.I.Z.I) '산책하기 좋은 날' 5. 9(수)~10(목) 평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연출/양지웅)

6 · 25 동란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훼르난도 아라발'의 작품을 각색한 작품으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아픈 역사를 돌이켜본다.

■ 체코 파벨 반젤리 인형극단(Pavel Vangeli Theatre) '마리오네트 프라하 (Prague-the enchanted city)' 5. 11(금)~13(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8:00 / 토, 일요일 오후 2:00, 5:00 너른 소극장

프라하의 감춰진 미스테리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Pavel Vangeli가 1인극으로 선보인다.

■ 일본 JP 스튜디오 '상현이가 소가 됐네(牛になったサンヒョン)' 5. 13(일)~14(월)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연출 /모리 료스케 · 안무/박정자)

재일교포 한국인 2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극단-JP 스튜디오가 선보이는 '상현이가 소가 됐네'는 게으름을 피우는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우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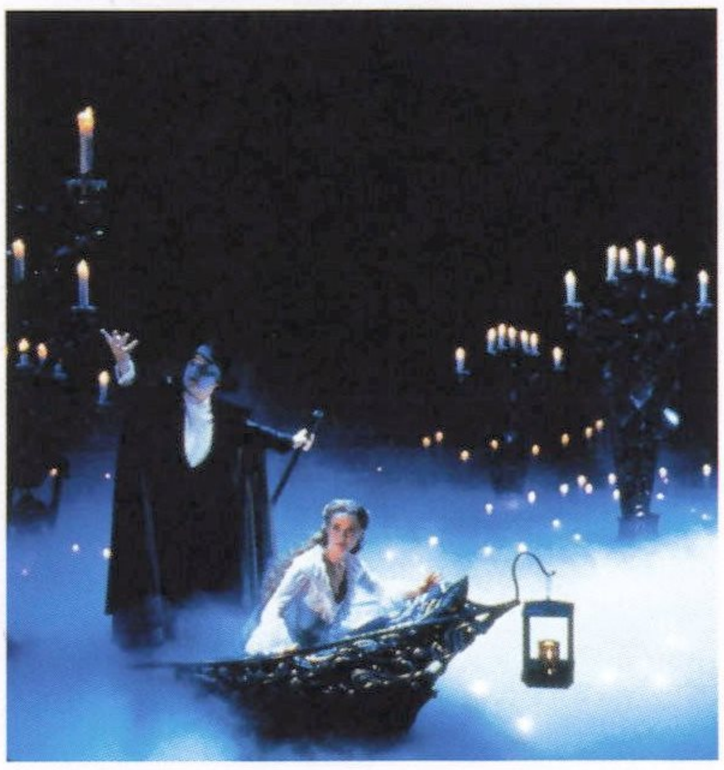
■ 한국 마리오네트 극단 '보 · 물 목각인형콘서트(Sound of folk music)' 5. 12(토)~14(월) 토,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오후 8:00 경성대 예노소극장(연출/김종구)

2002년 러시아 상뜨페테르브르크 국립연극대학 인형극학과에서 마리오네트를 공부하고 귀국한 인형극 연출가 김종구가 은행나무를 직접 깎아 만든 목각인형으로 만든 정통 마리오 네트 인형극.

■ 입장료 : 개 · 폐막 공연 -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조기할인 이벤트 〈1+1 Ticket〉 / 판매기간 : 3. 26~4. 4까지), 일반 공연 -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특별할인 - 5 Free Ticket : 일반 60,000원 (개 · 폐막작 포함, 1인 5개 작품 선정) - 가족권(4인가족 기준) : 40,000원(개 · 폐막작 제외)

■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 (051-627-2744, www.bipaf.com)

오페라의 유령



1986년 영국의 한 극장에서 초연된 '오페라의 유령'은 약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관객들을 감동시키며 롱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작품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프랑스 작가 가스통 르루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의 유령'은 파리 오페라극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경매가 한창 열리고 있는 파리 오페라하우스, 70세의 노인 라울이 경매 물건(포스터와 뮤직박스)을 구입하고 경매인은 연이어서 샹들리에를 소개한다. 그리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거대한 샹들리에는 오페라하우스 천정으로 솟아오르고 그 길고 긴 전설과도 같은 유령 스토리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1860년 파리 오페라하우스. 새로운 극단주 앙드레와 피르맹, 그리고 후원자인 라울 백작이 '한니발' 리허설을 감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무대장치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사람들은 오페라의 유령이 한 짓이라고 수근 대고, 화가 난 프리마돈나 칼롯타는 무대를 떠나버린다. 발레단장인 마담 지리의 딸 맥지리의 추천으로 그간 알 수 없는 스승으로부터 레슨을 받아오던 크리스틴이 새로운 여주인공을 맡게 되고, 공연은 대성공을 거둔다.

축하객을 뒤로 하고 분장실에 혼자 남아있던 크리스틴은 거울 뒤에서 하얀 가면으로 얼굴 반쪽을 가린 채 연미복 차림으로 나타난 팬텀을 따라 마치 마법이라도 걸린 듯 미로같이 얽힌 지하세계로 내려간다. 크리스틴의 실종으로 일대 혼란에 빠졌던 오페라하우스, 그러나 극단 측은 크리스틴을 돌려보내는 대신 오페라 '일 무토'의 주인공을 크리스틴에게 맡기라는 팬텀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주역을 칼롯타에게 맡긴다. 어지러운 상황을 피해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으로 도피해온 라울과 크리스틴. 다시 한 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두 연인을 그림자처럼 뒤따라온 팬텀이 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사랑과 질투, 복수심에 휩싸인 팬텀은 샹들리에를 무대로 떨어뜨린다.

6개월 후,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가면무도 연회장, 죽음의 사신으로 분하여 등장한 팬텀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오페라 '승리자 돈 주앙' 악보를 극장 매니저들에게 전달한다. 매니저들은 이상한 분위기의 오페라라며 공연을 거부하지만 이내 라울의 기지로 공연은 팬텀을 사로잡기 위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된다. 팬텀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대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크리스틴에게 라울은 팬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득한다. 팬텀을 잡기 위한 경찰 병력이 온 극장을 포위하는 가운데 오페라 '승리자 돈 주앙'은 막을 올린다.

피앙지를 대신해 무대에 서는 팬텀과 그를 마주하게 된 크리스틴, 다시 한 번 크리스틴을 데리고 지하

세계로 탈출을 시도한 팬텀은 크리스틴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 살지 않으면 라울이 죽게 될 것이라며 선택을 종용한다. 흉측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순수한 영혼을 지닌 팬텀의 존재를 이해하게 된 크리스틴은 팬텀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이런 크리스틴의 행동에 감동한 팬텀은 크리스틴과 라울을 풀어준다. 이들이 떠나고 팬텀의 은신처에 다다른 군중들. 그들이 극 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팬텀의 하얀 가면뿐…. 이것을 끝으로 길고 긴 '오페라의 유령' 스토리는 끝이 난다.

세계적인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 무대 연출의 거장 헤롤드 프린스 이 세 사람이 만나 탄생된 '오페라의 유령'은 무대예술의 극치로도 평가 받고 있는데 매회 130여 명에 이르는 배우와 스태프, 오케스트라가 투입되며, 230여벌의 화려한 의상, 관객의 머리위로 날아다니는 30만개의 유리구슬로 치장된 0.25톤의 샹들리에, 그리고 배를 타고 지하세계로 가는 장면들은 관객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을 만하다. 이 모든 것이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작품을 빛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멜로디와 감미로운 가사가 합쳐진 뮤지컬 넘버들인데 단순한 동화 같은 스토리를 탄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탈바꿈 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크리스틴을 무대 위의 프리마돈나로 재탄생하게 만든 'Think of Me', 이곡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크리스틴 역을 맡은 아내 사라브라이트 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래서일까 아직까지 사라브라이트만보다 이 노래를 더 잘 소화해내는 여배우는 없다고 들은 거 같다. 팬텀이 크리스틴을 지하 세계로 인도하면서 같이 부르는 'The Phantom of the Opera'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대표하는 타이틀곡으로 너무나도 유명하다. 크리스틴이 마법에 걸린 듯 지하세계로 이끌려가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이곡은 크리스틴이 3옥타브를 넘나들며 부르는 곡인데 웬만한 실력가가 아니면 제대로 소화해내기 힘든 곡이다. 크리스틴과 라울이 사랑을 맹세하며 부르는 'All I ask of you', 팬텀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며 부르는 'The Music of the Night'까지 뮤지컬에 나오는 거의 모든 넘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뮤지컬 개막과 함께 발매된 영국공연실황 더블 앨범의 경우 첫 10일 동안 35만장이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오페라의 유령이 첫 선을 보인 건 2001년, 당시 1백억 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7개월간의 장기 공연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형 뮤지컬들이 직수입되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붐에 힘입어 2005년도엔 오리지널 팀이 내한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 팬텀역을 맡았던 브래드 리틀 같은 경우 2006년 12월 초 다시 내한해 단독 콘서트를 가지기도 했다. 이렇듯 전 세계의 많은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대한민국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것이라 예견해 본다.

■ 김숙희 · 뮤클(뮤지컬 & 클래식)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5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으로 전하는 자연의 소리

4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신상준


오신정


노경원

이은정

이동신 지휘자와 함께 2007년을 의욕적으로 맞은 부산시립청소년교행악단이 4월 3일 제 25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으로 전하는 자연의 소리'로 2007년 첫 연주회를 연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한 신상준 인제대학교 교수를 비롯 인제대학교 교수 노경원, 오신정과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이은정이 협연자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싱그러운 봄의 향연을 펼친다. 단원을 보강하고 2007년 새로운 음악만들기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첫 연주인만큼 그동안 연주하지 않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곡, 청소년 음악애호가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곡은 말러의 교향곡 제 1번 중 '꽃의 악장'으로 연다. 19세기 말 교향곡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말러의 제 1번 교향곡은 1889년 11월 말러 자신의 지휘로 초연될 당시 5악장이었으나 현재는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삭제된 악장은 1968년 다시 출판된 이후 '꽃의 악장'이라는 제목으로, 독립하여 연주하거나 제 2악장에 삽입되어 연주되고 있다.

두 번째 무대는 인제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노경원 교수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다장조 작품 15'를 들려준다.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연주자 디플롬 과정,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및 마이스터 과정을 졸업한 노경원 교수는 Dreiklang 콩쿠르 피아노부문에서 1등하고 Pirna오케스트라, 드레스덴국립음대 오케스트라, 부산시향, 진주시향 등과 협연한 바 있다.

2부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플루티스트 오신정, 피아니스트 이은정이 연주하는 바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라장조 작품 1050'으로 시작한다. 이 합주 협주곡(Concert Grosso)은 바흐의 6개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작품이다.

마지막 무대는 1927년에 작곡된 레스피기의 교양적 조곡 '새'를 들려준다. 작은 관현악을 위한 모음곡 '새'는 비둘기, 암탉, 뻐꾸기 등 새 우는 소리를 주제로, 자연음의 묘사를 초월한 시적인 정취가 넘치는 작품이다.

■ 입장료 : 2,000원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9)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9회 정기연주회

게르만의 신화 바그너 음악의 밤

4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봄 향기 가득한 4월을 맞아 부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4월 10일 제 429회 정기연주회로, 악극의 창시자 바그너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는 '게르만의 신화-바그너 음악의 밤'을 마련한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주목받는 젊은 피아니스트 권석란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음악과 대본의 뛰어난 조합으로 서정과 감성을 자극하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보이지 않는 도시 키테쥐와 성녀 페브로니야의 전설' 중 관현악 모음곡과 전 유럽에 이름를 떨쳤던 명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치오소'를 테마로 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가단조 작품 43'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과 극음악 '발퀴레', '트리스탄과 이졸데', '탄호이저' 등 바그너의 대표적인 극음악들을 들려준다. 특히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 이어 4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07 교향악축제에서도 동일한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권석란

1부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가단조 작품 43'을 들려줄 피아니스트 권석란은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학사 및 석사)와 노스 텍사스대학(박사)을 졸업하고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Honor's 콩쿠르, 클락대학교 콩쿠르, 텍사스 스타인웨이 콩쿠르, 이탈리아 비오티 발세시아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꾸민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일생동안 시와 음악, 극을 융합시켜 연극적인 요소가 강한 악극의 형태를 완성시킨 작곡가로, 작사, 작곡에서부터 연출까지 자신이 직접 맡아 이상적인 종합예술의 경지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는 바그너의 작품을 들려준다.

첫 곡인 '발퀴레의 비행'은 바그너의 대작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중 전야제 '라인의 황금'에 이은 두 번째 극이자 제 1일에 해당하는 '발퀴레'의 3막 전주곡으로, 신들의 우두머리인 보탄의 9명의 딸을 일컫는 '발퀴레'가 날개달린 천마를 타고 하늘을 거침없이 나는 모습을 금관악기의 웅장한 선율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어서 죽음으로 완성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숙명적인 사랑을 소재로 한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처음과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면서 극의 주제가 가장 잘 표현된 '전주곡'과 '마지막 장면(사랑의 죽음)'이, 마지막 곡으로 바그너의 관현악곡에서 가장 유명한, 낭만적이면서도 숭고한 힘이 느껴지는 장중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탄호이저' 서곡이 연주된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세대공감 Old & New '아카펠라'

4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합창단

3월, 전 수석지휘자 이상열과 함께 다양한 합창음악 세계를 선보인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24일 아카펠라로 완연한 봄을 노래한다.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나영, 엄남이, 손미숙, 김성미, 김진영, 박성환, 최성규, 문동환, 남순천, 최선희, 박진희, 류무룡, 김창돈, 구명금 등 14명의 단원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평소 자주 들을 수 없는 아카펠라로 성악의 매력에 빠져 볼 수 있는 감미로운 무대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세대 공감 Old & New '아카펠라'라는 부제에 맞게 합창단 출연단원들을 구성, 선배 단원들이 아카펠라 Old, 후배 신세대 단원들이 아카펠라 New 레퍼토리를 선곡,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난다.

아카펠라는 15세기말 조스캥 데 프레 시대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여, 16세기말 팔레스트리나의 음악, 특히 바티칸의 시스틴 성당을 위해 작곡한 음악들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후대의 학자들은 르네상스의 아카펠라 성악곡에 별도로 기악 성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합창단이 무반주로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오해했으나, 오늘날에는 오르간이나 기타 악기들이 성악 성부 중 일부를 '중복'해서 연주했음이 입증되었다.

아카펠라 오프닝 '미뉴에트(모차르트)'에 이어 첫무대는 김나영, 엄남이, 손미숙, 김성미, 김진영, 박성환, 최성규, 문동환이 마련하는 아카펠라 Old 무대가 마련된다. Old팀은 나를 사랑한다면(If Ye Love Me), 예쁜 새(Quel Augellin), 저녁노래(Abendlied), 화관을 내려놓고(Lay a Garland) 등 16세기, 17세기, 18세기, 20세기의 전통 아카펠라 음악을 들려준다.

전통 아카펠라를 연주하는 아카펠라 Old 팀과 달리 아카펠라 New팀은 Yesterday, Michelle, And I Love Her, Honey Pie 등 비틀즈 모음곡과 꿈꾸는 백마강, 처녀 뱃사공, 어머나 등 한국가요를 아카펠라 음악으로 편곡, 흥겨운 아카펠라 음악을 들려준다. 아카펠라 New팀을 대표해 남순천, 최선희, 박진희, 류무룡, 김창돈, 구명금이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소그룹으로 구성된 기획연주인 만큼 단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합창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수석지휘자 김강규의 친근한 해설로 합창음악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5회 정기연주회

거장과의 만남 頌春之樂

4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난 3월 제 134회 정기연주회에서 B-boy와 풍물패가 만나는 파격적인 무대로 많은 박수를 받았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4월 27일 제 13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우리음악의 전승에 앞장서온 작곡가들의 대표곡을 엄선하여 음악애호가들에게 들려준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던 지휘자 김용진이 객원지휘하고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장으로 있는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하지행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이강덕 곡 '송춘곡'과 황병기 곡 가야금협주곡 '침향무', 김희조 곡 '합주곡 4번', 이강덕 곡 '지영희류 해금산조 협주곡', 이상규 곡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 등 그동안 사랑받았던 다양한 창작곡이 연주된다.



김용진



김남순



하지행

객원지휘를 맡은 지휘자 김용진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및 교육대학원 원장,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음악협회 이사장으로 있다.

첫 곡은 '송춘곡'은 작곡가 이강덕이 1960년대에 작곡한 곡으로, 새싹이 움트는 대지의 넘치는 활력과 화사한 꽃들로 가득찬 천지의 희망찬 새봄을 민요풍적인 음구성과 가락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불교음악인 범패의 음계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공통적인 원시 정서를 표현한 황병기의 가야금협주곡 '침향무'는 본래의 독주곡을 협주곡으로 작, 편곡한 곡으로, 가야금연주자 김남순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협연자 김남순은 한양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초청독주회, 국립국악원 주최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공연 등 국내 및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에서 다수 공연을 가져왔다. 김남순 교수는 KBS국악대상(현악부문), 봉생문화상(공연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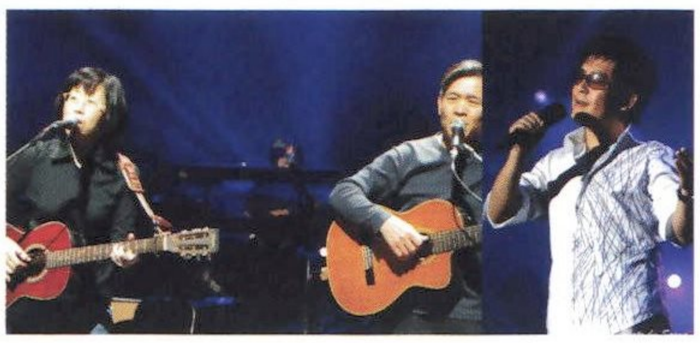
김희조 곡 '합주곡 4번'은 작곡자의 기존 작품인 제 1, 2, 3번에서 나타난 간결한 주제와 분명한 악상 전개, 효과적이면서 능률적인 관현악법이 이 작품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며, 이강덕 편곡 '지영희류 해금산조 협주곡'은 해금 특유의 가늘면서도 강한 소리와 섬세한 주법 등이 조화되어 경쾌하면서도 은은한 소리를 들려준다. 마지막 곡인 이상규 곡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는 시나위 가락을 태평소에 얹고 타악이 장단가락을 맡아 한바탕 신명나는 연주가 펼쳐진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 극 장

4인 3색 콘서트

2일 월요일 오후 8:00



박은옥 · 정태춘　　박강성

1978년 자작곡 시인의 마을, 촛불을 발표하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가요계의 음유시인 정태춘과 박은옥, 뛰어난 가창력으로 라이브 붐을 일으킨 박강성,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성황후 3대 주연 뮤지컬 배우 김지현이 출연하는 4인 3색 콘서트.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문화(633-8990, 635-9081)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5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으로 전하는 자연의 소리

3일 화요일 오후 7:30



이동신 지휘자와 2007년을 의욕적으로 출발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2007년 첫 무대.

그동안 연주되지 않았던 새로운 레퍼토리로 웅장한 자연을 노래한다.

프로그램

말러/ '꽃의 악장'(교향곡 제 1번 중)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 1번 다장조 작품 15
바흐/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 라장조 작품 1050
레스피기/교향적 조곡 '새'

· 지휘/이동신
· 협연/신상준(바이올린, 인제대학교 교수), 노경원(피아노, 인제대학교 교수), 오신정(플룻, 인제대학교 교수), 이은정(첼발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입장료 균일 2,000원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6108~9)

이태리음악연구회 제 25회 정기 연주회

4일 수요일 오후 7:30



정태미　　강학윤

이태리에서 유학한 성악가들과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이태리음악연구회는 순수 이태리 가곡과 오페라 음악의 학문적 연구, 국제 음악교류를 해왔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돈 카를로' 중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오페라 '시몬 보까네그라' 중 '오 지옥! 아멜리아는 여기에…'
도나우디/오 나의 사랑하는 님
칠레아/오페라 '아드리아나 르꼬부뢰르' 중 '내 마음은 지쳤소' 등 수곡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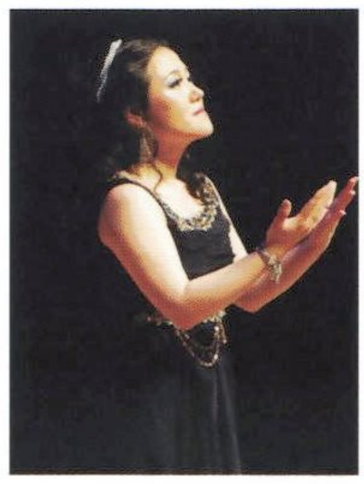
민상순, 정태미, 송윤경, 이윤정(이상 소프라노), 강학윤, 정거화, 박찬, 양승엽(이상 테너), 최기천(바리톤), 김태형(베이스)
· 피아노/차미소란, 안선애, 정미선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박찬(010-7315-7352)

소프라노 배수진 독창회

5일 목요일 오후 7:30



루치아폼 국립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유럽 각지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배수진 독창회.

이번 무대는 체코 브르노 콘서바토리 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지휘자 알레스 포다릴이 지휘하는 영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오페라 아리아, 우리 민요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오페라 '마술피리' 중 '5중창', 오페라 '돈죠반니' 중 '우리 함께 손잡고'
헨델/울게 버려두오
민요/새야 새야 파랑새야, 내 맘의 강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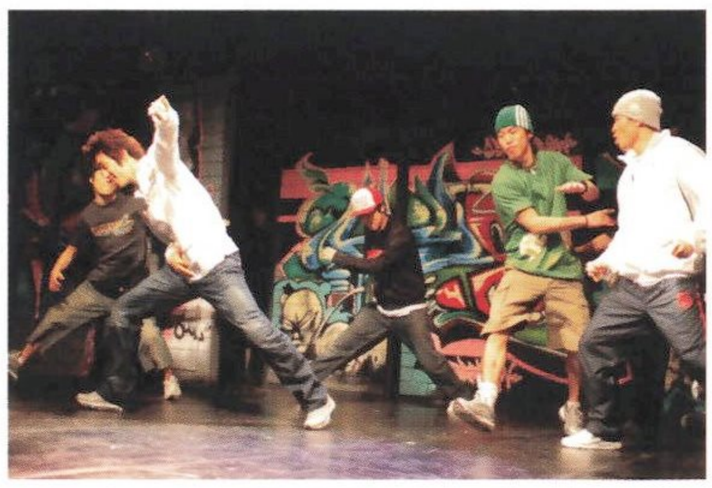
· 우정출연/김도형, 윤석, 김소라, 김달의, 이지현, 황민규, 정광명, 오페라단 맥 여성합창단
· 반주/영남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알레스 포다릴 · 체코 브르노 콘서바토리 교수)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A석 10,000원

문 의 배수진(501-3999)

뮤지컬 '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즌1

7일-8일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한국 공연계를 놀라게 한 B-boy 넌버벌 퍼포먼스의 선두주자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오리지널팀이 선보이는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 시즌1 부산공연.

각종 세계 B-boy 대회에서 인정받은 Gorilla Crew(Able Crew & Brooklyn Monkeys)의 팀원들로 구성된 배우진,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발레와 B-boy의 환상적인

조화로 관객들을 즐겁게 해준다.

· 극 연출/문주철

· 안무/김우성, 한상민, Gorilla Crew (Able Crew, Brooklyn Monkeys)

출연

김현문, 김소리, 김우성, 한상민, 강현수, 김마리아, 김병남, 김재중, 박민수, 박신재 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AN시티(1644-4484, www.anticket.co.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9회 정기연주회

게르만의 신화 바그너 음악의 밤

10일 화요일 오후 7:30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권석란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9회 정기연주회.

일생동안 독창적인 극음악의 세계를 펼친 바그너의 음악으로 아름다운 봄의 향연을 마련한다.

프로그램

림스키-코르사코프/보이지 않는 도시 키테쥐와 성녀 페브로니야의 전설 모음곡

라흐마니노프/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가단조 작품 43

바그너/'발퀴레' 중 '발퀴레의 비행'

바그너/'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 과 '마지막 장면(사랑의 죽음)'

바그너/'탄호이저' 서곡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권석란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온누리오페라단

롯시니 오페라 '모세'

14일~17일 토-화요일 오후 7:30

오페라의 대중화와 아름다운 문화선교를 목적으로 창단된 온누리 오페라단이 들려주는 롯시니 오페라 '모세' 앵콜 공연.

오페라 '모세'는 광야에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의 삶을 다룬 기독교 역사의 한 사건을 오페라로 이끌어낸 초대형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2004년 이태리어 공연에 이어 두 번째 갖는 무대로 어게인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해 전 곡을 한국어로 공연한다.

· 명예감독/안민

· 단장 및 예술감독/이홍길

· 지휘/박종휘 · 연출/김성경

· 합창/한국오페라합창단

· 오케스트라/인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출연

권영기, 정용욱, 안균형(이상 모세, 베이스),



이윤정, 이정란, 배수진(이상 아나이데, 소프라노), 임충진, 문대진, 양승엽, 김경아(메노피, 테너), 황성학, 최춘식, 박훈(이상 엘리제로, 테너), 배재진, 최정수, 배웅철 외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40,000원 B석 30,000원

문 의 온누리 오페라단(517-6091, 011-839-1084)

정명화 첼로 리사이틀

19일 목요일 오후 7:30



세계 음악계가 인정하는 중견 첼리스트이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발한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명화의 첼로 리사이틀.

정명화 첼로 인생 51주년을 맞아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정명화 특유의 우아한 표현력과 안정된 기교로 세계 주요 무대에서 많은 찬사를 받아왔던 정명화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로카텔리/소나타 라장조

ForAD 종합광고대행사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 051) 627-2563(代) FAX : 051) 627-2560

힌데미스/소나타 작품 25 제 3번
브람스/소나타 바장조 작품 99 등 수곡
· 피아니스트/최인선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학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사단법인 이푸른 문화예술회

을숙도 교향악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20일 금요일 오후 7:30



김인호 조현미

2004년 부산생태예술단으로 출범한 이래, 찾아가는 연주회 및 시민을 위한 크고 작은 음악회 수차례 가져온 을숙도교향악단의 제 10회 정기연주회.

호주 시드니에서 제 1회 환경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는 을숙도교향악단은 MBC목요음악회 초청 연주회,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시내 주요 공원 투어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바그너/서곡 '리엔찌'
그리그/피아노협주곡 제 2번 다단조 작품 18(Piano 김용배)
브람스/교향곡 제 1번 다단조 작품 68
· 지휘/김인호
· 협연/김용배(피아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이푸른문화예술회(203-2627)

춤다솜무용단

창작무용 '하루'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4:00

이해하기 쉬운 무용,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솔직한 감동이 있는 무용공연을 만



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춤다솜 무용단의 창작무용 '하루' 부산무대.

1989년 세종대 한국무용과 출신들로 창단된 춤다솜무용단은 그동안 '갈망', '사계' 등의 대형 레퍼토리 작품들을 통해 사랑받아 왔다.

2007 '하루'는 훌륭한 무용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소망과 그것을 하나의 굴레로 받아들이며 느끼는 세상 모든 딸들의 갈등을 관조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원작/박범신 · 각색, 대본/정일성
· 총괄 연출/양선희
· 안무/조훈일 · 연극 연출/김태훈
· 특별출연/김말애(경희대학교 교수,경희 & 춤타래무용단 예술감독), 정선혜(상명대학교 교수), 이태은(전남대학교 교수), 백연옥(유니버설발레컴퍼니 II 예술감독), 이화숙, 서용석, 오주희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 의 (사)춤다솜무용단 사무국
(02-468-6635, 011-9634-6401)

부산성악아카데미 창립 20주년 특별연주회

명작오페라 갈라 대축제

23일 월요일 오후 7:30



유럽과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학을 마치고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은 펼치고 있는 현직 대학전임 및 외래교수로 구성된 성악전문연주 단체인 부산성악아카데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들려주는 특별연주회.

프로그램

구노/'파우스트' 중 'Ah!je ris de me voir'
모차르트/'돈죠반니' 중 Catalog 'Madamina'의 노래
베르디/'리골렛또' 중 'La donna e mobile'
모차르트/'마술피리' 'Pa Pa Pa'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중 'Parigi o cara'
비제/'진주조개잡이' 중 'Au fond du temple saint' 등 수곡

출연

정태미, 박현정, 전영무, 박은미, 박기범, 권영준, 심정보, 윤정윤, 이홍득, 이은민, 안상철, 김길수, 우명화, 송윤경, 우명화, 오동주, 김길수

· 연주/블레스트 오케스트라(지휘/이기균)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안상철(010-2400-5271)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62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27일 금요일 오후 7:30



이동신

기량이 뛰어난 청소년 유망주들의 등용문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 협주곡의 밤.

오디션을 거친 유망주들이 부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20번 라단조 작품 466 중 제 1악장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64 중 제 3악장
크루셀/클라리넷 협주곡 제 2번 바단조 작품 5 중 제 1악장
쇼스타코비치/첼로 협주곡 제 1번 내림마장조 작품 107 중 제 1악장 등

· 지휘/이동신
· 협연/이현정(피아노, 유락여중 2년), 배정윤(바이올린, 강동초등 6년), 김상훈

(클라리넷, 부산예중 3년), 나해리(바이올린, 부산예중 1년), 김한솔(첼로, 구서여중 3년), 김한라(바이올린, 남천중 3년), 김태현(피아노, 브니엘예중 3년)

균일 2,000원

입장료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부산하모니합창단 제 4회 정기연주회

28일 토요일 오후 7:00



2003년 3월, 노래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로 창단된 부산하모니합창단의 제 4회 정기연주회.

부산하모니합창단은 취미의 선을 넘어서 아마추어 합창단으로는 드물게 후원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기획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한국합창/여우야 여우야(함태균), 초혼(최병철 곡, 윤지영 편곡) 등

무반주 합창/자비의 어머니, 거룩하시다, 물의 밤

우리동요모음곡(백현주 작, 편곡)/반달, 나뭇잎 배, 옹달샘, 구슬비 등

세상의 합창/디레-통(그렇게 말들을 해요), 이탈리안 샐러드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피아노/윤지영

· 특별연주/바리톤 김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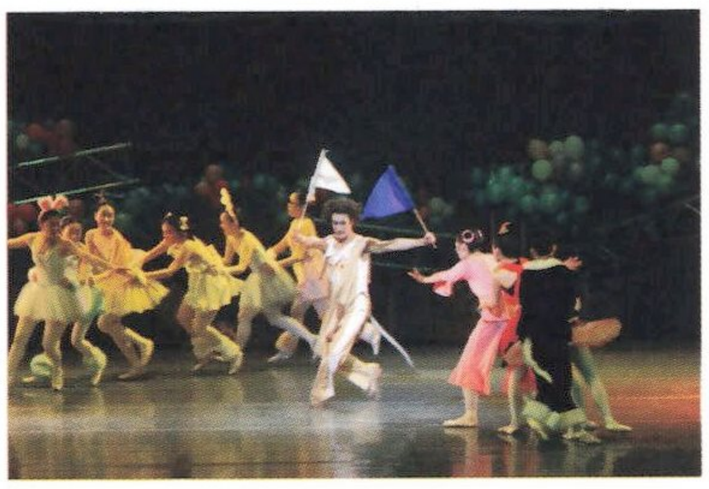
· 우정출연/대구레이디스코러스(지휘/안승태)

입장료 초대

문 의 장연수(610-1304, 016-593-1651)

2007 숲속발레
창작무용극 '별'

5월 1일-2일 화-수요일 오후 1:00, 3:00, 7:30



어린이날을 즈음해 매년 순수 창작발레를 발표해온 김옥련 발레단의 2007년 창작무용극 '별'.

어린시절에 보았던 아름다운 별에 대한 순수, 동경, 사랑을 표현한 이 작품은 발레를 통해 잃어버려던 동심의 순수함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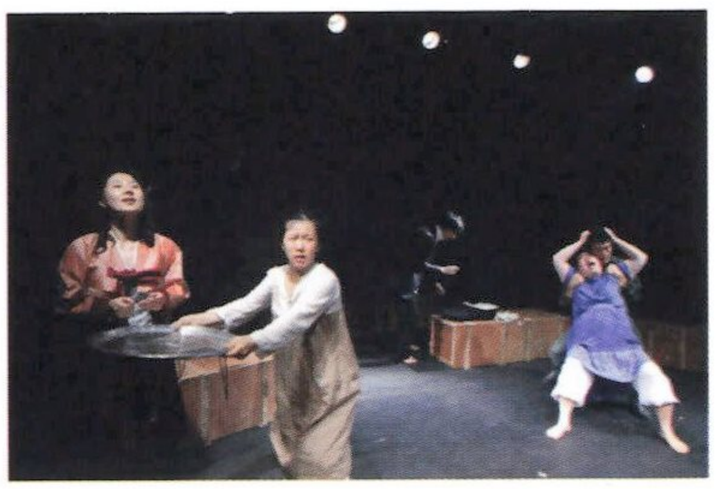
문 의 김옥련(627-0117, 626-9486, 016-835-0831)

중 극 장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참가작

극단 골목길
경숙이, 경숙 아버지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00
31일 토요일 오후 4:30, 7:30
4월 1일 일요일 오후 4:30



축하공연 '경숙이, 경숙 아버지'는 격변하는 한 시대, 이 세상과 힘겨운 사투를 벌여온 우리네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 작, 연출/박근형

출연

황영희, 김상규, 김도균, 김영필, 고수희, 김덕현, 주인영, 안성일, 권방현

입장료 R석 30,000원 · A석 25,000원

문 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에저또
미자르'

3일 화요일 오후 7:30,
4일 수요일 오후 4:30, 7:30

늘 똑같은 생활패턴에 권태감을 느끼는 남자와 여자, 생활에 지친 사회인의 대리물로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탑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공연예매처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광안리미월드 연중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3월까지는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문우당서점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써 자유를 갈망하고 구속에 대해 반발하고 자극을 얻고 싶어 하는 소년과 소녀를 통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싶어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보는 극단 에저또의 경연작품 '미자르'.

· 작, 연출/최재민

출연

이지훈, 곽정림, 구윤회, 김지연

입장료 일 반 20,000원(예매 15,000원)
청소년 15,000원(예매 10,000원)

문 의 극단 에저또(852-9161)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신부, 나비 꿈꾸다

6일 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4:30, 7:30

지난해 '바리데기'로 화제로 모은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이 선보이는 경연 참가작 '신부, 나비 꿈꾸다'는 통과의례로서의 결혼, 그것도 전통혼례를 올리는 신랑과 신부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결혼의 의미, 가족의 사랑을 다시 되짚어 보는 작품이다.

· 작/정재영, 심문섭 · 연출/심문섭

출연

고인범, 정애경, 박훈영, 전오미, 김성훈, 김현주, 이정형, 류혜린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녘(751-0858)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액터스 환화여, 환화여

9일 월요일 오후 7:30
10일 화요일 오후 4:30, 7:30

'환화여, 환화여'는 선각자 원효가 삶에 찌든 대중을 바라보며 사회를 개혁하고자 애썼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켜 불교의 색채를 넘어선 대중적 재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신라시대의 전통의상의 고증과 놀이의 재발견을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



를 제공한다.

· 작/김숙현 · 연출/정순지

출연

유재명, 김민미, 김진욱, 하현관 외12명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극단 액터스(611-3703)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극단 맥 광대유사(廣大遺事)

12일 목요일 오후 7:30
13일 금요일 오후 4:30, 7:30



조선왕실 오백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인 사도세자의 고백을 통해 역사의 장면을 들추어보는 '광대유사'는 혜경궁 홍씨의 애처로운 신세타령이 아니라 존재했던 사실들을 바탕으로 광대놀음을 통해 영조와 사도세자 간의 관계를 새로이 조명해 본다.

· 각색, 연출/이정남

출연

심미란, 전지숙, 남정현, 권은하, 박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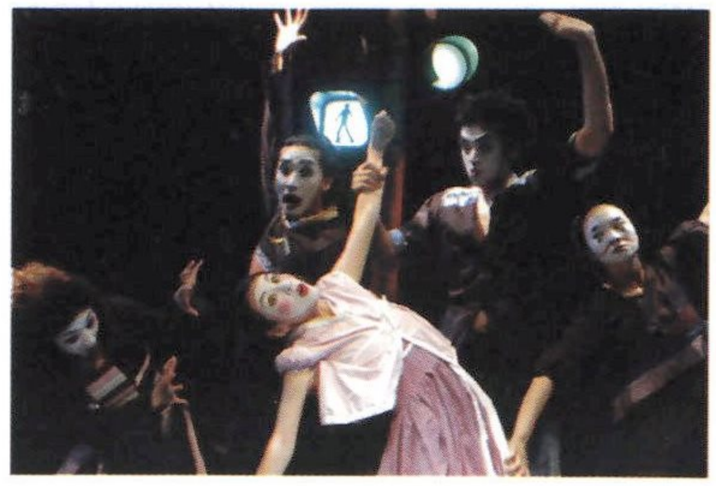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극단 맥(625-2117)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경연참가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바리데기

1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지난해 초연되어 많은 화제를 모은 부산연극 제작소 동녘의 자유참가작 '바리데기'.

· 각색/공동창작

· 연출/심문섭

출연

류혜린, 양효윤, 박지현, 이정형, 김우석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녘(751-0858)

피아니스트 윤민화 독주회

17일 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Piacenza의 'G. Nicolini'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최고 연주자과정, 밀라노 시립음악원 피아노과와 오페라 반주과, 'Orfeo' 아카데미 오페라 반주과에서 음악수업을 한 피아니스트 윤민화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내림 마장조 작품 31 제 3번
뿔랑/8개의 녹턴
프로코피에프/소나타 바단조 작품 1 등

입장료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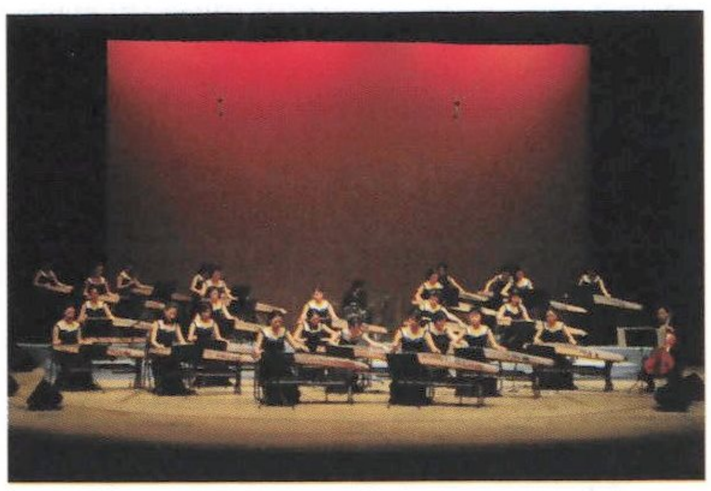
문 의 윤민화(010-6712-7352)

효산 가야금 연주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8일 수요일 오후 7:30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1989년 7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8호 지정) 산하 단체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효산 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연주단 중 창



작 파트인 효산 가야금연주단은 2004년 10월 경기도립 주최 전국국악관현악 실내악 축제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연활동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25현 가야금으로 구성된 국악 관현악곡 '축제의 향연', 베토벤 교향곡 '운명', 호른과 25현 가야금의 만남 '천국의 계단', 기타와 25현 가야금의 만남 'La Cumparsita & Tango', 가야금 4중주 '새봄', 국민가수 '마야' 와 함께하는 '진달래꽃' 등 수곡

출연

백혜숙(고문), 김혜진, 이정은, 이보은, 김명수, 이희원, 김지영(A), 우민정, 최은정, 정효은, 김기현, 이초희. 이선혜, 공혜영 외

· 객원출연/우리라(첼로), 박성진(드럼), 마야(노래), 이민규(기타), 김진호(호른)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학생 10,000원

문 의 김혜진(011-841-5180)

조현선 피아노 독주회

19일 목요일 오후 7:30

Muse Trio 창단멤버로 Muse Trio, Muse Ensemble 연주, 미국 Delta Omicron초청연주, 광복 50주년기념 대한민국 작곡대제전, 통영음악제 등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150회의 연주회를 가져온 경성대학교 조현선 교수의 피아노 독주회.



조현선은 음반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 와 브람스의 VioIn과 Piano를 위한 소나타(Violin임병원)를 출반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바흐/이탈리안 협주곡 BWV.971

브람스/슈만 주제에 의한 변주곡

쇼팽/녹턴 작품 9-1, 에튀드 작품 10-9, 소나타 제2번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www.busanarts.com)

제 6회 한국 피아노 학회

부산, 경남 지부 연주회

2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피아노 학회 회원들이 들려주는 연주회로 부산의 대학교수들이 연주한다.

프로그램

정수란/피아노 2중주를 위한 교차

쇼팽/발라드

스크리아빈/두개의 시 등 수곡

· 연주/나광자, 고정화, 한명희, 조영문, 차미소란, 권혜령, 김지령, 최윤희, 이경옥, 정년경, 박필은

입장료 초대

문 의 이태희(010-5299-7446)

어린이뮤지컬

후크선장과 피터팬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영원히 지켜야 할 어린이의 땅 '네버랜드' 와 영원한 자라지 않는 '피터팬' 을 통해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아름다운 동심을 키워준다.

입장료 균일 12,000원(예매 10,000원)

문 의 극단 서울도깨비(050-2134-2580)

소프라노 김현숙 독창회

23일 월요일 오후 7:30



1999년부터 매년 2명의 작곡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연구, 발표해 온 동아대학교 김현숙 교수의 독창회.

올해는 '집시' 를 테마로 드보르작 '집시의 노래' 전곡을 비롯하여 브람스의 '집시의 노래' 볼프 '집시 여인', 리스트 '3명의 집시', 슈만 '집시의 노래' 등으로 꾸며진다.

· 반주/조영문(동아대학교 교수)



입장료 초대
문 의 김현숙(011-9532-2283)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세대 공감 Old & New '아카펠라'

24일 화요일 오후 7:30



다양한 합창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마련하는 봄 특별무대.

평소 자주 들을 수 없는 아카펠라 음악으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합창단 선후배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아카펠라 합창음악으로 청중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아카펠라 오프닝/미뉴에트(모차르트)
아카펠라 Old/나를 사랑한다면, 예쁜 새, 저녁노래, 화관을 내려놓고
아카펠라 New-비틀즈 모음/Yesterday. Michelle, And I Love her, Honey Pie
Old & New 이중합창/메아리 등 수곡
· 해설 및 지휘/김강규
· 아카펠라 Old/김나영, 엄남이, 손미숙, 김성미, 김진영, 박성환, 최성규, 문동환
· 아카펠라 New/남순천, 최선희, 박진희, 류무룡, 김창돈, 구명금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5회 정기연주회
거장과의 만남 頌春之樂

27일 금요일 오후 7:30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현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용진의 객원지휘자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5회 정기연주회.

우리음악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역대 작곡자들의 대표적인 곡을 엄선하여 연주한다.

프로그램

이강덕/송춘곡
황병기/가야금협주곡 '침향무'
김희조/합주곡 4번
이상규/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 등
· 객원지휘/김용진(한국음악협회 이사장)
· 가야금/김남순(부산대학교 교수)
· 해금/하지행(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레이디스 필 앙상블 창단 연주회

28일 토요일 오후 7:30



섬세하고 부드러운 실내악 특유의 아름다움과 여성적인 서정성이 잘 어우러지는 실내악을 들려주기 위해 창단된 레이디스 필 앙상블의 창단 연주회.

프로그램

알비노니/합주 협주곡 작품 5-1
삼마르티니/리코더 협주곡 바장조 제 1, 2악장
번스타인(불라 편곡)/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아메리카'
김한기/한국민요 밀양아리랑 등 수곡
· 해설/이동신
· 연주/김은정, 최방주, 한아름, 양혜원,최영화, 박소영, 전수정, 전지윤, 임미형, 이은정
· 협연/전병호(테너), 양운정(동래초등 5년, 리코더)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레이디스필 앙상블(607-6103)

소프라노 김양자 독창회

30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합창지도자로,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김양자의 독창회.

김양자는 그동안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 오페라 콘서트, 프랑스 가곡과 아리아의 밤, 칸초네와 아리아의 향연, 우리가곡의 향연 등 많은 무대에 서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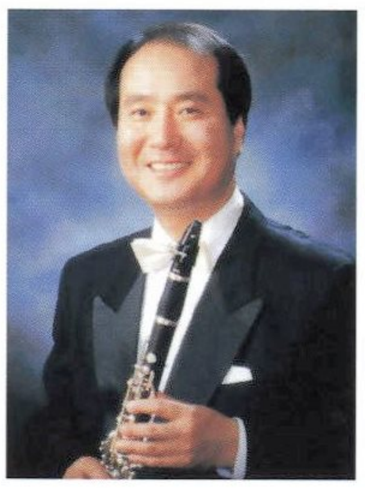
프로그램

롯시니/약속, 알프스의 양치는 소녀 등
볼프/말없는 사랑, 요정의 노래, 정원사
리스트/내가 잠잘 때, 만약 아름다운 잔디가 있다면 등 수곡
· 찬조 출연/부산소년소녀합창단
· 반주/이영옥(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반주자)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016-861-6105)

정우영과 클라리넷 이야기

5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주자, 부산클라리넷콰어어 음악감독 겸 지휘자, 해운대청소년교향악단 단장 및 지휘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 독주회.

섬세하면서도 풍부한 음악 속에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 정우영은 빈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UN 주최 세계 노인의 날 기념음악회 등 국제적인 행사에 초청되어 호평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메사세/콩쿠르를 위한 독주곡
브람스/클라리넷 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120 제 2번
생상/클라리넷 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167
밧시/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협주적 환상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조영훈(011-574-3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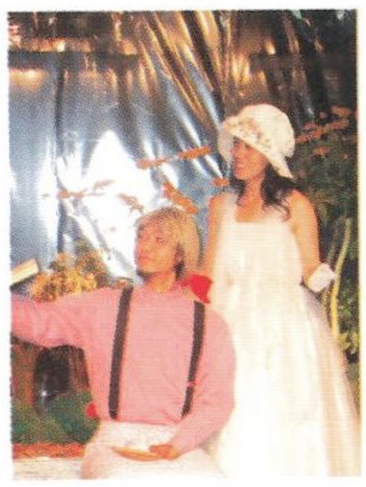
소 극 장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자유바다 '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의 모험'

3월 30일 금요일 오후 11:00,
31일-4월 1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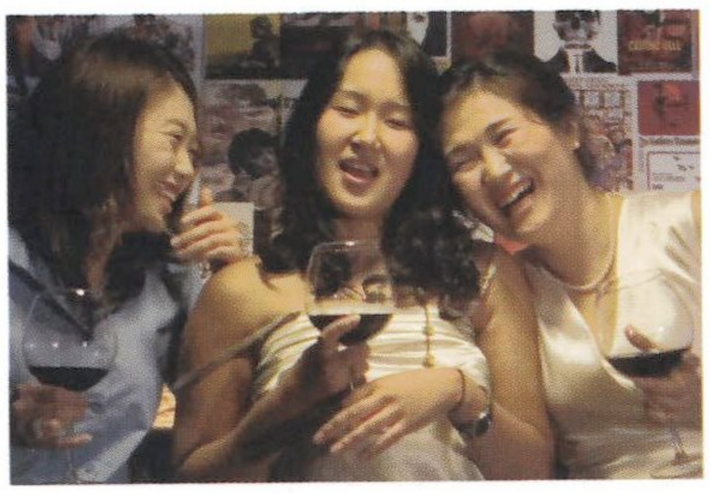
인형친구 피노키오와 함께 모험을 떠난 노기호의 모험을 담은 작품. 기호는 세상의 풍파와 고통을 만나 절망과 우정, 고통과 사랑을 배운다.

· 작/정경환 · 연출/강혜란
입장료 일반 15,000원(예매 12,000원)
청소년 12,000원(예매 10,000원)
문 의 극단 자유바다(622-3572)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누리에 십년 후,

3일-8일 평일,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4:30



20대에서 30대가 되어버린 세 여자, 10년이 지나 만난 대학 동창생 수진, 주리, 희남이 늘어놓는 세상이야기.

· 각색/김민정 · 연출/강성우

출연

강봉금, 황정미, 최성희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극단 누리에(621-3573)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마임극단 세진 빨간피터

10일-12일 화-목요일 오후 7:30



카프카 원작의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를 새롭게 각색한 2006 빨간 피터의 고백은 누구나 겪어야 할 정체성의 진지한 문제와 현대 인간 세계의 모순을 극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등장인물이 원숭이라는 데서 오는 호기심, 원숭이 역할을 해내는 배우의 연기에 대한 호기심, 또 모노드라마로서 공연 시간 내내 한 배우의 역량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 각색/김세진 · 연출/유재명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마임극단 세진(632-3995)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에저또 뮤지컬 '친구'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6:00



2003년 8월 초연 이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극단 에저또의 '친구' 앵콜 공연.

뮤지컬 친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귀에 익숙한 음악으로 누구나 한번씩 지나온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밝고 경쾌한 Rock & Roll 리듬에 담아냈다.

· 작, 연출/최재민

출연

김진욱, 이지훈, 김철현, 김지현, 정은영, 구윤회, 박선옥 외

입장료 일반15,000원(예매 13,000원)
청소년10,000원(예매 9,000원)
문 의 극단 에저또(852-9161)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돈까스 (디저트 포함) ₩6,000원 ★원두커피 ₩6,0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 음악
- 연극
- 영화
- 아동극
- 전시

● 주요문화공간

가람아트홀(626-6664)
가마골소극장(245-0042)
가톨릭센터(462-187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국도아트홀(247-4242)
금정문화회관(519-5651)
글로빌아트홀(505-5995)
눌원아트홀(631-0660)
너른소극장(622-3572)
동래문화회관(550-4481)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미리내소극장(504-2044)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부산민주공원(462-1016)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부산시민회관(630-52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엑터스소극장(611-6616)
열린소극장(555-5025)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추리문학관(743-0480)
프랑스문화원(465-0306)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40계단문화관(600-4041)
KBS 부산홀(620-7100)
MBC아트홀(760-1000)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 악

제 12회 한연회 연주회

2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8년 부산대학교 한명희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한연회의 12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풀랑크/소나타
라흐마니노프/모음곡 제 2번 등 수곡

· 연주/한명희, 김영지, 김소형, 김소희, 김지현, 이성애, 최미정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최미정(017-401-8846)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매주 화요일 클래식에서부터 국악,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는 가톨릭센터 PBC 화요음악회.

■3일 테너 장원상 스페셜 리사이틀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 중국 길림예술대학 객원교수로, 그동안 1,000여회가 넘는 국내외 무대에 서온 테너 장원상 독창회.

· 해설/오동주

■10일 브니엘 동문음악회

· 출연/송준영, 김기연, 박성아, 황언지, 김영숙, 엄희정, 조나영, 임채진, 윤지원
· 해설/김윤선

■17일 부산푸른아버지합창단 특별연주회

2005년 8월 창단한 부산푸른아버지합창



단이 들려주는 신춘맞이 특별연주회.

· 지휘/이성훈 · 반주/전은경, 박유미
· 우정출연/메조 소프라노 최옥수, 소프라노 정인숙, 바리톤 호흥진
· 해설/우경준

■24일 김수진, 김현지 듀오콘서트

작곡가 김수진과 오르가니스트 김현지가 함께하는 듀오무대로, 평소에는 잘 들을 수 없는 오르간의 신비한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 찬조출연/테너 오동주
· 해설/박진홍(음악평론가)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애창곡의 향연

3일 화요일 저녁 7:30
시민회관 대극장



강재권

1987년 창립한 부산예술기획 창립 20주년 기념음악회.

· 출연/소프라노 김혜경,정성희,양성희, 김정애, 테너 김진수, 박호송, 방현호, 바리톤 강재석
· 합창/부산코러스합창단(지휘/박근기)
· 관현악/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지휘/강재권)

입장료 일반 10,000원 · 중고생 5,000원 장애우 무료
문 의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18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4일 H.O.O(후) 앙상블-Harmony of Ocarina

맑고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 어린

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H.O.O(후) 앙상블 연주회.

■11일 조용석 클라리넷 독주회



러시아 국립 글린카음악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양산시립관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조용석이 러시아 음악과 재즈를 들려준다.

■25일 봄바람에 실려오는 실내악의 향기

바이올리니스트 백원석, 플루티스트 이상창, 첼리스트 김대수가 들려주는 실내악 앙상블의 무대.

문 의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입장료 박진홍(017-563-7966)

에릭 오비에 트럼펫 콘서트

5일 목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대극장



독특한 리듬감과 프레이징, 비범한 감수성 등으로 모리스 앙드레의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에릭 오비에 부산 콘서트.

· 연주/로렐 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유세종)

문 의 VIP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입장료 예은예술기획(632-6904)

여성을 위한 행복한 11시 음악회

6일 금요일 오전 11:00
글로빌아트홀



작곡가 신영순의 해설로, 신진 성악가들의 무대가 펼쳐지는 여성들을 위한 행복한 11시 음악회.

· 출연/소프라노 손호진, 김민지, 테너 박윤호
· 연주/글로빌콰이어

문 의 균일 5,000원

입장료 글로빌아트홀(505-5995)

봄 어린이 연극축제

비엔나의 음악상자

6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음악의 도시 비엔나를 배경으로, 작곡가들의 삶과 예술을 통해 클래식음악과 친해지는 새로운 형태의 클래식 음악회.

프로그램

스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다뉴브 왈츠
하이든/교향곡 제 94번 '놀람' 제 2악장
베토벤/교향곡 제 3번 '영웅' 제 1악장 등

· 총감독, 편곡/신동일

문 의 균일 25,000원

입장료 (주)코엔(1544-3164)

한국, 대만 불교문화교류의 밤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한국, 대만 양국의 우호증진과 불교문화 교류를 위해 대만 고웅 원조사 초청으로 마련한 한국, 대만 불교문화교류의 밤.

■7일 경극 '바라문녀 어머님 구하기'

· 출연/원조사 '김교각 가극방'

■8일 합창 '온갖 복을 받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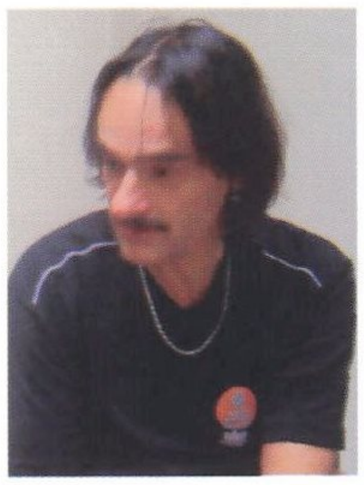
· 출연/원조사 여래지성(如來之聲) 합창단, 고웅시 고산부녀합창단

입장료 무료

문 의 한국안국선원(583-0999)

제랄드 베르바 초청 기타 연주회

7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빌아트홀



현재 파리 국립음악원, 안토니 국립음악원, 크레떼이 국립음악원 교수로 있는 이 시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제랄드 베르바 초청연주회.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우/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아시아허브병원 · 암센터전문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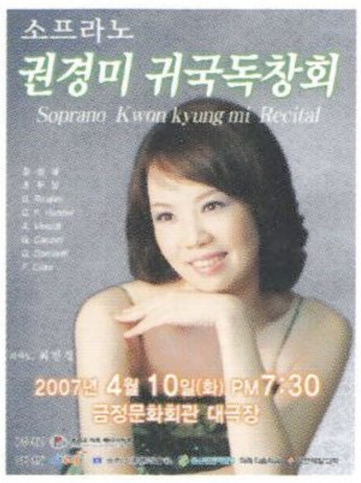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602-702

대 표 전 화 (051) 990-6114
전 화 예 약 (051) 990-6900
응급의료센터 (051) 9906-119
암예방검진센터 (051) 990-5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6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6155

소프라노 권경미 귀국독창회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 밀라노 국제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한국음협 콩쿠르, 이태리 Lecco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는 소프라노 권경미 귀국독창회.

· 피아노/최민경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프리모 아트매니지먼트(622-5529)

이화영선 피아노 독주회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석사),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데트몰트 국립음대 독일가곡 반주과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화영선 독주회.

문 의 예솔기획(0505-700-9798)

11시 브런치 콘서트

12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저녁시간에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앙상블 클라시아와 NGN 케이블TV 방송이 마련한 브런치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 연주/홍성택(클라리넷), 박미선, 박치상(바이올린), 정은영(첼로), 김지연(비올라), 박소연(메조소프라노)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 의 앙상블 클라시아(506-6305)

박미정 바이올린 독주회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국림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및 앙상블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쳐온 바이올리니스트 박미정 독주회.

입장료 초대

문 의 부산문화(633-8990)

아모르성악가협회 초청연주회

12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성악인들의 모임 아모르성악가협회 초청연주회.

· 출연/권상무(회장 · 피아니스트), 메조소프라노 금정미, 소프라노 김성숙, 테너 방현호, 베이스 김태형, 바리톤 심정보, 테너 허동근, 소프라노 장은영

· 특별출연/이광훈(대금), 정경미(플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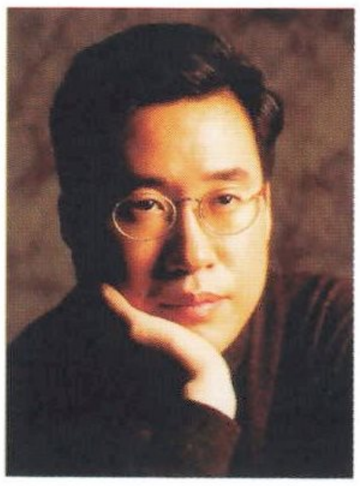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단장 금정미(010-7499-0108)

장형준 피아노 리사이틀

Tales of Black & White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장형준 독주회.

미국 맨하탄음대에서 석, 박사학위를 취득한 장형준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의 독주회와 런던필하모닉, 도쿄필하모닉, KBS 교향악단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김영희(011-9519-0448)

대동윈드오케스트라 제 6회 정기연주회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대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사무직원 등 대동가족들로 결성된 대동윈드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 협연/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입장료 초대

문 의 김동우(017-551-5698)

부산신포니에타 청소년 협주곡의 밤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신포니에타가 청소년 유망주들의 발표무대를 위해 마련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출연/김경연(부산예중 2년), 조양선(부산예고 1년), 정혜진(부산예고 2년), 정보연(부산예고 2년), 김보은(부산예고 2년)

입장료 초대

문 의 김영희(011-9519-0448)

피아니스트 허혜정 리사이틀

1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및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베를린 국립음대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피아니스트 허혜정



은 유럽에서의 독주회와 조인트 콘서트를 통해 작품에 대한 심도있는 해석과 다양한 음색을 가진 연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문 의 초대

입장료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클라드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플루티스트 이동희를 중심으로 창단한 클라드 플루트앙상블은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사랑을 펼쳐나가고 있다.

문 의 초대

입장료 예솔기획(0505-700-9798)

김남순 초청 가야금 독주최

19일 목요일 오후 8:00
글로빌아트홀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의 연주로,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프로그램

김병호류 가야금 긴 산조 전 바탕

황병기/18현금을 위한 '춘설'

· 장고/송강수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2007 부산예고 동문음악회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예고 출신 동문음악인들을 초청, 재학생들과 함께 마련하는 부산예고 동문음악회.

입장료 초대

문 의 예솔기획(0505-700-9798)

교사국악회 그루터기 제 5회 정기연주회

느림, 비움, 그리고 채워짐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2년 전통음악의 전승과 보존에 관심이 있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로 결성된 교사국악회 그루터기의 다섯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평조회상 중 '세령산, 상현도드리', 수연장지곡, 산조춤, 수요남극, 피리독주 '상령산'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 의 김정주(017-569-5771)

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2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김해옥 독주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김해옥(011-859-9822)

비루투오조앙상블 & 뮤즈앙상블 합동연주회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백재진 임병원



바이올린 | Acrylic on Canvas 92*62cm

이 동 철 초 대 전 2007.4.10(화) ~ 4.29(일)

부산 대동고등학교 졸업
계명대학교 서양학과 동대학원졸
개인전 20회(서울, 부산, 대구, 로마, 파리), 단체전 100회
Salon Bagneux '우수상' (1993)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1994)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2004)
전국연극제 '무대미술상' (2005)
정수미술대전 '초대작가상' (2006)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센터 3층
문의: 갤러리 예가(T.624-0933) www.yehga.co.k/한글도메인: 갤러리 예가

갤러리 藝家

1990년대부터 부산의 실내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실내악단인 비루투오조앙상블과 뮤즈앙상블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 연주/백재진, 이은옥, 이성호, 정준수(비루투오조앙상블), 임병원, 박주연, 김판수, 박희철, 손기영, 강덕만, 윤태준(뮤즈앙상블)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학생 할인 40%)

문 의 예솔기획(0505-700-9798)

제 7회 베이스 손욱 독창회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젊은 성악가들의 모임인 아지무스와 아지무스 오페라단을 이끌고 있는 베이스 손욱이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우정출연/소프라노 민수연
· 피아노/이영숙, 최여진

입장료 초대

문 의 손욱(011-9520-4649)

신애정 피아노 독주회

2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한양대학교와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신애정 독주회.

신애정은 미국 카네기홀에서의 독주회를 비롯 국내외에서 모두 9차례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

쇼팽/즉흥곡 작품 29 제 1번
베토벤/소나타 작품 53 제 2번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 의 신애정(011-495-0647)

제 6회 아르스 콰르텟 정기연주회

2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부산시민들과 함께 해온 아르스 콰르텟의 6번째 정기연주회.

· 출연/조현미(바이올린), 이성호(비올라), 하경희(첼로), 유영욱(피아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정희자(011-589-3111)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축하공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26일-28일 목-토요일 오후 7:30,
29일 일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의 정상급 젊은 성악가들이 펼치는 신춘맞이 오페라 무대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베르디 최초의 연애드라마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인다.

· 제작 총감독/임재우
· 출연/소프라노 김행재, 김한나, 테너 전병호, 박찬, 바리톤 김지단, 고영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 의 부산오페라연구소(747-1567)

여성을 위한 행복한 11시 음악회

27일 금요일 오전 11:00
글로빌아트홀



그린샬레 스위스앙상블의 요들송으로 마련되는 엄마랑 아가랑 함께하는 재미있는 요들송.

입장료 일반 7,000원 · 아기 5,000원
엄마랑 아기랑 10,000원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 제 6회 정기연주회

2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1년 앙상블로 출발, 2004년 9월 오케스트라로 거듭난 아마빌레 색소폰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와 자선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해 왔다.

입장료 초대

문 의 박동범(010-7314-4148)

연 극

뮤지컬 코미디 빙고

3월 1일(목)-4월 29일(일) 화 · 목요일 오후 8:00, 수요일 오전 11:30, 오후 8:00, 금요일 오후 8:00, 10:30, 토요일 오후 4:00, 7:00,일 · 공휴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드 그랜드호텔 아트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빙고장을 찾아나선 베테랑 빙고꾼이자 절친한 세 친구의 우정과 화해를 그린 뮤지컬 코미디.

· 연출/이종오 · 음악감독/이홍래

· 출연/이윤표, 김선영, 유채정, 위양호 외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시나위 공연기획단(1588-0511)

2007 제 25회 부산연극제

3월 29일(목)-4월 16일(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시민회관 소극장, 액터스소극장, SH공간소극장

■자유참가작-부두연극단 '19 그리고 80'

3월 29일(목)-4월 2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 작/콜린 히긴스 · 연출/이성규

· 출연/우명희, 구미석, 박혜인, 어주선 외

■경연작-극단 사계 '장미를 삼키다'



2일 월요일 오후 7:30, 3일 화요일 오후 4: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 연쇄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표현주의적 수법으로 그려낸 작품.

· 작/김수미 · 연출/김만중

· 출연/황자미, 구민주, 호민, 김다송 외

■경연작-극단 자유바다 '어머니'

5일 목요일 오후 7:30, 6일 금요일 오후 4: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 우리네 한 많은 어머니들의 애절한 삶을 진솔하게 그려낸 작품.

· 작, 연출/이동희

· 출연/강혜란, 박지영, 권혁철, 장우성 외

■경연작-극단 하늘개인 날 '13월'

8일 일요일 오후 7:30, 9일 월요일 오후 4: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 산골마을에 외부인이 등장하면서 빚어지는 오해와 불신을 냉철하게 그려낸 작품.

· 작/최송림 · 연출/김인덕

· 출연/황창기, 김혜련, 정행심, 원경식 외

■자유참가작-극단 사계 뮤지컬 '프로포즈'



4월 10일(화)-5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 결혼의 가치가 물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풍토를 풍자해 사랑과 결혼의 참된 의미를 묻는 뮤지컬.

· 작/이강백 · 연출/김만중

· 출연/양진억, 황자미, 박정원

■경연작-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삼매경'

11일 수요일 오후 7:30, 12일 목요일 오후 4: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 스스로 고행의 길로 나서서 민중불교를 주창했던 원효대사의 자유정신을 그린 작품.

· 각색/심상교 · 연출/이기원

· 출연/이지훈, 곽정림, 구윤회, 김상호 외

· 입장료/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경연작-극연구집단 시나위
'얼굴없는 피카소'

14일 토요일 오후 7:30, 15일 일요일 오후 4: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 폴란드 남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모티브로,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

· 각색/강태욱 · 연출/오정국

· 출연/박상규, 김혜정, 강태욱, 백길성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19 그리고 80을 제외한 전 공연 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극단 새벽 판놀음 새 허생 이야기

3월 30일(금)-4월 22일(일) 금요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을 모티브로, 오늘날 지식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풍자와 해학으로 새롭게 구성한 '새 허생 이야기'.

· 재구성, 연출/이성민

· 출연/변현주, 이현식, 임태성, 권민증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예매시 10% 할인)

문 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축하공연 아트

3월 31일(토)-4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불어라! 봄바람
부산아쿠아리움 펭귄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기간 : 4/1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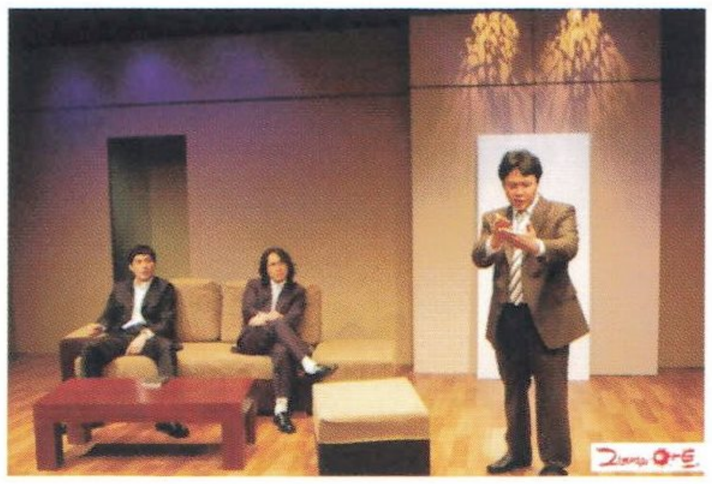
생태계의 신비가 있는 봄의 축제~!
수서생태관에서 만나는
교과서 체험학습

온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의 신비!
병아리 천마리와 함께하는
봄 체험교실

제주도엔 알록달록~ 봄이 활짝~!
바다 속으로 떠나는
제주도 봄나들이

Busan Aquarium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우정을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남성의 내면 세계가 귀여운 세 남자의 속사포 수다속에 펼쳐지는 코미디극 '아트'.

· 출연/송이주, 송요셉, 조경한

입장료 VIP 35,000원 · R석 30,000원
A석 25,000원

문 의 나눔기획(1566-1085)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4월 6일(금)-5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여관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섯 가지 에피소드의 사랑이야기.

· 작, 연출/위성신
· 작사/문희 · 작곡/송시현
· 출연/이지수, 민충석, 라미란, 주현종 외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뮤지컬 지저스 지저스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6:30
시민회관 대극장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세레요한 등 구약의 시대를 지나 예술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의 과정을 그린 창작 뮤지컬.

· 작, 편곡/최성찬 · 연출/홍성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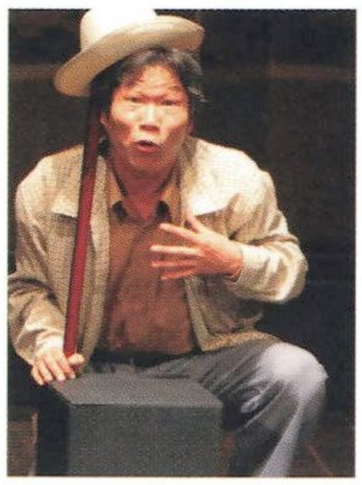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극단 바문사(017-870-8825)

연극쟁이 유순웅의 1인극

염쟁이 유氏

4월 12일(목)-5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소강당



2006년 서울연극제 인기상을 수상한 배우 유순웅의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氏'.

조상 대대로 염을 업으로 살아온 염쟁이 유氏의 일생속에서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작품이다.

· 작/김인경 · 연출/위성신

입장료 균일 25,000원

문 의 (주)코엔(1544-3164)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기획작

손숙의 어머니

13일 금요일 오후 8:00,
14일 토요일 오후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현대사를 거치면서 모진 삶을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들의 회한을 풀어낸 손숙의 '어머니'.

· 작, 연출/이윤택
· 출연/손숙, 하용부, 한갑수, 김미숙 외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A석 (2층) 20,000원
시야제한석 10,000원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힙합넌버벌퍼포먼스

Hip Hip Go D반

13일-14일, 20일-21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7:00
일터 소극장



문제반 학생과 선생이 춤을 통해 화합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힙합 넌버벌퍼포먼스.

킬라몽키즈, 서스틴 크루, 킵더페이스 등 부산 춤꾼들의 환상적인 춤판이 펼쳐진다.

· 기획/차재근 · 연출/심종석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4,000원

문 의 문화소통단체 숨
(808-7134, 011-864-8362)

뮤지컬 동물원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랫말과 편안한 음악으로 사랑받았던 동물원의 음악을 테마로, 90년대를 숨가쁘게 살아온 세대들에게 바치는 사랑과 희망의 창작뮤지컬 '동물원'.

· 출연/홍경민, 김아선, 김도신, 함제범, 신동은, 박수진, 이준휘, 이기영, 김선화

입장료 VIP 55,000원 · R석 50,000원
S석(2층) 4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나눔기획(1566-1085)

극단 전위무대 제 83회 정기공연

아름다운 거리

24일-26일 화-목요일 오후 7:30, 27일 금요일 오후 4:30, 7:30
시민회관 소극장

치열한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덧 사회의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50대 중반의 사랑과 고

뇌, 우정을 그린 작품.

· 작/이만희 · 연출/전승환

· 출연/박현형, 임헌호, 김진욱, 김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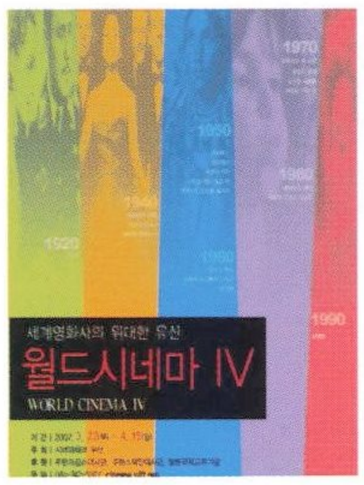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극단 전위무대(582-2026)

영 화

월드시네마 Ⅳ

3월 22일(목)-4월 15일(일) 오전 11:30, 오후 2:00, 4:30, 7:00
(월요일 공연없음) 시네마테크 부산



무성영화시대의 기념비적 작품 '탐욕'에서부터 오스웰즈의 저주받은 걸작 '위대한 앰버슨가', SF의 전설 '블레이드 러너'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의 걸작 20편이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글로빌아트홀 1030 토요영화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글로빌 아트홀

국제 수준의 연주, 녹음홀인 글로빌아트홀에서 대형화면과 좋은 사운드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글로빌 아트홀 토요영화.

상영일정

· 7일 지금 만나러 갑니다

· 14일 매트릭스 1

· 21일 매트릭스 2

· 28일 매트릭스 3

입장료 균일 3,000원 · 2인가족 5,000원
4인가족 10,000원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아 동 극

봄 어린이 연극축제

4월 4일(수)-5월 6일(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예노소극장, 공간소극장

■올커니 할머니의 요리쿡! 과학COOK!

4일-6일 수-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요리를 통해 과학을 재미나게 배우는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극.

· 입장권/균일 20,000원

■가족뮤지컬 '보여요? 안보여요?'

10일-13일 화-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각색한, 신나는 노래와 춤, 마술이 함께하는 가족뮤지컬.

· 입장권/균일 20,000원

■손인형극 '숲속 소방관 코뿔소'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공간소극장

- 숲 속에 불을 낸 사냥꾼에 맞서는 숲 속 소방관 코뿔소의 활약을 그린 손인형극.

· 입장권/균일 12,000원

■막대인형극 '뽐내기 좋아하는 사자 · 바우와 까우까우'

20일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21일 토요일 오후 1:00, 3:00 공간소극장

· 입장권/균일 12,000원

■토끼의 이솝 이야기II

5월 1일-4일 화-금요일 오후 4:00,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공간소극장

- 용궁나라로 여행을 떠난 토끼가 우연히 이솝우화의 동화 속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입장권/균일 12,000원

문 의 (주)코엔(1544-3164)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7일-8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명작동화를 각색, 무대에 올려온 극단 어깨동무가 새롭게 선보이는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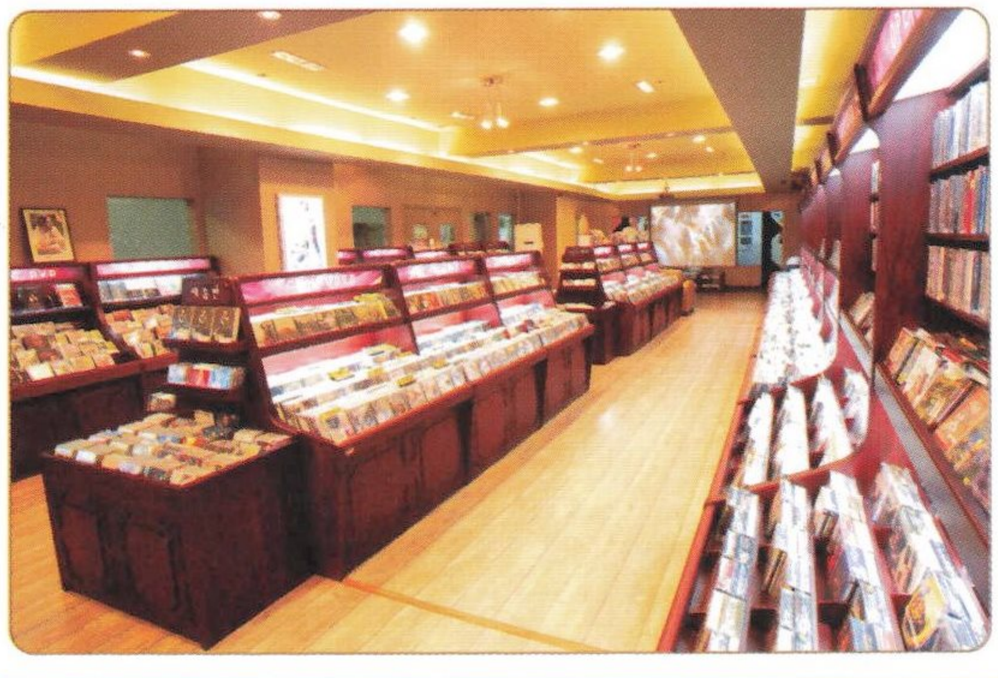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 의 제일기획(557-4277)

2007 춤추는 피터팬

7일-8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을숙도문화회관

피터팬과 요정 팅커벨이 사는 환상의 섬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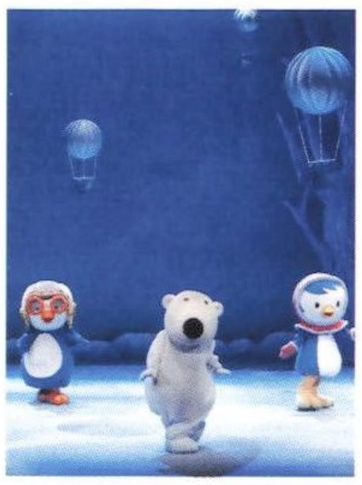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네버랜드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
· 연출/윤여성
· 출연/정영우, 이성하, 백재우, 최세응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 의 두부기획(02-2654-6854)

뽀로로와 별나라 요정

14일-1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시민회관 대극장



뽀로로 마을에 불시착하게 된 별나라 요정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꼬마 펭귄 뽀로로와 친구들이 펼치는 가슴 따뜻한 가족뮤지컬.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A석 20,000원
문 의 SPA엔터테인먼트(760-1166)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20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피노키오의 신나는 모험이 재미있는 마술쇼와 함께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 극본, 연출/오계영
· 출연/박윤미, 김혜원, 이선화, 이국희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00원 할인)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3)

잠자는 숲속의 공주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2일 일요일 오후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공주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왕자를 통해 진실한 사랑을 배우는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이제희
· 출연/이종은, 정이선, 박재범, 조소영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예매 10,000원)
문 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매직쇼 피노키오

26일-27일 목-금요일 오전 9:40, 11:00,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인형 피노키오와 떠나는 신나는 모험여행.
· 출연/이정민, 박소희, 정인지, 박인현 외
입장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A석 15,000원
문 의 동방뮤지컬컴퍼니(02-712-3865)

브레멘 두드리 음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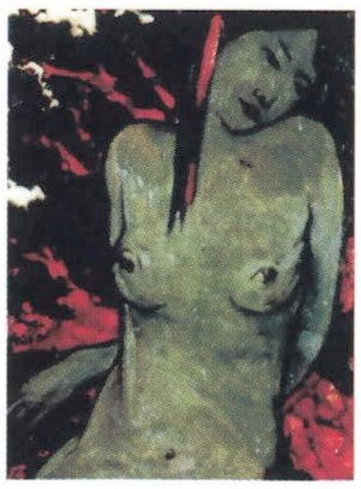
28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29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그림형제의 '브레멘 음악대'를 우리의 신명나는 타악퍼포먼스와 결합시킨 가족뮤지컬.
· 연출/김한울
· 출연/유용경, 김서희, 채길병, 김복규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 의 심인뮤지컬컴퍼니(02-304-2690)

전 시

김원 회고전

2월 28일(수)-5월 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1955년 부산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후 반세기 동안 부산미술을 지켜온 부산 현대미술의 산 역사인 파춘 김원 선생 화업 60년을 결산하는 회고전.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그리운 땅, 그리운 사람-평양

3월 20일(화)-6월 10일(일)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평양의 사적지와 근대풍경을 담은 사진 32점이 전시된다.
· 관람시간/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문 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2008 A. U. Ready? 유망작가 발굴전 강혜선 개인전

3월 24일(토)-4월 10일(화)
오픈스페이스 배

문 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헤르만 헤세 탄생 130주년 기념 특별전

3월 29일(목)-6월 3일(일)
부산박물관

· 개관시간/오전 9:30~오후 6:00 (월요일 휴관)
문 의 일반 7,000원 · 학생 5,000원
입장료 (주)아모르FX엔터테인먼트 (621-4634)

도태근 기획초대전

4월 5일(목)-4월 18일(수)
김재선갤러리

문 의 김재선갤러리(731-54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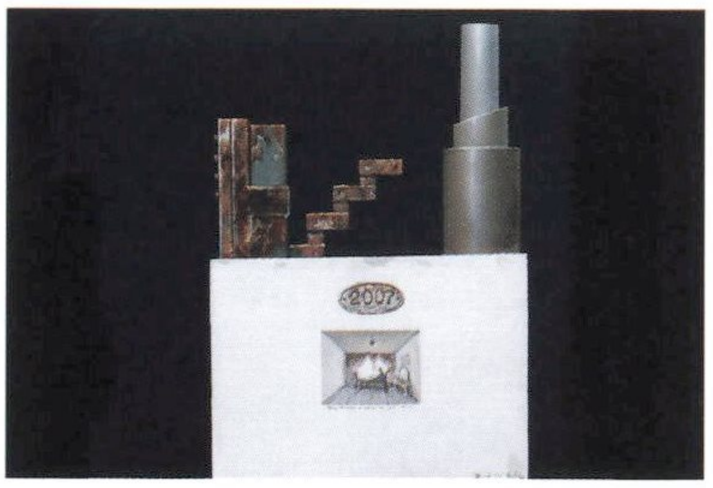
김봉석 전각전 '千佛化現'

4월 10일(화)-4월 15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이동철 초대전

4월 10일(화)-4월 29일(일)
갤러리 예가



프랑스 파리와 대구, 구미 등에서 화업을 펼쳐온 작가 이동철이 7년만에 갖는 부산전.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추지영 개인전 우리들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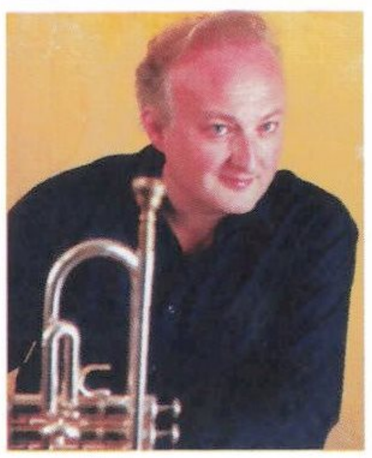
4월 25일(수)-5월 1일(목)
용두산미술전시관

문 의 용두산미술관(244-8228)

Recommended Performance in April

Eric Aubier Trumpet Concert

5th(Thu) 8:00p.m. Busan Citizen Hall Main Theater



Aubier is a worldwide trumpet player, who is said to be a true successor of Maurice Andre. Especially Aubier is famous for his own rhythmic sense, phrasing and sensibility.

Program

Tartini /Trumpet Concerto

Hummel /Trumpet Concerto Eb major

Vivaldi/Concerto For 2 Trumpets, Strings & Basso Continuo In C Major, RV.537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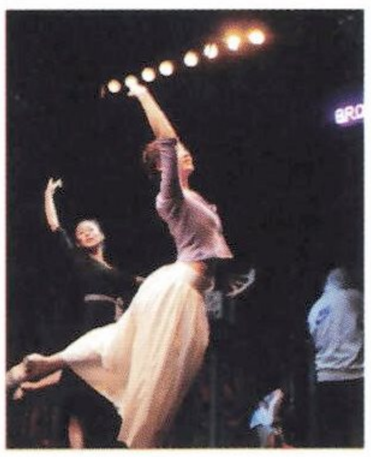
- Co-play/Laurel Symphony Orchestra (con./Yu Sejong)

Ticket : VIP 70,000Won · R 50,000Won · S 30,000Won
A 20,000Won

For More detail : 632-6904

The Epicenter of B-boy Syndrome in Korea 'Musical Ballerina who Loved B-boy' Season 1

7th(Sat) 4:00, 7:00p.m. 8th(Sun) 3:00, 6:0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Since this work was shown to us, not only it has made many fans for B-boy dance but also it has provoked B-boy syndrome as a kind of non verbal performance.

This time we can enjoy the original version. It is made up of Gorilla Crew(Able Crew & Brooklyn Monkeys), which demonstrated its ability in various worldwide B-boy competitions.

- Director/ Mun Jucheol
- Dance composition/Kim Useong, Han Sangmin, Gorilla Crew (Able Crew, Brooklyn Monkeys)

Ticket : R 50,000Won · S 40,000Won

For More detail : 1644-4484, www.anticket.co.kr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Legend of German 'Richard Wilhelm Wagner'

10th(Tue)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is for great Composer Wagner. You can appreciate dramatic music of Wagner by principal conductor Alexander Anissimov, pianist Gwon Seok Ran and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After the performance, they are arranging this performance for Orchestra Festival 2007 in Seoul Arts Centers and presenting profound music of Wagner for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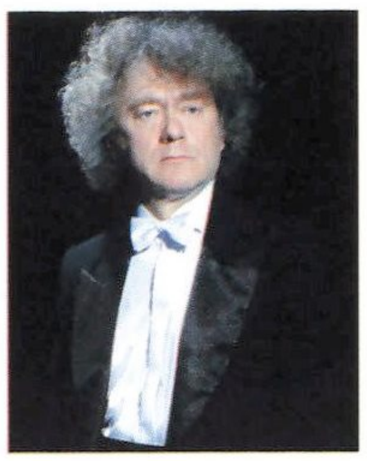
Program

N.Rimsky-Korsakov/The Legend of the Invisible City of Kitezh and the Maiden Fevroniya' Suite

S. Rachmaninov/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in a minor op.43

R. Wagner/ 'Prelude' and 'Final Scene' from 'Tristan und Isolde'

R. Wagner/Overture to 'Tannhaus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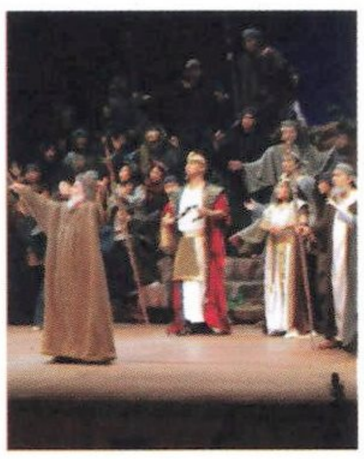
- Conduct/Alexander Anissimov
- Piano/Gwon SeokRan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 : 607-6101

Opera of Rossini 'Mose' by Onnuri Opera Company

14th(Sat)-17(Tue)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is an encore concert for opera fans by Onnuri Opera Company founded for publicity of opera and beautiful cultural mission. This story is well known for an historical anecdote about Mose. Because of the huge size of stage and participants, it is hard to meet it. So it is a good chance to appreciate Mose as an opera of Rossini.

- Honorary director/ An Min
- General and art direct/Lee Hongkil
- Cconduct/Park Jonghwi • Direct/Kim Seongkyeng
- Orchestra/In Korea Symphony Orchestra

Ticket : VIP 100,000Won · R 70,000Won · S 50,000Won
A 40,000Won · B 30,000Won

For More detail : 517-6091, 011-839-1084

Myung-Wha Chung Cello Recital

19th(Thu)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Chung Myungwha has performed in a great variety of stages as a world-acclaimed cellist since her performance earned her a winner in Geneva International Music Concours in 1971. Chung has offered graceful expressions and comfortable techniques. And now Chung's music seems to get more and more deep and profound.

Program

P. Locatelli/Sonata d-major

P. Hindemith /Sonata op.25 No.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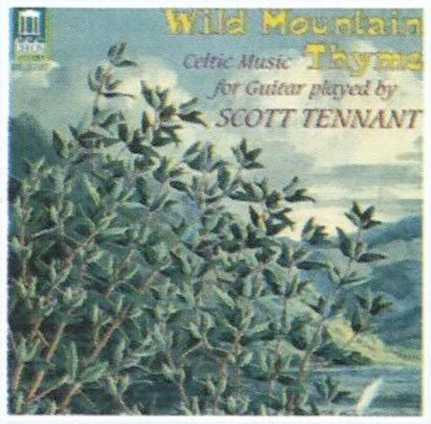
J. Brahms/Sonata f-major op.99 etc.

Ticket : VIP 100,000Won · R 70,000Won · S 50,000Won
A 30,000Won · Student 20,000Won

For More detail : 582-2026

소품(小品, piece)의 세계6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영국작곡가 존 다울랜드의 '팬시'가 수록된 류트곡집.

3. 환상곡(Fantasy):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작곡된 악곡을 이르는 용어이긴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1) 16, 17세기에는 대위법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켰던 리체르카레(ricercare)와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작품을 환상곡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후세에 비해서 환상성은 결핍되어 있었다. 처음엔 주로 류트 작품에서 사용됐고, 1580년부터는 건반악기를 위한 작품에도 도입됐다. 17세기, 영국에서는 갖가지 환상곡이 작곡되었는데, 기악합주로 연주되는 환상곡을 '팬시(fancy)'라고 불렀다.

2) 마치 즉흥연주를 악보에 그대로 옮긴 것처럼 즉흥성이 대단히 강한 작품을 환상곡이라고 부른다. 바흐의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모차르트의 '환상곡 K.397 라단조'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3) 19세기의 성격적 소품으로 몽상적이고 환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12'와 브람스의 '환상곡집 작품 116' 등이 또 하나의 환상곡으로 구분된다.

4. 카프리치오(Capriccio):바로크 시대까지만 해도 카프리치오와 판타지는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던 용어이다. 대체로 2가지 범주로 카프리치오를 구분한다.

1) 카프리치오:멘델스존, 브람스 등 19세기 작곡가들이 유쾌하고 변덕스러운 작은 기악곡에 카프리치오라는 제목을 달았다.

2) 17세기엔 초기 푸가 형식의 하나로서 다른 종류의 악곡에 비해서 형식에서 자유로운 음악이었다.

프레스코발디(G. Frescobaldi, 1583~1643, 伊), 프로베르거(J.Froberger, 1616~1667, 獨) 등의 작품에서 카프리치오가 발견된다. 바흐도 '여행 떠나는 사랑하는 형을 생각하는 카프리치오'라는 작품을 썼다. 물론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풍부한 작품이다. 카프리치오는 악곡의 성격으로 보아서 환상곡과 흡사한 악곡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밀러(Hugh M. Miller)는 환상곡과 카프리치오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있다.

5. 성격적 소품(Character piece):19세기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피아노 음악에서 성격적 소품이 주로 작곡되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아라베스크(Arabesque), 바가텔(Bagatelle), 즉흥곡(Impromptu), 발라드(Ballade), 악흥의 순간(Moment musicaux), 카프리스(Caprice), 환상곡(Fantasia), 간주곡(Intermezzo), 녹턴(Nocturn), 노벨레테(Novelette), 라프소디(Rhapsody), 로맨스(Romance, Romanza), 무언가(Song without words) 등이 성격적 소품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품들은 표제적인 것은 아니고 악곡의 장르가 곧 작품명으로 자리 잡은 예이다. 성격적 소품엔 표제악적인 작품도 많아서 슈만의 '나비', 라벨의 '물의 유희', 드뷔시의 '달빛' '갈색 머리의 소녀' 등이 있다.



열띤 찬사를 받고 있는 로저 노링턴의 말러와 베를리오즈!
말러 교향곡 제 5번 올림 다장조

로저 노링턴(지휘), 슈투트가르트 SWR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노링턴이 비브라토를 제거한 현과 1900년대로 회귀한 좌우 양익형 악단 배치를 말러 연주에도 도입했을 때 그 효과에 적지않은 의구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5번은 지금까지의 의구심을 일소에 해소하는 새로운 명연이다. 특히 노-비브라토 사운드는 아다지에토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노링턴의 아다지에토는 퇴폐적 감미로움이 아닌 맑은 물의 청량함으로 이를 승화시킨다. 전체적으로도 노링턴은 투명한 사운드와 생생한 디테일을 추구하지만, 정열적인 파워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자유로운 템포를 통해 곡의 흐름을 시원스레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놀랍다. 이 녹음의 에디터에게 피날레 후에 들리는 환호성의 첨가는 결코 편집상의 수사가 아닌 정언적 명령이었을 것이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가장 위대한 작품 100곡 〈베스트 바흐 100〉

미사 B단조, 마태 수난곡, 토카타와 푸가 D단조, 무반주 첼로 모음곡, 관현악 모음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음악의 헌정, 예수 인간소망의 기쁨, 칸타타 140번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등 바흐의 인기곡이 총 망라되어 있다. 특히 이 음반은 필립 헤르베헤, 파비오 비온디, 지기스발트 쿠이겐, 밥 반 아스페렌, 모니카 허젯, 조르디 사발, 톤 쿠프만, 구스타프 레온하르트 등 바흐 전문가들의 명연들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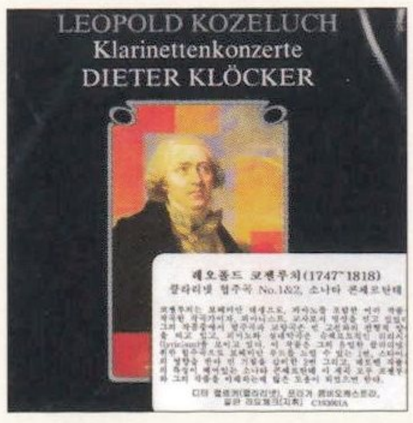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와 가곡 프로젝트 4탄!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피아니스트), 이안 보스트리지(테너)

지난 2월 13일 감동적인 내한공연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새 음반. 최정상의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와 우리시대 최고의 가곡가수 이안 보스트리지가 함께 만든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와 가곡 시리즈 제4탄이다.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와 가곡시리즈는 슈베르트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를 가곡과 연결하여 작품속에 숨겨진 음악적 영감을 재발견하는 시리즈로 화제를 모았던 것으로, 피아노 소나타 20번을 담은 1탄, 17번을 담은 2탄, 21번을 담은 3탄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 왔으며, 이 음반을 마지막으로 시리즈는 끝을 맺는다.

이번 4탄에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9번과 가곡 〈하프 타는 노인의 노래〉, 〈무덤 파는 일꾼의 향수〉, 그리고 귀중한 미완성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다.



레오폴드 코젤루치 클라리넷 협주곡 제 1번, 2번, 소나타 콘체르탄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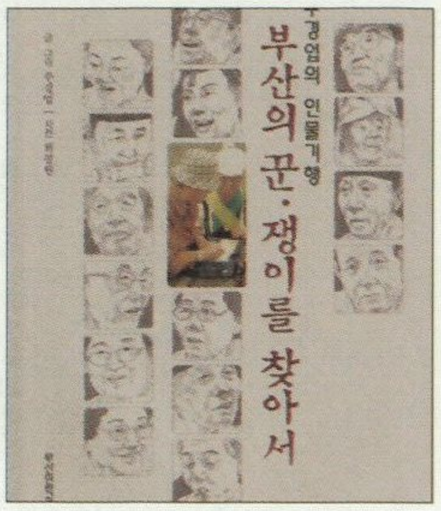
지휘:밀란 라요체크, 연주:디터 클뢰커(클라리넷), 프라거 챔버오케스트라

레오폴드 코젤루치는 보헤미안 출신자로서 음악활동은 그리 길지 않지만 피아노를 포함한 여러 작품을 작곡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교사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의 작품중에서 협주곡과 교향곡은 빈 고전파의 전형적 양식을 띠고 있으며, 피아노와 실내악곡은 슈베르트적인 리리시즘(lyricism)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유일한 클라리넷을 위한 협주곡으로 보헤미안 무드를 느낄 수 있는 1번, 스타미츠의 영향을 받아 빈 기질을 감미한 2번 그리고, 베토벤 작품들의 특징이 베어있는 소나타 콘체르탄테 등 세곡으로, 코젤루치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부산의 꾼 · 쟁이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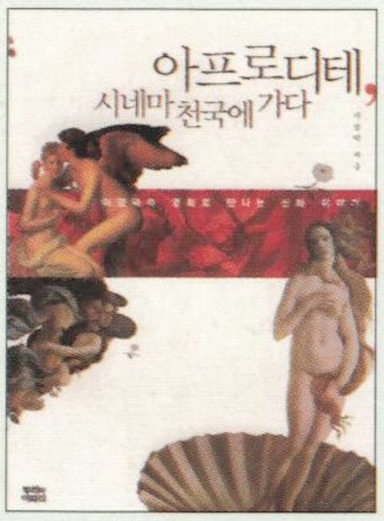
주경업 글 · 그림 / 부산민학회 / 474p / 18,000원



전통문화에서 그림의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전국의 춤판, 소리판, 굿판, 놀이판 등 민속현장을 찾아 그림으로 재현하며 예능과 기능을 가진 어른들을 만나 그들의 전통예술세계와 삶을 기록해 온 주경업 부산민학회 회장의 부산의 꿈과 쟁이들을 찾아 나섰던 발걸음이 드디어 책으로 엮어졌다. 2005년 9월부터 약 5개월 간 부산일보에 연재된 '화가 주경업이 만난 부산의 꾼 · 쟁이들'에 살을 붙여 묶어낸 책이다. 저자가 만난 '꾼과 쟁이'들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 돈 안 되고 박수 치는 사람 없는 일을 묵묵히 꿋꿋하게 하는 사람들, 제가 좋아서 선택한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으면서 후회없이 살아오는 사람들 등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부터 뒷골목 이발사까지 모두 28명이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우직한 삶의 굼뜬 느림'이야말로 '우리 전통문화를 지켜온 힘'이라 말하는 주경업 회장 역시 이 시대의 진정한 꾼이며, 쟁이가 아닐까. 저자가 직접 펜으로 그린 28명의 인물화는 대상과 수 십 년간 나눈 친분이 느껴진다. 사진보다 더 정겨울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 펜화만으로도 인물자료사적 가치가 있다.

아프로디테, 시네마 천국에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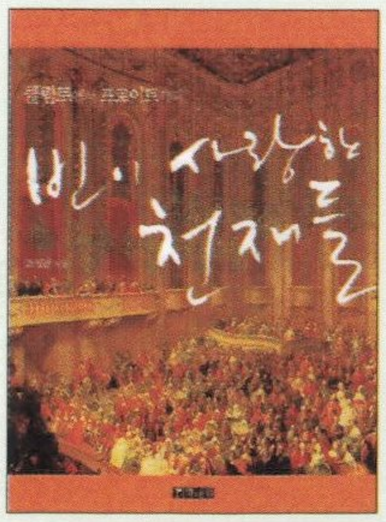
이경덕 지음 / 뿌리와 이파리 / 299p / 13,000원



〈신화 읽어주는 남자〉, 〈하룻밤에 읽는 그리스 신화〉 등의 저작을 내며 오랜 기간 꾸준히 신화 관련 작업을 해온 이경덕 씨가 이번에는 '영화로 보는 신화, 신화로 보는 영화'를 들려준다. '신화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현대의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영화'라고 보는 저자는 이 책에서 '영화'와 '신화'의 만남을 주선하고, 영화 속에서 신화가 내포하고 있는 은유와 상징을 풀어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영화'는 '신화'를 이해하기 위한 소재 그 이상이다. 그 자체가 현대판 신화이며, '원체험'인 신화가 오랜 세월을 거듭해 반복되고 있는 '추체험'의 세계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렇게 고대의 신화와 현대의 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삶의 원형에 대한 풍성한 이야깃거리들을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로 전달한다. 〈음란서생〉에서 아프로디테를,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중국신화를 매개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무극〉에서 오이디푸스의 삶을 빌려 인간의 운명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책은 신화와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삶의 비밀과 지혜를 발견하기 쉽도록 시간의 유한성과 기억, 욕망, 비밀, 사랑, 운명, 축제와 의례, 영원 회귀의 삶 등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빈이 사랑한 천재들

조성관 지음 / 열대림 / 263p / 16,000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중심지로 프랑스 파리를 떠올리지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역시 파리 못지않게 수많은 거장들을 탄생시킨 문화와 예술의 도시다. 이 책은 빈을 무대로 절정의 삶을 살았던 여섯 명의 천재들, 에로티시즘의 화가 클림트부터 정신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 비운의 음악가 모차르트와 베토벤, 선구적 건축가 아돌프 로스와 오토 바그너까지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과 그 성취를 통해 빈을 재발견하는 낭만적인 빈 문화기행서이다. 불과 90여 년 전 벌거벗은 모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클림트의 마지막 아틀리에, 수많은 환자가 방문하고 치료를 받았던 프로이트 박물관의 진료실과 대기실, 모차르트와 콘스탄체가 사랑에 빠졌던 하숙집 베버하우스, 자연에서 위안과 영감을 얻었던 베토벤의 아름다운 산책길, 당대에는 혹평과 비난에 시달렸지만 당당하고 고고하게 빈의 심장부를 지키고 있는 아돌프 로스의 로스하우스, 요제프 황제를 위해 설계한 멋스러운 지하철 역사 오토 바그너의 호프파빌론. 아름다운 도시 빈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뜨거운 예술혼을 불태운 거장들의 삶의 흔적을 속속들이 찾아 떠나보는 역사서이며 여행의 기록이다.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코너 머피 아일랜드 대사 부산문화회관 방문



지난 3월 9일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8회 정기연주회에서 협연한 아일랜드 출신의 피아니스트 핀인 콜린스의 연주에 맞추어 아일랜드 대사 코너 머피가 부산문화회관을 방문했다.

초록색과 흑맥주로 연상되는 서유럽의 아일랜드는 유쾌한 국민성과 독특한 문화로 유명하다.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너 머피 대사는 영국 중심 지역인 브리튼과 아일랜드의 관계가 일제 식민시대 일본과 우리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역사를 이야기하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과 심수봉이 함께 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 대 성황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2번째 무대가 3월 16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펼쳐졌다.

다양한 색깔로 변화를 주는 립스틱을 음악회 이름으로 내세운 만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시도되지 못한 음악적인 시도로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립스틱 콘서트를 위해 부산을 찾은 심수봉은 그의 음악인생에서 처음으로 국악관현악 반주로 노래한 라이브 무대에 만족하며 부산 음악팬들에게 그의 매력이 넘치는 사랑밖에 난 몰라, 백만송이 장미 등 히트곡을 선사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 2007 교향악축제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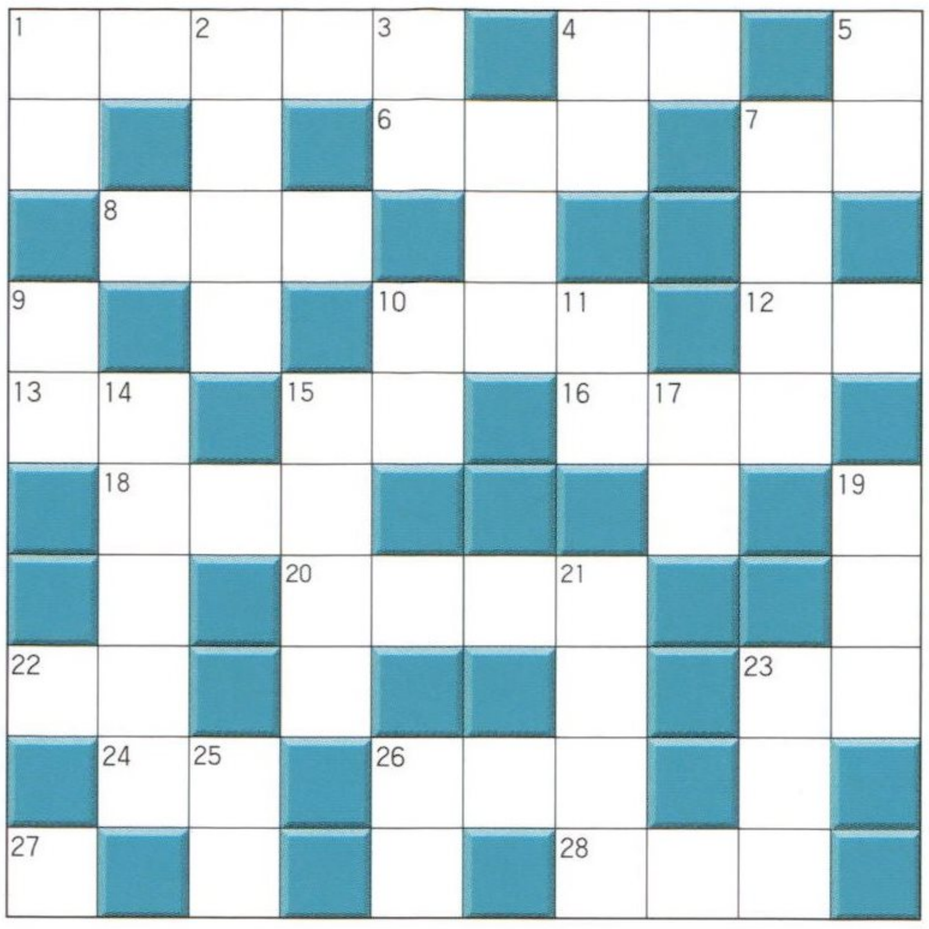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국내 최대의 음악축제인 '2007 교향악축제'에 참가, 4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한다.

4월 1일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모두 21개의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2007 교향악축제'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의 지휘로 교향악축제의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 권석란을 협연자로 맞아 서울 연주를 갖는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발퀴레〉, 〈트리스탄과 이졸데〉, 〈탄호이저〉 등 바그너의 대표적인 극음악들 중에서 관현악곡들을 이어서 연주하며, 자주 연주되지 않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보이지 않는 도시 키테쥐와 성녀 페브로니야의 전설〉 모음곡을 들려 준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문제

1. 3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펼쳐지는 부산연극인들의 최대축제.
4. 백제의 유적지가 남아있는 충청남도 군청 소재지.
6. 지상에서 가장 슬픈 곡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샤콘느' 의 작곡가.
7. 에스키모가 사용하는 가죽 배. 대개 한 사람이 타도록 되어 있으며 여름에 바다에서 사냥을 할 때에 주로 쓴다.
8. 1971년 영화 '당산대형'에 출연하여 크게 인기를 얻은 후 '정무문', '용쟁호투' 등의 영화에 출연, 중국인의 강한 이미지를 서양인에게 심어주었던 영화배우.
10. 러시아의 대표적인 술. 알코올 40~60%로 무색투명하고 무미.
12. 경마나 무희, 욕탕에 들어가거나 나오려는 여성의 한 순간의 동작을 즐겨 그렸던 프랑스의 화가. 대표작으로 압생트, 대야 등이 있다.
13. 인도에서부터 전해오는 심신 단련법의 하나.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 고려 말의 문신, 학자. 호는 목은(牧隱)으로,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김구용, 정몽주 등과 강론, 성리학 발전에 공헌했다.
16.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에서부터 시베리아 북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북부에 걸쳐 북극해 연안에 분포하는 넓은 벌판. 연중 대부분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18. 작가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조선 시대의 우화 소설. 장끼 남편을 잃은 까투리의 개가(改嫁) 문제를 통해 당시 사회 제도를 풍자한 작품.
20. 이집트 제 18왕조 제 12대 왕. 18세에 요절하여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나 '왕가의 계곡'에 있는 왕묘가 발굴되면서 유명해졌다.
22. 죽도(竹刀)로 상대편을 치거나 찔러서 얻은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운동 경기.
23.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의 협찬 여행사.
24. 부부가 혼인하여 함께 맞는 예순 돌 되는 날. 또는 그해.
26. 노 로고(No Logo), 노 디자인(No Design)의 줄임말로 장식과 과시에 집착하는 대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명품을 즐기는 계층을 일컫는 말.
28. 영국의 세계적인 4인조 록그룹 비틀스의 중심멤버로 활약하다 1980년 뉴욕에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세로문제

1. 정월 대보름날 깨물어 먹는 땅콩, 호두, 잣, 밤, 은행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보장왕 3년(644)에 당 태종의 17만 대군을 안시성에서 격파한 고구려의 장군.
3.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의 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우리나라에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다 가을에 날아가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철새.
4. 북경 중앙 연극학원 시절 장이모우 감독에게 발탁되어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세계적인 여배우의 반열에 들어선 중국 배우.
5.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코데인, 페티딘 따위가 있다.
7.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예언자. 예언의 신이기도 한 아폴론이 구애하자, 사랑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으나 예언 능력만 전해 받고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성난 아폴론은 아무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않게 하였다.
9. 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이나 심리를 표현한 정형시. 또는 거기에 곡을 붙여 부르는 노래.
10. 다른 색상의 두 빛깔이 섞여 하양이나 검정이 될 때, 이 두 빛깔을 서로 이르는 말.
11.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한 컷짜리 만화.
14. 고대 민속적, 종교적 제례 때와 그리스, 로마시대 당시 배우들이 가면이나 동물의 머리 등을 쓴 데서 비롯된 것으로, 가면을 쓰고 특이한 분장으로 춤을 추는 사교 모임.
15.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으로, 강인한 성격의 함경도 사람을 이르는 말,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서양 타악기의 하나. 짧은 원통형의 금속 동체의 양쪽에 가죽을 팽팽하게 대고 두 개 또는 한 개의 채로 친다.
19. 회심곡으로 유명한 경기 민요의 명창.
21. 고전주의 낭만파 음악의 대작곡가라는 명성과 함께 수많은 작품을 남긴 독일 작곡가. 대표곡으로 한여름밤의 꿈, 이탈리아 교향곡, 안티고네 등이 있다.
23. 1958년부터 시작된 정부군과 반군과의 길고긴 내전과 1970년 이후 30년이 넘도록 계속된 팔레스타인, 이슬람교 게릴라들과 이스라엘과의 무장투쟁 등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아시아 지중해 동쪽 해안에 면한 아랍국가.
25. 수영에서, 한 선수가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의 각 영법으로 같은 거리를 차례로 이어서 헤엄치는 경영(競泳) 종목.
26. 중국 고대의 철학자, 도가(道家)의 창시자.
27. 국악기 중 죽부(竹部)에 속하는 공명악기. 젓대, 대금.

지난호 정답

지			오	륜		이	글	루	
신	데	렐	라			은		소	호
밟			토	정	비	결			치
기		발	리		나		비	타	민
	구		오	카	리	나		지	
세	노	야		메			오	마	주
익		수		오	광	대		할	
스		파	이		개		피		윤
피				유	토	피	아		이
어	부	지	리		왕		노	벨	상

■ 산마루곰터(구.돈방불패)
김민승(부산진구 연지동)
박봉철(동구 수정1동)
정은경(동래구 온천1동)
하민혁(사하구 하단2동)
신인혜(해운대구 우2동)

■ 가마골 소극장 초대권
박세움(영도구 동삼1동)
김호은(서구 서대신동1가)
주다인(동래구 온천3동)
이경란(서구 암남동)
유분조(해운대구 반여2동)

■ 큰집 식사권
신상도(영도구 청학1동)
이상호(연제구 연산동)
이상남(사하구 장림2동)
최정운(금정구 부곡동)
이서현(연제구 연산9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유승민(북구 화명동)
황정민(연제구 연산5동)
황정애(수영구 광안4동)
서수경(부산진구 양정1동)
김최보리(남구 용호3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산마루 곰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4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호성과 심수봉이 함께하는 '팝스틱 콘서트'

고전이라는 국악의 하나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모두는 함께라는
두루 두루의 어울림 속에서 대중가요와의 어우러짐으로
우리는 새로움이라는 신비한 감동을 내면 가득히 엔돌핀으로 가지고 돌아온 즐거운 그날이었습니다.
다음 또 올 어울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 김병수

뮤지컬 코미디 '빙고'

난생 처음 접하는 뮤지컬에 기대 반, 우려 반.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 짜임새있는 줄거리, 배우들의 열정과 실력에 금세 빠져들어
90분이 언제 다 흘렀는지도 몰랐다. 무대와 객석이 함께 호흡한 정말 재밌고 유쾌한 공연이었다.
뮤지컬? 난 무조건 다시 볼 것이다!!^.　- 노은영

하녀들 for men

잠시 살펴 본 소개에서 컬트적이면서도 뭔가 꼬여있는 느낌.
꼭 등장 인물들이 남자 하녀라서 이기 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독을 탄 커피로 갈망하던 마담을 죽이려 하지만, 결국은 쏠레르가 마시게 되고,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원하던 것으로부터 멀어진다.
사랑과 증오 그 가운데쯤에 선 두 사람.
정말로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했던 걸까?　- 이은숙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 후기를 보내주신 분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과 함께 한 3월 테마여행

장생포 고래박물관으로 떠난 이른 봄 나들이







기나긴 겨울 끝자락이지만 자연은 쉬이 찬란한 봄을 허락하지 않는다. 3월 9일 봄나들이라는 설렘을 가득 안고 출발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봄을 준비하는 산과 바다, 대지의 너른 품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값진 하루였다.

여행 출발지인 부산문화회관에 모인 정기회원 가족은 모두 39명. 부산시립합창단 앨토 김미경씨와 테너 김창돈 씨와 함께 한다는 여행의 기쁨 때문인지 회원들의 얼굴은 상기되었다.

부산에서 한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장생포 고래박물관(관장 김순철)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고래를 테마로 한 이색박물관이다. 1986년 상업포경이 금지된 이후 사라져 가는 포경유물을 수집하고 전시, 보존함으로써 포경역사를 재조명하여 선사시대부터 전해져 오던 고래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005년 개관, 5월로 개관 2년을 맞는 고래박물관은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장생포 항의 중심에 위치한 것도 그렇지만 고래를 닮은 건물외형과 고래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 포경선, 어린이 체험관 등이 갖추어져 있어 방문객의 눈길을 끈다.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고래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하나 둘 알게 되면서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아니었다면 고래박물관을 모르고 지나쳤으리라는 회원들의 찬사가 계속되었다. 테마여행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고

래박물관 입구를 장식한 반구대암각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선사시대 사람의 생활과 풍습을 알 수 있는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구대암각화지만 그동안 암각화의 그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사람이 없었을 터. 자원봉사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서야 암각화속에서 새끼 고래를 엎고 가는 귀신고래의 모습, 포경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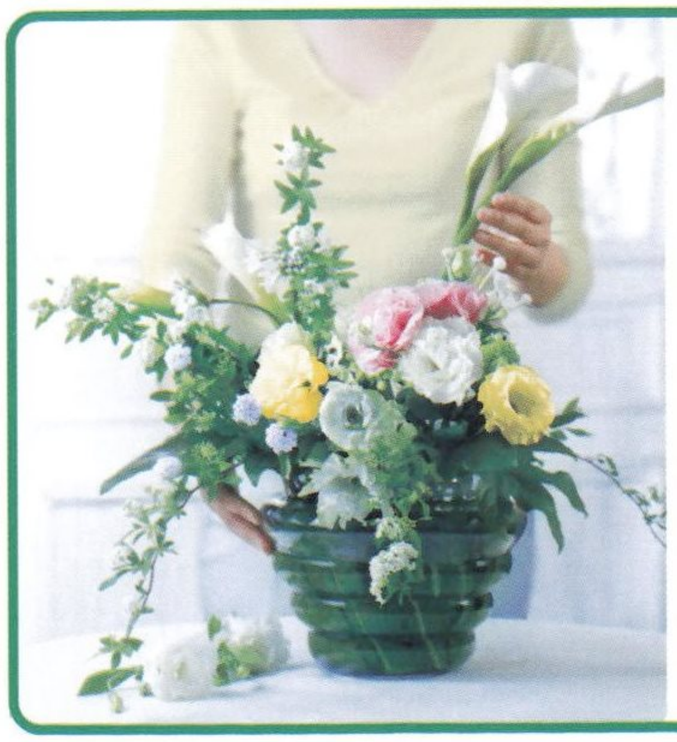
한시간 남짓 고래박물관을 돌아본 뒤 3월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작은 음악회 시간을 가졌다. 고래 뱃속을 모형으로 만든 '고래 뱃속 길'에서 즉석 무대가 만들어 졌다. 그리운 금강산과 청산에 살리라, 친구 등 귀에 익은 우리 가곡과 가요가 이어졌다.

회원들의 요청으로 포경선에서 2부 무대가 이어졌다. 3월 바닷바람을 맞으면 '향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을 열창한 김미경, 김창돈 두 성악가를 향해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3월의 어느 멋진 날을 함께 한 회원들에게 봄이 성큼 다가왔다.

■도움주신곳 : 장생포고래박물관(www.whalemuseum.go.kr, 052-226-2809)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유일의 심야꽃집

24시 꽃백화점
(전국꽃배달서비스)

소중한 내마음을 24시간 배달해 드립니다.

고급장미 · 슈퍼장미 / 100송이꽃 포장전문점 / 경조화환 · 꽃바구니 동,서양란 · 관엽

*대연동 유연로타리 문화회관 박물관 맞은편

TEL : 051-625-1665 / 무료전화 : 080-240-7979

FAX : 051-625-1664 / H · P : 010-6676-1665

· 부산은행 : 030-12-040646-0 · 예금주 : 최동윤

· 농 협 : 943-02-225001 · 예금주 : 강자인

24시 전국 꽃배달 전문점 꽃 심야 꽃배달 전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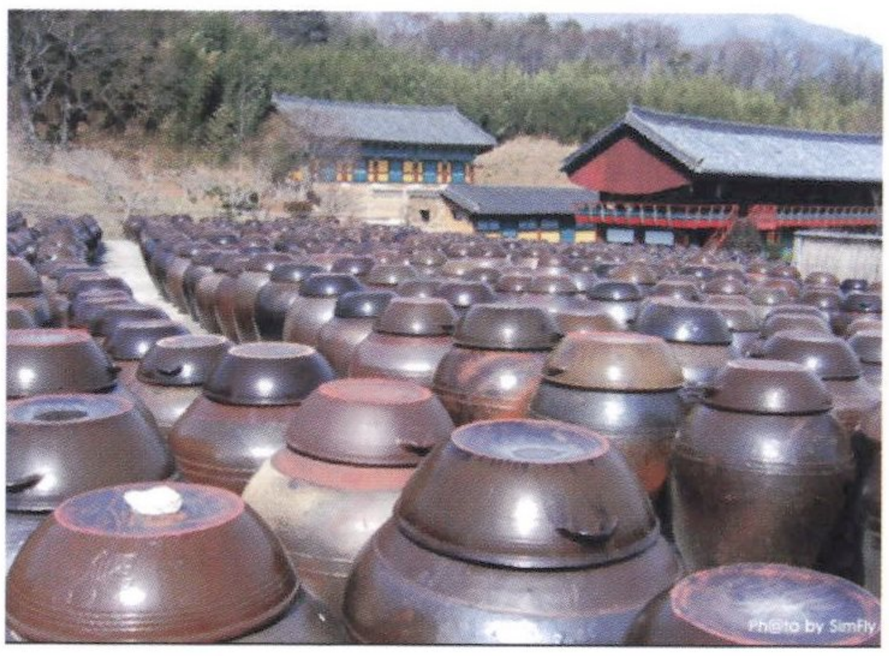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5월 11일 금요일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떠나는 자연여행

국내 최대의 자연늪지인 우포늪 생태탐방과 그릑꿈는집의 도자기 공예체험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10:00 우포늪 생태 탐방
12:00 점심식사
13:00 그릑꿈는집 도자기 공예체험
15:30 창녕출발
17:00 부산문화회관 도착예정



▶ 6월 8일 금요일
부산항 탐방 및 통도사 서운암 들꽃 기행

부산의 재발견! 부산항에서 경험하는 작은 음악회. 싱그러운 초여름 들꽃의 향연과 함께 하는 서운암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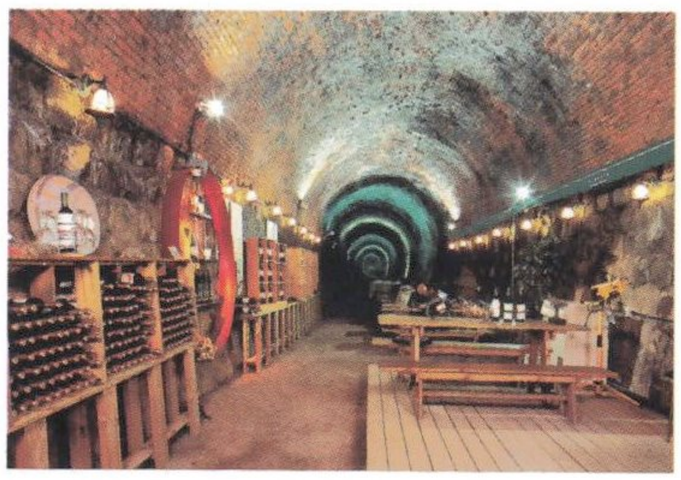
10:00 부산문화회관 집결
11:00 부산항만안내선 승선, 부산항 탐방
12:40 점심 식사
13:40 서운암 도착
16:00 양산 출발
17:30 부산 문화회관 도착예정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4월 당첨자

▶ 4월 13일 (금)
청도 명물 감과 함께하는 체험여행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황귀진(서구 동대신동1가)
조효정(금정구 남산동)
서정진(기장군 기장읍)
이기진(김해시 삼계동)
박옥심(사하구 당리동)
강해자(사하구 당리동)
백성옥(사하구 다대동)
안화진(사하구 장림2동)
양희정(사하구 감천1동)
성애숙(사하구 감천1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박영기(수영구 망미1동)
이준엽(남구 감만1동)
정영호(금정구 서2동)
서옥엽(동래구 안락1동)
탁정미(동구 수정동)
곽미영(남구 대연5동)
송연진(해운대구 우1동)
김성화(북구 화명동)
이순행(해운대구 우1동)
백환진(사상구 주례3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7년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공연 일정

▶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2. 8(목) 11:00
지휘/금난새 협연/김영희(바이올린, 부산대 교수)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박호성과 심수봉이 만나는 11시 립스틱 콘서트** 3. 16(금) 11:00
지휘/박호성 협연/심수봉, 최의옥, 안주희, 방병원, 박성희, 정선희
연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5. 18(금) 11:00
지휘/금난새 협연/이성주(바이올린)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박호성과 만나는 11시 해피 콘서트** 6. 8(금) 11:00
지휘/박호성 협연/대중가수, 국악인
연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 22(수) 11:00/16:00
지휘/금난새 협연/박혜령(마림바)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박호성과 만나는 11시 토크 콘서트** 10. 5(금) 11:00
지휘/박호성 협연/저명인사와 국악인 출연(토크 형식)
연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12. 6(목) 11:00
지휘/금난새 협연/백재진(바이올린, 동의대 교수)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공연 · 예약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42 www.bsculture.busan.kr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입 장 권 균일 15,000원
- 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부산은행 티켓365 http://www.ticket365.co.kr 1588-2528, 부산은행 전지점

할 인
- 정기회원 : 홍보부에 예약 후 계좌입금회원에 한하여 30% 할인 (1인 4매)
- 단체관람 : 30명 이상 단체신청시 10% 할인 (1인 4매)

즐겁고 신나는여행 투어펀의 4월 여행이야기



"황금돼지해"
2007년 HAPPY 허니문



2007 Honeymoon event
미리미리 예약하고 왕창 할인받자!
30만원 할인 이벤트

평일/주말/야간 상담가능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투어펀 Tourfun** www.tourfun.co.kr

테마① 아이와 함께 테마파크 여행

[5월4일] 어린이날 제주도
2박3일 (금)
성인 : 279,000원
소아 : 209,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일반호텔 2박, 매직월드, 소인국 테마파크, 조랑말 승마, 민속마을, 미로공원 등

[튤립축제] 하우스텐보스 크루즈
2박3일 (금)
성인 : 319,000원
소아 : 286,000원
포함내용
크루즈왕복, 특급 닛코호텔 숙박, 천만궁 하우스텐보스 전일 관광 (프리패스)

동경/후지산/하코네 or 디즈니랜드 3박4일 (수/금)
성인 : 789,000원
소아 : 71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오다이바, 동경시내 관광, 닛코국립 공원 또는 디즈니랜드 중 선택

테마② 부모님과 함께 효도여행

화려한 봄꽃과 절경
제주 효도 택시 투어 2박3일
340,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중문 스위트 호텔 2박, 중·석식 포함 알찬 택시관광 2일

거대한 중국여행의 절정기
북경/만리장성 3박4일
299,000원
포함내용
만리장성, 명13릉,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천단공원, 발맛사지, 북경서커스, 특식 (오리구이, 샤브샤브, 한식 등)

특급 온천호텔과 뉴카멜리아
북큐슈 관광 온천 3박4일
359,000원
포함내용
크루즈왕복, 온천호텔2박, 벳부관광, 아소활화산, 원숭이쇼, 쿠마모토성, 천만궁

테마③ 아름다운 우리강산 제주&국내 여행

동백꽃의 향연 오동도와
매화마을 봄꽃여행 (당일)
45,000원
포함내용
왕복교통, 오동도관광, 딸기따기체험, 매화마을 (청매실공원), 매화축제 즐기기

크루즈 타고 떠나는
제주 해수온천여행 2박3일
99,000원
포함내용
크루즈왕복, 해수온천욕, 선상뷔페, 한라산 750고지, 화락원, 기예단쇼, 오토바이쇼 등

알뜰살뜰
제주일주 펀투어 3일
195,000원
포함내용
왕복항공, 승마체험, 성읍민속마을, 미니월드, 중국기예단쇼, 일출랜드, 섭지코지 등

테마④ 진정한 자유여행 프리스타일

후쿠오카 프리스타일 2박3일
169,000원
추천일정
하우스텐보스 – 텐진 번화가 쇼핑 –
– 캐널시티 – 나카스 (야타이 포장마차) –
– 100엔샵 – 전자상가
포함 : 크루즈왕복, 숙박, 안내자료, 샌딩서비스

베이징 프리스타일 3박4일
299,000원
추천일정
천안문 – 자금성 – 천단공원 – 북경서커스 –
– 오리구이 – 만리장성 – 이화원 – 용경협 –
– 짝퉁시장 – 북한식당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공항샌딩

홍콩 프리스타일 3박4일
465,000원
추천일정
침사쥬이 – 몽콕야시장 – 빅토리아 피크
야경관광 – 점보레스토랑 – 리펄스베이 –
명품쇼핑 – 마카오 관광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공항샌딩

REiM

부산본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 1가 24-2 독일빌딩 2층 (주)레임
서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1 두산위브센티움 930호 (주)레임
마산점)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1동 157-1 선메디컬센터 1층 (주)레임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619-5 소바안경점 3층 (주)레임

대표전화 (국번없이)
1544-2579
(투 어 친 구)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4월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4월 2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수요남극(가야금/김혜진, 정세희, 오은영, 옥경화 · 거문고/이대하, 엄애리, 전혜정, 이유진 · 양금/장미진 · 장구/이장우)
- 대금독주 '청성곡'(대금/강영진)
- 천년만세(대금/최재호 · 피리/정주아 · 해금/최윤희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박하혜 · 단소/김수일 · 양금/장미진 · 장구 · 이장우)
- 흥겨운 민요 한마당(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한영길 · 피리/박순자 · 해금/하지행 · 아쟁/홍영혜 ·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강상호 · 장구/신문범)
- 사물놀이(꽹과리/이주헌 · 장구/최오성 · 징/전학수 · 북/신문범)

※지휘자/박호성

※해설/백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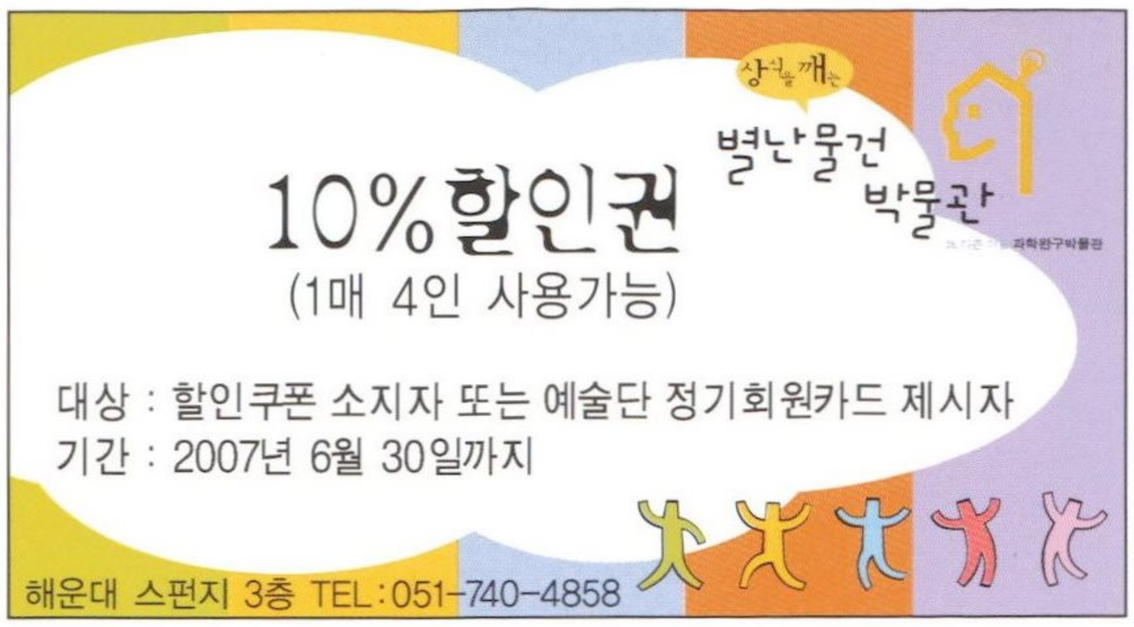
●4월 28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합죽선 산조춤(춤/권봉정)
- 고성오광대 중 '말뚝이춤'(춤/허태성 · 태평소/이창규 · 상쇠/김윤호 · 장고/류권홍 · 북/김기원 · 징/강모세)
- 춘접무(춤/최의옥, 안주희)
- 한영숙 류 태평무(춤/이현주)
- 설장고춤(춤/김윤호 · 상쇠/허태성 · 북/류권홍 · 징/강모세)
- 달빛춤(학춤/박창희 · 선비/이창규 · 아낙/정진희 · 강강수월래/김공주, 정은정, 이현정, 박창희, 오수연, 김주연, 김미란, 김경미, 이경현, 이현주)

※안무, 구성/홍기태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는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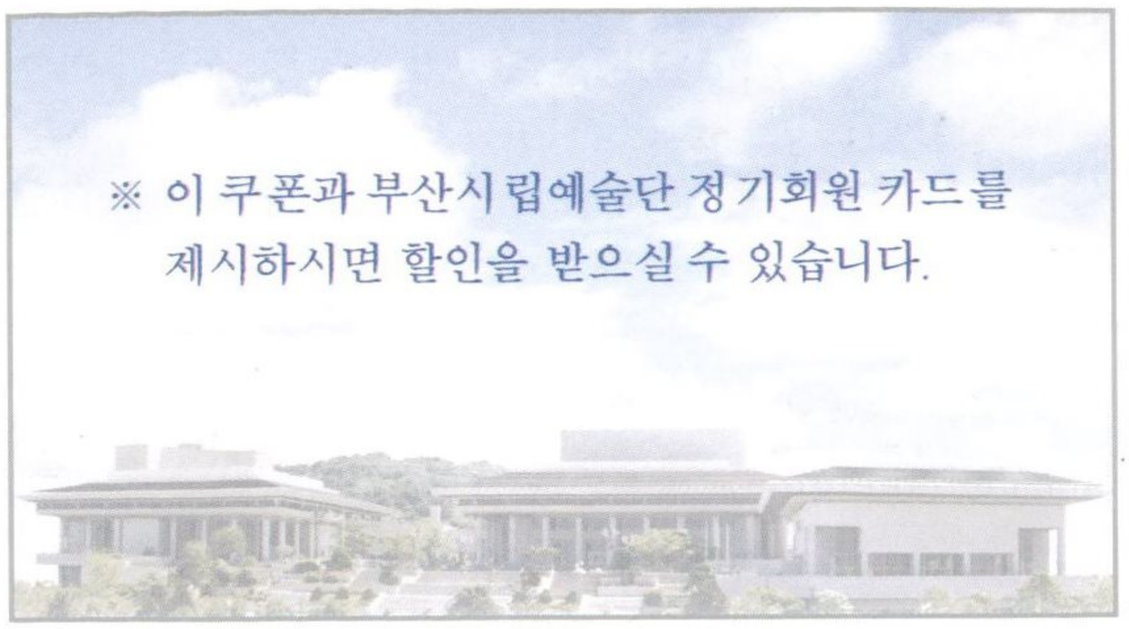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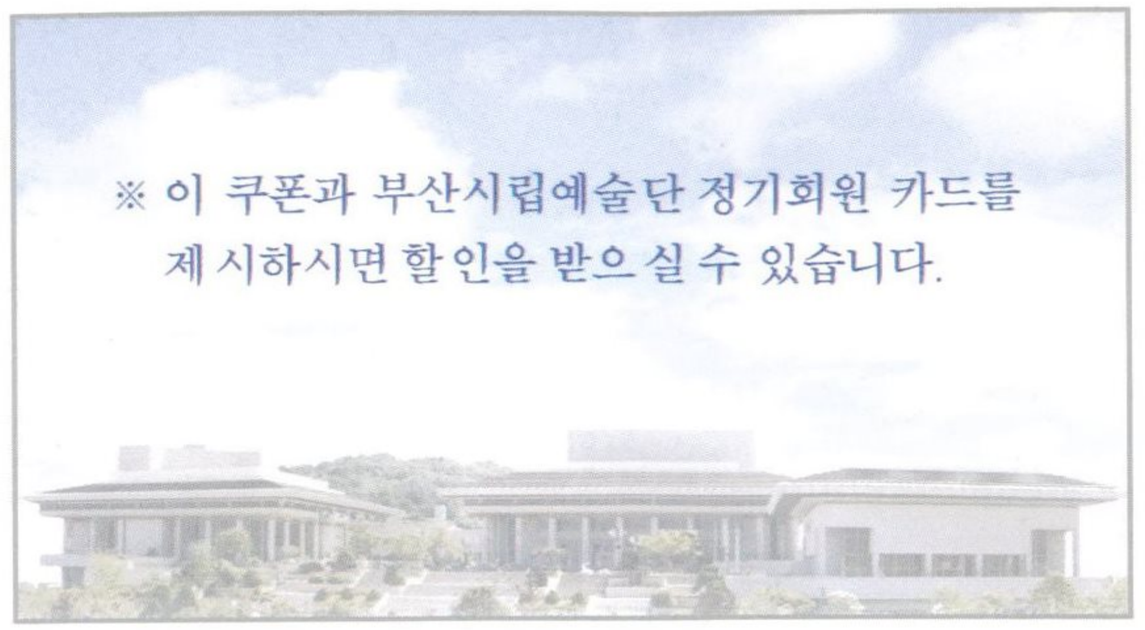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

전화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

주소 :

전화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10% 할인

- 날짜 : 2006년12월1일 ~ 2007년11월30일
- 시간 : 평일 – 오전10시 ~ 오후8시
  (마지막 입장 오후7시)
  주말·공휴일 – 오전9시 ~ 오후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70분간의 연애

10% 할인



- 날짜 : 2007. 3.8(목)~4. 1(일)
- 시간 : 평일 7:30/토요일 4:30, 7:30/
  일요일 3:00, 6:00(월 공연없음)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입장권 :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이미 예매하신 분은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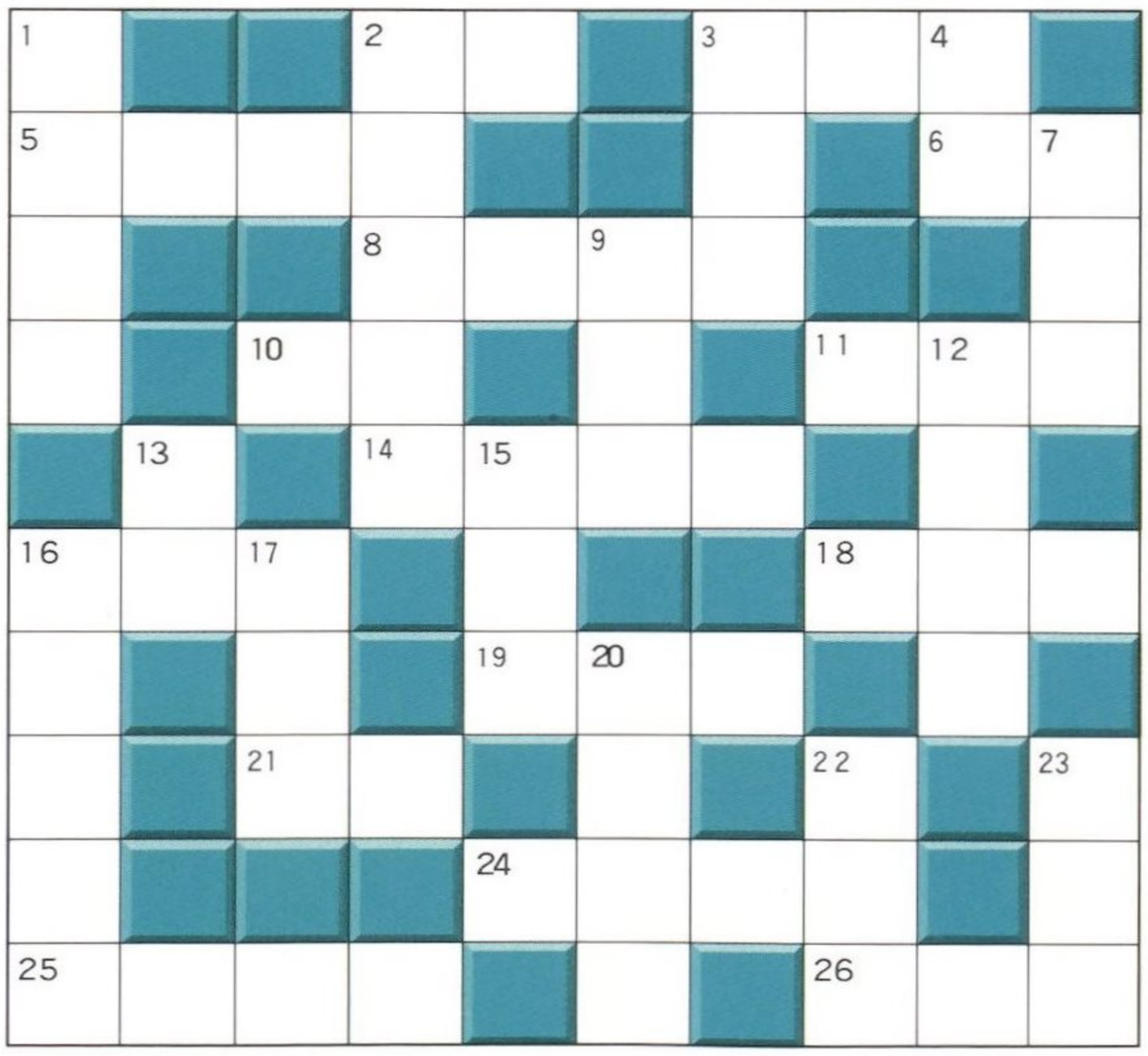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월 테마여행을 응모합니다.

- 회원명
- 회원번호
  (※마이비카드는 마이비숫자 10자리를 적어주십시오.)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응모엽서는 3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 주십시오.

퍼즐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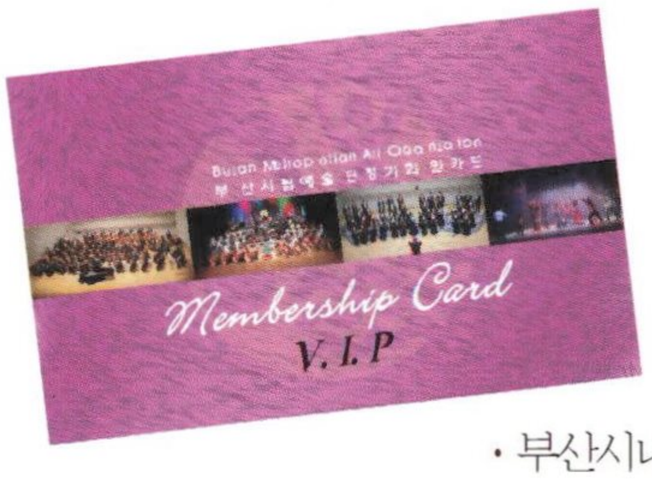
1. 이번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 협력업체 이용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별난물건박물관, 필하모니, 가마골 소극장, 아쿠아리움 등)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사랑회원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부산시립합창단
Busan City Chorus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과 함께 하는 2007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7080 그 세 번째 이야기

주로 느린 노래… 가끔씩은 빠르게… 거의 다 따라할 수 있는 노래…
그리고 우리들의 노래!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아직 마음은 10대
- 꽃동네 새동네
- 여고시절/ 여고졸업(엮어서 한곡으로)

이루지 못한 사랑의 꽃 노래
- 달맞이꽃(이용복)
- 못다 핀 꽃 한 송이(김수철)

풍경이 있는 노래
- 민들레 홀씨 되어(박미경)
-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예민)

행복하게 만드는 노래
- 행복한 사람(이문세)
- 행복을 주는 사람(해바라기)

[휴식-Pause] 추억의 CM송과 함께 식지 않는 노래
- 향수(김희갑) - 한계령(양희은)
- 큐(조용필)

특별초청 안치환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내가 만일 - 광야에서



2007. 5. 25(금)~26(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해설 / 김강규
- 편곡 / 최석태
- 특별출연 /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

■입장료 :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서 면/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개 금/ 신개금LG CLS (신개금LG 단지 내 898-9109)
남포동/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하 단/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